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7호, 2021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례

[섹션 1: 지식과 문화]

■ 김성범 ■

영화 <우리 선희>의 내러티브 분석9

■ 김현희 ■

심청의 홀로서기와 효의 완성 29

-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용석원 ■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물신주의적 믿음의 양상 57

[섹션 2: 지식과 교육]

■ 김성희 ■

과학문화의 시대,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방법 89

-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

■ 진민기, 진승모, 신세영, 심수홍, 김원중 ■

남자 대학생의 교양운동 교육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 109

■ 조 엘 ■

비즈니스 영어에서 TED 토크의 교육적 사용 125

■ 허지원 ■

성인문해교육 인식체제 분석을 통한 정규학교 도입 방안 제시 155

-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논문투고 규정..... 187
-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논문심사 규정..... 197
-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연구윤리 규정..... 200
-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211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7. 2021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 Kim, Sung Pum ▮

Narrative Analysis of the Film <Our Sunhi>9

▮ Kim, Hyun Hee ▮

Study on Simchung's Standing Alone and the Completion of Filial Duty29

▮ Yong, Seok Won ▮

Aspects of Fetishism in Choi In-ho's Novel in the 1970s.....57

[Section 2: Knowledge & Education]

▮ Kim, Seong Hee ▮

The Era of Science and Culture, Science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Method89

▮ Jin, Min Ki • Jin, Seong Mo • Shin, Se Young • Shim, Su Hong • Kim, Won Jung ▮

The Effect of Liberal Exercise Education for Male University Students on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Vital Capacity109

▮ Joel Rasmussen ▮

Instructional Use of TED Talks in Business English125

▮ Heo, Ji Won ▮

Proposal of a Plan for Introducing Schools through Analysis of the Recognition System of Adult Literacy Education155



영화 <우리 선희>의 내러티브 분석

김성범*

목차

1. 서론
2. 프레이밍
3. 색채
4. 관계(우연/필연)
5. 시선(유사성/비유사성)
6. 결론(부연)

1. 서론

영화 내러티브 분석은 ‘디에게시스(Diegesis)’와 ‘미메시스(Mimesis)’의 서사학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¹⁾.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은 어떤 사건의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흔히 전자는 ‘미메시스’, 후자는 ‘디에게시스’라고 이해된다. 영화에서 역시 이미지의 재현 방식을 ‘미메시스’ 그리고 주인공들의 서사 방식을 ‘디에게시스’라고 적용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참조

할 수 있다. 이 이분법적 사고는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예술에 대한 입장 차이 즉 ‘미메시스’를 바라보는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완벽한 이상 세계와 자연에 대한 모방은 단순한 사실에 입각한 ‘흉내(플라톤)’가 아닌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성의 ‘재현 방식(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의 내재성은 잠재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방을 통한 허구적 상상력(보편성)의 발현은 예술적 창조성(특수성)과 같다고 본다. 모방의 대상과 일체화되는 힘(의지)은 모방의 행위 즉 예술적 행위이다. 결국 현대 영화 내러티브 분석에 있어서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는 이분법적 이론으로서 적용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미메시스’는 ‘디에게시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법임과 동시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에게시스’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묘사된 이미지는 그 이미지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이 있고 결국 그 대상이 표현하고 싶은 서사라는 점에서 ‘미메시스’와 ‘디에게시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견해는 이미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의 영화 내러티브 분석 이론으로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우리 선희>(2013)를 분석해 볼 것이다.

2. 프레이밍- 등장인물들의 시점쇼트

영화 <우리 선희>(2013)를 등장인물의 관계도와 등장인물의 시점쇼트(POV) ‘프레이밍’을 따라 정리해 보았다.

- 1) ‘선희’와 ‘문수’ : ‘선희’와 ‘문수’는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언저리에 있다. 학교에서 만난 선배 ‘상우’와 심한 말다툼 끝에 속이 상한 ‘선희’는 학교 앞 길 건너 건물 2층에 있는 술집에 찾아 들어간다. 술집에 들어간 ‘선희’는 학교 앞 건물목이 잘 보이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앞는다. ‘선희’는 창을 통하여 학교를 바라본다. 조금 전 말다툼을 했던 선배 ‘상우’가 ‘선희’의 시선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 앞 건널목을 건너 프레임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우연히 ‘문수’가 건널목을 건너온다. ‘문수’는 ‘선희’의 시선 프레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프레임 안에서 머뭇거린다. 머뭇거리는 ‘문수’의 모습이 ‘선희’의 프레임에 잠시 고정되고 바로 프레임 안으로 ‘문수’를 부르는 ‘선희’의 목소리가 들린다. ‘문수’는 ‘선희’의 목소리를 듣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시선의 위쪽을 쳐다보고 ‘선희’를 확인한다. ‘선희’가 있는 이층 술집 공간으로 ‘문수’가 ‘프레임 인’한다. 잠시 후 ‘선희’가 먼저 술집을 나서며 ‘프레임 아웃’한다. ‘문수’는 혼자 남아 있다.

- 2) ‘선희’와 ‘상우’ : ‘선희’는 정말 오랜 만에 나타났다. ‘문수’의 내레이션에 따르면 ‘선희’는 거의 1년여 동안 잠수를 탔었다. 이런 ‘선희’가 학교에 나타나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선배 ‘상우’이다. 오랜만에 ‘선희’를 만난 ‘상우’는 다짜고짜 ‘동현’의 부재여부를 묻는 ‘선희’의 질문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동현’이 외국에 출장을 갔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잠시 후 ‘상우’는 우연히 ‘동현’을 만나고 온 ‘선희’에게 심한 면박을 당한다. ‘상우’는 ‘선희’의 공격적인 심한 말에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농담과 진담을 구별 못하는 ‘선희’에게 매우 실망한다. ‘선희’ 역시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상우’의 태도에 크게 격노한다. 선희와 상우의 첫 번째 마주침은 ‘선희’가 있는 공간으로 ‘상우’가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선희’가 먼저 ‘프레임 아웃’한다. 두 번째 마주침은 ‘상우’가 있는 공간으로 ‘선희’가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상우’가 먼저 ‘프레임 아웃’한다.
- 3) ‘선희’와 ‘동현’ : ‘선희’와 ‘동현’은 세 번 만난다. 첫 번째 만남은 학교 교정이다. ‘동현’은 교정 벤치에서 가을 햇볕을 즐기고 있는 도중 우연히 ‘선희’를 만나게 된다. ‘동현’이 있는 공간으로 ‘선희’가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선희’가 먼저 ‘프레임 아웃’한다. 두 번째 만남은 학교 앞 술집이다. ‘선희’가 있는 공간으로 ‘동현’이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선희’와 ‘동현’은 동시에 ‘프레임 아웃’한다. 세 번째 만남은 창

경궁 내 벤치이다. ‘동현’은 벤치에 앉아 있는 ‘선희’가 있는 공간으로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선희’가 먼저 ‘프레임 아웃’한다.

- 4) ‘선희’와 ‘재학’ : ‘선희’와 ‘재학’은 ‘선희’가 ‘재학’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희’는 ‘재학’의 집 앞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 있다. ‘재학’은 ‘선희’가 있는 커피숍 공간으로 ‘프레임 인’한다. 그리고 동시에 ‘프레임 아웃’한다. 곧 바로 장소를 이동하는 두 사람은 ‘주현’이 운영하는 술집에 온다. 술집 장면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미 ‘선희’가 술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재학’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임 인’한다. 이것은 ‘문수’가 ‘선희’가 있는 이층 술집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동현’이 ‘선희’가 있는 술집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같은 ‘프레이밍’이다. ‘선희’는 술에 취한 ‘재학’을 부축하여 ‘재학’의 집 앞으로 ‘프레임 인’한다. ‘선희’와 친한 키스를 한 후 ‘재학’이 먼저 ‘프레임 아웃’한다.
- 5) ‘문수’와 ‘재학’ : ‘문수’는 ‘재학’의 집을 찾아온다. ‘재학’의 집 아래에서 ‘문수’는 ‘재학’을 부르지만 좀처럼 ‘재학’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지 않는다. ‘재학’이 방 안에서 ‘문수’의 목소리를 듣고 창가 쪽으로 간다. ‘재학’은 ‘문수’에게 ‘주현’의 술집에서 만나자고 한다. ‘문수’가 ‘주현’의 술집에서 ‘재학’을 기다리고 있다. ‘문수’가 있는 공간에 ‘재학’이 문을 열고 ‘프레임 인’한다.
- 6) ‘동현’과 ‘재학’ : ‘동현’은 ‘재학’의 집을 찾아온다. ‘재학’의 집 아래에서 ‘동현’은 ‘재학’을 부른다. ‘재학’은 ‘동현’이 부르자마자 바로 창문을 열고 내다본다. ‘재학’은 ‘동현’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한다. ‘동현’이 커피숍에서 ‘재학’을 기다린다. ‘동현’이 있는 공간에 ‘재학’이 문을 열고 ‘프레임 인’한다.
- 7) ‘재학’과 ‘주현’ : ‘주현’의 술집에서 ‘재학’은 ‘문수’와 ‘선희’를 각각 만난다. 첫 번째, ‘문수’가 있는 술집 공간에서 ‘주현’은 ‘재학’과 같은 동선에 앉아 있다. ‘주현’은 ‘재학’과 카메라 사이에서 ‘리-프레이밍’한다. 두 번째, ‘선희’가 있는 술집 공간에서 ‘주현’은 ‘재학’과 같은 동선

에 앉아 있다. ‘주현’은 ‘프레임 아웃’한다.

- 8) ‘문수’와 ‘재학’과 ‘동현’ : 창경궁에서 ‘동현’이 화장실에 간 ‘선희’를 기다린다. ‘동현’이 있는 공간에 ‘재학’과 ‘문수’가 ‘프레임 인’한다. 세 사람은 동시에 ‘프레임 아웃’한다.

1번에서 8번까지 등장인물들이 서로 각각 만나는 ‘프레이밍’은 매우 친밀하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색하다. 이러한 어색함과 적막함과 답답함의 감정이입은 상당히 지연되고 고정된 ‘프레이밍’으로 나타난다. 즉 등장인물들의 프레임 인/아웃의 순서와 프레임 안에서 ‘줌인’과 ‘줌아웃’을 통한 화면 크기의 변화 그리고 카메라 ‘패닝’과 ‘클로즈-업’은 배우들의 시선을 따라 도식화된 ‘카메라 블로킹’을 통해 실행된다.

3. 색채- 노랑

영화 <우리 선희>에서 유독 눈이 띠는 노란색은 ‘오프닝 크레딧’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뒤이어 연속적으로 노란색으로 물든 은행나무 잎을 허공에서부터 ‘줌인’하면서 각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색채학에서 노란색의 정의²⁾는 이렇다. “노란색은 명시성이 높아 멀리서도 잘 보이는 가독성이 매우 높은 색이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명시성이 가장 높은 배색은 노란 배경에 검정색 글씨이다. 노란색은 색중에서도 가장 빛에 가까운 색이다. 긍정으로 빛나는 색이고 명랑함과 활동성, 기쁨과 희망을 나타내고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색이다. 노란색은 뇌의 파장을 자극해서 운동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색이다. 노란색은 햇볕처럼 따뜻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사용한다. 단 다른 사람과 오랫동안 있어야할 자리에서 노란색을 과하게 사용하면 상대방의 주의력이 산만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색채 심리학에서 노란색은 모순된 감정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2) 네이버(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021.05.24

선과 악, 낙천적인 심상과 시기심, 이해심과 배신의 감정 등을 들수 있다.³⁾ 이러한 노란색에 대한 일련의 정의가 영화 <우리 선희>에서 오히려 관객들에게 그 어떤 등장인물들보다 ‘선희’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 ‘선희’의 성격에서부터 현재 ‘선희’의 상태 그리고 세 사람(‘문수’, ‘재학’, ‘동현’) 내지 네 사람(‘문수’, ‘재학’, ‘동현’, ‘상우’)에 대한 ‘선희’의 알 수 없는 생각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은 ‘선희’로 인하여 이미 생각이 산만해질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수’와 ‘재학’과 ‘동현’ 이 세 사람은 모두 ‘선희’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세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모두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선희’에 관련된 세 사람은 동시에 모두 불연속성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희’와 세 사람의 관계도는 구조적 폐쇄성을 드러내지만 세 사람 각각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폐쇄성이 아닌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다. 즉 세 사람 각자 서로의 입장에서 ‘선희’와의 연관성은 절대적 단절과 폐쇄에서 상대적 해체로 위치 이동하면서 수시로 그 위치가 바뀐다.

4. 관계(우연/필연)- 선희와 등장인물들

‘선희’는 ‘문수’와 재연의 관계를 재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재학’과는 재연의 관계를 규명하려하고 ‘동현’과는 재연되게 하려 한다.

‘선희’는 ‘문수’에게 자신을 잊을만하면 다시 ‘문수’ 앞에 나타나서 ‘문수’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 ‘선희’가 이럴 때마다 ‘문수’는 ‘선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문수’가 생각하는 자신과 ‘선희’와의 관계는 90년대 중반, ‘황세옥’이란 가수의 노래 ‘결론’의 후렴구처럼 “농담

3) <https://wonderfulmind.co.kr/psychology-of-color-meaning/>,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woosh21&logNo=13003234997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021.05.24.

반 진담반으로 얘기해. 우린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인 것이다. ‘선희’와 ‘문수’의 대화 장면에서 카메라 ‘줌인’은 ‘문수’의 ‘선희’대한 마음의 흔들림이다. ‘문수’는 ‘선희’를 향한 친밀감 때문에 번번이 ‘선희’에게 전복당한다.

‘선희’는 ‘재학’에게 재연의 관계를 각인시킨다. ‘재학’은 ‘선희’의 귀밀 머리를 쓸어 올려주면서 친밀한 터치를 하고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이마를 맞대고 시간을 오랫동안 지연시킨다. 프레이밍은 ‘줌인’되어 고착된다. 그리고 ‘재학’의 집 앞에서 ‘선희’와 ‘재학’은 진한 키스를 한다. 키스를 한 후 ‘선희’는 ‘재학’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배, 하고 싶죠!!” ‘재학’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이런 ‘재학’을 ‘선희’는 과감하게 집으로 밀어 낸다. ‘재학’은 시간을 지연시키려 부자연스런 행동을 하지만 수줍게 포기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돌린다. ‘재학’의 아쉬움을 확인한 ‘선희’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선배, 시간은 많아요!!!” ‘선희’가 뒤돌아 길을 걸어 내려간다.

‘선희’는 ‘동현’과의 관계를 재연되게 한다. ‘동현’은 ‘선희’와의 재연된 관계성에 매우 설레임을 갖는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선희’가 자신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동현’의 감정 상태는 ‘동현’과 ‘재학’의 커피숍 장면과 그 이후의 ‘동현’과 ‘재학’의 모든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동현’이 ‘선희’에 대한 감정 변화는 영화 첫 장면에서 ‘선희’가 ‘동현’의 추천서를 읽고 난 후 행동과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선희’가 ‘동현’의 새로 고쳐 쓴 추천서를 읽고 난 후의 행동 변화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동현’ 역시 ‘선희’의 농밀한 포옹에 전복 당한다.

5. 시선(유사성/비유사성)- 선희를 바라보는 세 남자

세 사람이 ‘선희’를 바라보는 각자의 시선들, 그것 때문에 가시적이 된 얼굴들, 그 얼굴 표정들과 함께 나타나는 행동들이 ‘프레이밍’과 카메라 움

직임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세 사람 각각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의미를 겹돌고 있는 대화는 무엇인가 닮아있다는 ‘유사성’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감정이다. 이것은 ‘선희’와 세 사람의 시선에서 알 수 있다. ‘문수’의 시선, ‘재학’의 시선 그리고 ‘동현’의 시선 모두 ‘선희’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모두 다른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선희’의 주체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각각 자신의 의미로서의 ‘선희’의 주체만 바라볼 수 있을 뿐 원래 ‘선희’의 주체는 없어진 지 오래다. 아니 있지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지만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희’ 역시 스스로 자신의 주체가 뭔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희’는 영화 처음부터 ‘동현’이 한 말—“무엇인가 한 가지를 끝까지 깊게 파고 깊게 파보고 깊게 파서 갈 때 까지 가보라.”—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체가 없는 ‘선희’는 세 사람에게 순수하다. 순수한 ‘우리 선희’가 되는 것이다. ‘선희’가 재현하고 있는 세 사람과의 관계는 재현 그 자체에 관계적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선희’와 재현하고 있는 관계는 재현 주체에 그 관계적 중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각각 ‘선희’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을 언어로 나열함에 있어서 비슷한 유사성을 표면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유사성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 관계의 중앙에 ‘선희’를 배치하고 그런 ‘선희’를 바라보는 공통의 감각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희’는 세 사람과의 관계에 결코 집착을 하지 않는다. ‘선희’에게 중요한 것은 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는 감각 그 자체이다. ‘선희’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런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선배 ‘상우’와 심한 말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누구라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인사를 건네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우’는 자신의 행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희’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

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상우’의 농담 섞인 말의 행간을 이미 이해할 수 있는 ‘선희’였다면 세 사람과의 관계는 벌써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선희’가 본성적으로 다른 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이를 통해서 보며 유사를 통해 말한다. 하지만 세 사람이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은 유사를 통해서 보며 차이를 통해 말한다. ‘선희’가 세 사람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완전 다르지만 세 사람을 한 명씩 만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 사람의 말로 되풀이되는 공통된 텍스트들의 문맥을 듣고 혼동을 일으킨다. 마치 우리가 ‘데자뷰’ 현상을 겪으면서 이미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선희’는 세 사람의 언어의 텍스트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사실 세 사람의 이미지 심지어 이름도 제각각 다른 세 사람은 ‘선희’와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모두 서로에게 ‘선희’에 대한 각각의 관계를 완전 은폐시키고 있고 동시에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잘 짜여진 완벽한 구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안정적인 구조적 관계에 있는 세 사람이 ‘선희’와의 관계에서 불확실하고, 각자의 공간 속에 ‘선희’를 감춰둠으로써 불안감마저 들게 한다. 심지어 ‘주현’의 술집에서 만난 ‘재학’은 ‘문수’와의 대화에서 공격적인 말투로 적대감을 드러낸다. ‘재학’의 이런 행동에 ‘문수’가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지만 ‘재학’을 끝까지 대답을 회피한다. 오히려 세 사람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선희’가 불안해 보여야 하지만, 영화 속에서 ‘선희’의 이런 모습은 ‘동현’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창경궁을 급히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비취질 뿐 영화 전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 결국 어떤 사물에 대한 유사성을 찾는 관점의 차이에서 모방 내지 재현적 관계의 전복적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상적 원본에 대하여 ‘~을 닮다’라는 유사성을 찾는 모방성 내지 재현성의 관점과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것에서 유사성을 찾는 ‘차이성의 관점’ 또는 ‘전복적 관점’이다.

‘선희’의 관점은 후자의 관점이고 세 사람의 관점은 전자의 관점이다. ‘선희’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세 사람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았다는 데 있다. ‘선희’는 ‘동현’에게서 들은 말을 ‘재학’에게서 듣는다. ‘문수’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동현’에게 들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말을 ‘동현’이 따라 하고 있다는 듯 발끈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을 한다. 결국 ‘선희’와 세 사람이 서로 서로에게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한없고 끈질긴 중얼거림과도 같다. 이집트 벽화와 피카소 그림의 공통점은 ‘아는 대로 그리는’ 회화이다. 그러나 회화의 대부분 사조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 회화이다. 그러나 이 두 관계는 전복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순환의 관계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의 ‘불확정성의 원리’⁴⁾처럼 존재는 확실하지만 존재자의 위치와 궤적은 측정 불가능하다. ‘선희’와 세 사람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이다. ‘선희’와 세 사람은 명백히 보는 것과 말하는 것에 단절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단절된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서로에게 전복적 위치에 있지만, 순환적 관계를 지속하는 명확하지만 불확정성으로 연결되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에서 영화 <우리 선희>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 1) ‘선희’는 대상으로서 세 사람 각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선희’와 붙어 있지 않다.
- 2) ‘우리 선희’로 통하는 대상들로서 ‘선희’가 있을 뿐이다.
- 3) ‘우리 선희’는 세 사람에게 각자 이미지로 만난다. 세 사람 각자에게

4) ‘불확정성의 원리’는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입자의 위치-운동량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원리, 즉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운동량의 퍼짐(또는 불확정도)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운동량이 정확하게 측정될수록 위치의 불확정도는 커지게 된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쓰게 되면 관측을 하는 그 순간에도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한 값은 불확정한 값이 된다는 의미이다. ‘비결정론’, ‘카오스 이론’ 또는 ‘나비효과 이론’으로 불린다. 인문학에서는 사건의 인과율이 존재한다는 것, 즉 원인에 대한 합리적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성적 사고에 대한 ‘전복’, ‘전복이론’, ‘전복적 사고’ 등으로 적용된다.

‘우리 선회’가 아닌 ‘선회’로 만난다. 세 사람에게 이름을 가진 대상으로서의 ‘선회’와 이미지로서의 ‘선회’가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

- 4) 세 사람에게 ‘우리 선회’는 때로 ‘선회’의 이미지를 대신한다.
- 5) 세 사람에게 ‘우리 선회’는 때로 자신만의 ‘선회’를 지시하기 위해 쓰인다.
- 6) 이름으로서 ‘선회’는 현실에서 ‘우리 선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 7) 세 사람에게 ‘선회’는 ‘우리 선회’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 8) ‘우리 선회’는 세 사람 각자에게 다른 ‘선회’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게 한다.
- 9) ‘선회’가 세 사람 각자에게 하나의 대상으로, 다시 그 대상으로 재현하는 것 사이에는 별 다른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 10) 세 사람이 각각 ‘우리 선회’를 지시하는 데 쓰이는 말들은 각자의 대상으로서 ‘선회’를 가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 11) 영화상에서 배우들의 대사는 이미지와 같은 실체를 갖고 있다.
- 12) 영화상에서 표현되는 이미지와 카메라 기술을 다르게 볼 수 있다.
- 13) 하나의 대상의 이미지를 대신할 수 있는 형태들은 수없이 많다.
- 14) 대상으로서의 ‘선회’는 ‘선회’의 이름이나 ‘선회’의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맡지 못한다.
- 15) 그런데 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선회’는 모자이크를 이루는 듯 서로서로 인접한다
- 16) 세 사람 각자에게 보이는 ‘선회’의 모호한 모습도 결국 ‘우리 선회’를 정확하게 의미화 작용하는 데 필요하다.
- 17) 때로 영화상에서 이미지들은 분명한 것들을 지시한다. 그리고 씩여진 언어들은 모호한 것들을 지시한다.
- 18) 혹은 그 반대이다.

6. 결론(부연)

영화 <우리 선회>에서 세 사람이 바라보는 ‘선회’는 거의 같다. ‘문수’

가 ‘재학’에게 또는 ‘재학’이 ‘문수’에게 또는 ‘동현’이 ‘재학’에게 말하는 ‘우리 선희’는 정확히 말하면 같기는 하되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다. 똑같은 카메라 기법, 똑같은 대사(언표) 그리고 아무런 특징적인 한계도 특별한 것도 없는 공간 속 배치 속에 세 사람과 ‘선희’는 놓여 있다. 모두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언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공간에서 마주칠 때, 마치 특정한 좌표 없이 현재의 유동적 위치만 있는 바다 위의 부표처럼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동현’이 ‘선희’에게 또는 ‘선희’가 ‘동현’에게, ‘문수’가 ‘선희’에게 또는 ‘선희’가 ‘문수’에게, ‘재학’이 ‘선희’에게 또는 ‘선희’가 ‘재학’에게, ‘재학’이 ‘문수’에게 또는 ‘문수’가 ‘재학’에게 그리고 ‘동현’이 ‘재학’에게 또는 ‘재학’이 ‘문수’에게 주고받는 그 애매모호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선희’의 조작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희’ 그 자체가 세 사람에게는 미국 드라마 프린지(Fringe)⁵⁾에서 나오는 ‘글리프코드(GlyphCode)⁶⁾ 내지 ‘칼리그램(Calligrammes)⁷⁾이다. ‘선희’를 통해 세 사람은 ‘우리 선희’라고 하는 ‘바

5) 프린지(Fringe)는 2008년 9월 9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FOX 방송’에서 방영했던 드라마이다.

6) ‘타이포그래피’에서 ‘호모글리프’는 모양이 같거나 구분할 수 없는 글자나 서체를 말한다. 문자의 구체적인 모양, 디자인 표현을 가리킨다. 특정한 글꼴, 자소 따위의 기록언어의 요소에서 특정한 그래픽 표현을 가리킨다. ‘자체(字體)’나 ‘자형(字形)’은 글자의 모양을 가리킨다. ‘자체’는 하나 이상의 ‘자소’로 이루어진다. ‘글리프(Glyph)’라는 개념은 ‘자체’의 문자 코드에서 뜻과 소리를 지니지 않는 도형 기호(구두점, 괄호, 공백 등)의 추상화를 포함한다. 고고학에서 ‘글리프’는 새겨진 상징물을 뜻한다. 음절문자, 표어문자와 같은 문자 체계에 속하는 픽토그램, 표의문자가 이에 속한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7) 문자로 형상을 그리는 기법. 그림시, 모형시, 구상시, 구체시 내지 형태시라고도 불린다. 일부 그리스 시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본문이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사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시에 형태를 부여했다. 그후 르네상스와 17세기에 도형시라 불린 이러한 모형을 이룬 형태들이 상당히 유행했다. 대표적인 구상시는 ‘조지 허버트’의 <부활절 날개>와 <제단>이 있다. 회화적 내지 시사적 구상시는 ‘말라르메’의 <던져진 주사위>, <아폴리네르>, <칼리그램> 등이 있다. 네이버(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미셸 푸코’가 쓴 미술비평서,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에 ‘칼리그램’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다.

라보기와 읽기’, ‘형상화하기와 말하기’ 그리고 ‘재현하기와 의미하기’를 시도하지만, 관객인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 선희>에서 ‘우리 선희’는 ‘선희’가 아니다. 영화 속 세 사람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 선희’의 말과 연결될 뿐 관객의 시선과 ‘선희’의 시선에서 보는 ‘우리 선희’는 사라지고 아주 다른 것을 진술한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우리 선희’에 동의할 수 없고 동시에 다의적인 ‘선희’의 이미지와 텍스트에 속해 있지만 애매모호한 존재와 혼합적인 요소로서가 아닌 본성적으로 다른 일의적인 ‘선희’의 존재를 보고 느끼는 순간 동시에 사라진다.

관객들의 ‘선희’에 대한 혼란은 이 시점에서 기인한다. 그것은 ‘상우’가 ‘선희’대한 시선과 마주치기도 한다. 길 위에서 사람들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길은 잃는 곳은 오직 이정표 앞에서만 길을 잃을 뿐이다. 영화 <우리 선희>에서 영상 언어와 카메라가 만드는 이미지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배우들의 대사만 출렁거리면서 영화 속 세 사람과 관객들은 모두 ‘선희’가 사라진 공간을 경험할 뿐이다. 마치 영화 오픈 크레딧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통 노란색 공간에 떠다니는 자막과 같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세 사람에게 또는 관객들에게 매우 잔인한 공간이다. ‘선희’의 흔적과 채취가 사라진 색채만 남아 있는 공간에서 숨은 설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 정말 ‘선희’를 찾을 수는 있을까. ‘선희’가 사라지고 없는 창경궁의 빈 공간에서 세 남자는 반성을 하듯 창경궁 명정전의 앞을 배회한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기 때문에 달은 보이기도 하고 안보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달이 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달을 보는 매 순간마다 떠 있는 달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보는 사이 달이 떨어지는지 또는 사라지는지 그 사실은 알 수 없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와 궤적

은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할 뿐 둘을 동시에 경험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영화 <우리 선희>에서 ‘선희’의 사라짐은 사라짐 속에서 사라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듯 ‘순수한 선희’를 표현한 그 자체이다. ‘선희’는 세 사람 또는 관객이 경험하는 ‘순간의 시간화’를 대상화시켜낸 ‘표시’이다.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간에서 세 사람과의 시간적 단절의 경험이 ‘선희’와의 재현이라면 관객은 ‘상우’와 같은 네 번째 시간적 단절의 경험을 각각의 시간대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선희’는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고 다시 사라질 것이고 세 사람과 관객들은 끊임없이 단절과 재현을 갈망할 것이다. ‘선희’는 창경궁 흥화문을 통하여 시간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 참고문헌

- 김 현, 『시칠리아의 암소 - 미셀 푸코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4, 1~230쪽.
-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1 : 위상학』, 미메시스, 2010, 1~325쪽.
-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2. 은유와 생성』, 미메시스, 2011, 1~310쪽.
-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3. 용해와 내재성』, 미메시스, 2012, 1~340쪽.
- 장용순, 『현대 건축의 철학적 모험 04. 생기론』, 미메시스, 2013, 1~298쪽.
- 경혜영, 「들뢰즈의 잠재된 것의 존재론과 잠재적 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2, 1~174쪽.
-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유영미 옮김, 『부분과 전체』, 서커스출판상회, 2020, 270~320쪽.
- 쉬잔 엠 드 라코트, 이지영 옮김, 『들뢰즈 : 철학과 영화』, 열화당, 2004, 53~98쪽.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1~154쪽.
- 아사다 아키라, 이정우 옮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새길 1995, 1~210쪽.
- 크리스티앙 메츠, 이수진 옮김, 『상상적 기표 - 영화 정신분석 기호학』, 2009, 1~178쪽.

기타 참고 될 만한 문헌 ; 들뢰즈의 저작 및 약어(출판연도순)

- NP : *Nietche et la philosoph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 『니체의 철학』(이경신 옮김, 민음사, 1998)
- PS : *Proust et les sig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4. / 『프루스트와 기호들』(서동욱, 이충민 옮김, 민음사, 1997)
- B : *Le bergsonism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6. / 『베르그송주의』(김재인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68)
- SPE : *Spinoza et le Problème de l'expression*, Minuit, 1968.
- DR : *Différence et Répéti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9.
- LS : *Logic du sens*, Minuit, 1969. / 『의미의 논리』(이정우 옮김, 한길사,

1999)

MP : Mille Plateaux, Minuit, 1980(avec Félix Guattari) / 『천개의 고원』(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IT : Cinéma 2 : l'image-temps, Minuit, 1985.

D : Dialogue, Flammarion, 1995(avec Claire Parnet)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대 영화 내러티브 분석에 있어서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의 이분법적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이론적인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즉 ‘미메시스’는 ‘디에게시스’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법임과 동시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에게시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묘사된 이미지는 그 이미지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이 있고 결국 그 대상이 표현하고 싶은 서사라는 점에서 ‘미메시스’와 ‘디에게시스’는 상호보완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론적 관점을 견지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우리 선희>(2013)를 분석해 볼 것이다.

주제어 • 디에게시스, 미메시스, 내러티브 분석, 이미지, 상호보완적 관계

■ Abstract

Narrative Analysis of the Film <Our Sunhi>

Kim, Sung Pum

Film narrative analysis is based on the narratology of "Diegesis" and "Mimesis". The method of composing the story represents the situation of some cases and can be expressed in words. It is often understood that the electron is "mimesis" and the latter is "Diegesis". In the movie, the image representation method can be applied as "Mimesis" and the magnificent method of the main characters can be applied as "Diegesis". These dichotomous thoughts is derived from the difference in the aesthetical view of Plato and Aristotle, that is, the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mimesis." The Mimesis used to be described the perfect world(IDEA) and nature is not imitation based on simple facts(plato) but representation method of peculiarity based on universality(Aristotle). Aristotle thought that the expression of fictitious imagination through mimesis(universality) is regarded as the same as aesthetical creativity(specificity) because the immanence of human nature is potential existence. The power(will) integrated with the object of mimesis is the act of mimesis, that is, the performance of Arts. After all, in narrative analysis of the film theory, it is natural that "Diegesis" and "Mimesis" should be applied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pplied as a dichotomy theory. "Mimesis" is a variety of processes communicating "Diegesis" and at the same time means "Diegesis" itself communicating narrative(story). For example, Some described images have objects to be depicted by the image and ultimately, that images is the narratives that the objects is eager to express. in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elucidate that "mimesis" and "diegesis" are complementary relationship.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thoughts was already developed by "Christian Metz" into the theory of film story analysis.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thoughts, I do analyze the film <Our Sunhi> (2013) directed by Hong Sangsoo.

**Keyword • Diegesis, Mimesis, Narrative analysis, Image,
Complementary relationship**



심청의 홀로서기와 효의 완성*

-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 현 희**

목차

1. 들어가며
2. 자라나기: 충분한 애정과 자기 목소리 내기
3. 홀로서기: 새로운 세계의 진입과 자기 완성
4. 맺음말

1. 들어가며

우리는 더 이상 <춘향가>의 쑥대머리 대목에서 눈물짓지 않으며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들으며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춘향가>를 ‘음탕 교과서’로 보거나 <심청가>를 ‘처량 교과서’로 파악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우리와 거리가 상당한 고전 작품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릴지도 모른다. 특히 심청은 효이데올로기 속에 정형화 되어 우리 머릿속에 각인 되어 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473)

** 신한대학교 강사

다. 여전히 <심청가>가 지니고 있는 랑그는 효의 관점이 분명하지만, “신화는 빠롤이다”¹⁾라는 롤랑 바르트의 말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독자에 따라 의미가 재구될 수 있다.

근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신조어로 ‘딸바보’가 있다. 딸바보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 사랑이 지나쳐 주위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낄 때는 부정적 어조로도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삶의 숙제와 부딪히게 된다. 오랫동안 이 항존적인 물음에 응답해온 고전서사가 있으니 <심청가>²⁾이다.

딸바보의 원조로 볼 수 있는 심봉사는 곱씨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물이다. 곱씨부인이 심청을 낳고 산후별증으로 죽었으니 어미 잃은 자식을 바라보는 심봉사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나 심봉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에 심청 없이는 살 수 없고, 심청 역시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다. 그런데 아무리 딸바보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더라도,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어 ‘동반의존(co-dependency)³⁾’이라는 다소 비판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이

1) Roland Barthes, *Mythologies*, 1957, 이화여자대학교기호학연구소,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263쪽.

2) 본고에서 <심청가>이라 일컬음은 심청전·심청가·심청무가·심청설화 등을 포괄한다.

3) 동반의존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초기에는 알스더프(Alsdurf)가 “타인에 대한 심한 의존과 집착”으로 규정하였으며 질병 모델의 이론가와 치료사들이 이 개념을 적극 사용하였다. 현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김현진, 「동반의존성의 개념 연구」, 『광신논단』15, 광신대학교, 2006 참조). 그리고 지나치게 수동적 혹은 과도하게 보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과 더불어 종종 타인의 요구에 과도하게 골몰하여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글의 목적은 심청의 몇 가지 행동양식을 점검하고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 인지를 살피는데 있다.

다음은 이 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행연구이다.

황패강은 프로이트를 인용하며 심청 근원설화를 인류적 향토로의 복귀 지향에서 부단히 반복되는 인간생명의 울동으로 파악하고, <심청가>의 주제를 단순한 효관념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이야기라 설명하고 있다.⁴⁾

조두영, 류인균은 한국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관점으로 <심청가>를 바라보았다.⁵⁾ 심봉사가 무의식 중에 괘씨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심청을 원망하고 있으며, 심청은 죄책감과 아버지가 자신을 유기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효심으로 방어한다며 심청의 효를 죄책감과 피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중환은 분석심리학자인 융이 말한 자기실현을 중심으로 <심청가>를 독해했다.⁶⁾ 심리학적으로 눈은 의식을 상징하기에 눈이 먼 심봉사는 당대 사회 질서에 어긋나 있는 무의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 무의식 상태의 눈먼 심봉사가 눈뜬 심학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심청과 주변인물들이 심봉사의 의식화과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심청은 인당수에 빠짐으로써 소아(小我)에서 대아(大我)로 거듭났다고 보았다.

윤인선은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청가>를 바라보며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먼저 심봉사가 이기적 욕심으로 딸을 버렸기에 심청이 자살

4) 황패강, 「심청 설화의 분석 -인류적 향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31, 국어국문학회, 1966.

5) 조두영·류인균, 「한국고전소설 심청전의 정신역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07(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2.

6) 설중환, 「심청전 :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1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을 하고 말았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대립적 부녀관계로 파악하였다.⁷⁾ 다른 글에서는 심청과 심봉사의 관계를 아버지와 근친애적 공생관계로 보고 아버지의 유기가 심청을 우울증에 빠뜨려 장승상부인을 통해 공양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자살이라는 퇴행을 보였다고 한다.⁸⁾ 또 심청의 죽음을 우회된 자살로 정의하고,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딸이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⁹⁾

이승수, 김용선은 부녀관계를 중심으로 <심청가>의 서사관계를 파악하였다.¹⁰⁾ 딸이 아버지와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시도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본 논의와 유사하나, 그 결과가 딸의 탄생과 동시에 심봉사의 애착이 아내에서 딸로 옮겨가고, 딸의 분리와 혼인의 충격에 심리적 혼란을 겪다 딸에 대한 환상이 깨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심청가>는 판소리, 고전소설, 무가¹¹⁾, 시가¹²⁾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소개된 이본만 230여종이다.¹³⁾ 그리고 현대에도 여전히 소설, 희곡,

- 7) 윤인선, 「<버림받은 딸> 심청」,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 8) 윤인선, 「심청의 우울증」, 『라깅과 한국현대정신분석』12(1),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2010.
- 9)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30, 세계문학비교학회, 2010.
- 10) 이승수·김용선,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79,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 11) <심청가>의 비교대상으로 삼은 <삼공본풀이>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청굿>을 분석대상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대부분 <심청굿>에는 심청이 용궁에 들어가 용왕과 괘씨부인을 만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용궁 생활이 판소리에 비해 소략하게 나타나 있으며 판소리에 비하여 후반부가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 용궁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심청굿>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12) 박일용, 「<심청전>의 가사적 향유양상과 그 판소리사적 의미」,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박일용, 「가사체 <심청전>이본과 초기 판소리계 <심청전>의 관련양상」, 『판소리연구』7, 판소리학회, 1996.
- 13) 김영수에 따르면 심청전은 대략 230여 종에 이른다. 창본 20종, 방각본 11종, 필사본 130종, 활자본 31종, 심청굿 무가채록본 15종, 심청요 채록본 11종, 창극본 2종, 번역본 10종(한문 2종, 일문 5종, 영문 2종, 독문 1종) 기타 토막소리 다수

창극,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되고 있는 작품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해 고심한 대상은 판소리 창본과 고소설이었다. 그러나 고소설 중 필사본은 필사자의 가치관과 미감에 따라 일정부분 개작이 이루어지며 방각본의 경우 경판과 완판의 서사체계가 크게 나타난다.¹⁴⁾ 따라서 판소리 창본 중 편차가 적고 완결성이 있다고 판단한 끝에 정광수 창본을 선택하였다. 정광수 창본은 사설을 의도적으로 변개하지 않았으며 인물과 상황에 대한 안정적인 인물을 형상화 하였고 전체 주제를 잘 살려 내고 있다.¹⁵⁾ 따라서 정광수 창본을 주 텍스트로 삼되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하여 다른 이본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설화나 고소설 속에서 딸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크게 ‘집 나간 딸’, ‘팔려간 딸’, ‘버려진 딸’ 세 부류가 있다. 이 중 대표 유형을 뽑자면 집 나간 딸에 <삼공본풀이>, 팔려간 딸에 <심청가>, 버려진 딸에 <바리공주>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설화 연구에서 집 나간 딸의 주체성과 버려진 딸의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어도, 팔려간 딸의 수난에 대해 다른 글은 드물다. 아무래도 팔려갔다는 사실 때문에 그간 주인공의 수동성을 당연시 하고 자발적인 주체성과 성장을 주목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처음에 아버지를 위해 자기희생적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이후 탈애착적

가 존재한다(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판소리연구』 11, 판소리학회, 2000).

- 14) 심치열, 「<심청전>의 구조화 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학』43, 1997, 123쪽.
- 15) 판소리 이본은 “정광수 스스로 자신의 심청가 사설에 대해 김창환의 가사와 정응민의 가사를 협화적으로 편성하면서 부분적으로 가감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광수 창본 심청가와 흥보가는 작품의 서사구조나 주요 대목, 주제에 있어 기존 작품에 대한 심각한 변개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일관된 주제의식에 입각해 기존 사설을 자연스럽게 아우르고 있으며, 그 주제의식은 두 작품의 본령에 닿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판소리연구』19, 판소리학회, 2005). 정광수 창본의 원문은 다음 책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원문을 인용할 때는 다음 책의 쪽수만 적기로 한다.
- 김진영 외, 「정광수 창본 심청가」, 『심청전 전집』2, 박이정, 1997, 69~134쪽.

으로 자기를 굳건히 한 상태에서 효를 베풀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한다.

<심청가>를 분석하며 심청의 행동양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 이론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의 도움을 받았다. 작품을 해석하는데 특정한 이론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과 충동만으로 심청을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대상관계이론이 정신분석학의 계보를 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심청의 행동양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고전서사인 <삼공본풀이>¹⁶⁾를 선택하였다. 이미 <심청가>와 다른 작품의 관련성¹⁷⁾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삼공본풀이> 역시 여러 작품들과 다 각도로 비교¹⁸⁾되었다. 그러나 <심청가>와 <삼공본풀이>를 함께 고찰하는 작업은 드물다. 이에 <심청가>와 <삼공본풀이>를 비교하고 두 작품의 상동성을 통해 용궁과 꽃, 배뜨롱 밑 선그릇의 상징성에 대해 보다 서사적인 면

16) 제주도에서 채록된 <삼공본풀이>가 다수 존재하나 아래 책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곳의 진행 순서대로 채록을 하였으며 주석이 정밀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 받은 현용준의 책을 기준으로 하고 원문을 인용할 때는 책의 쪽수만 적기로 한다.

적송지성·추엽용,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199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현용준, 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제주도무가』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17) 김진영, 「<심청전>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미 -본생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2001; 정운채,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33, 겨레어문학회, 2004.

18) <삼공본풀이>는 주로 설화 <내 복에 산다>와 관련지어 연구 되었으며(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5; 최운식,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71;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 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1988; 김석배, 『내 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학』3, 문학과학연구회, 1982), 그 외에도 <바리공주>, <서동요>, <리어왕>, <심청전> 등 여러 작품과 유사성이 지적되었다(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28, 1996; 정운채,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33, 겨레어문학회, 2004;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27, 한국구비문학회, 2008).

을 부각시켜 심청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심청의 성장과 홀로서기의 방식, 그리고 <심청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효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2. 자라나기 : 충분한 애정과 자기 목소리 내기

흔히 <심청가>는 효(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바리공주>와 견주어 지고는 했다. 심청이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스스로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는 점과 바리가 아버지를 위해 약을 구하러 저승길로 나서는 대목을 상기시켜 본다면 <심청가>와 <바리공주>를 한데 묶어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심청가>는 <바리공주>보다, 부모-자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두 여주인공이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점에서 <삼공본풀이>와 친연성이 더 짙다. 먼저 주인공을 중심으로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심청가>

- 1) 심청이 태어나 젓동냥으로 자라 일곱 살이 된 후 밥을 빌러 다닌 이야기
- 2)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대신한 이야기
- 3)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용궁에서 올라와 황후가 된 이야기
- 4) 심청이 맹인잔치를 열어 눈먼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게 한 이야기

<삼공본풀이>

- 1) 갸은장아기가 태어나 사람들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 살린 이야기
- 2) 갸은장아기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
- 3) 갸은장아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혼인하고 금을 발견한 이야기
- 4) 갸은장아기가 거지잔치를 열어 눈먼 부모를 만나 눈을 뜨게 한 이야기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보니 두 작품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심청은 아버지가 몽은사 화주승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을 나서고 목숨을 던졌으나, 감은장아기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 쫓겨난 경우다. 이 대목에 대한 답은 후술하기로 하고 각 서사단락의 비교를 통하여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밝히고, 감은장아기를 통해 심청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서사 단락을 보면 <심청가>의 ‘심청이 태어나 젖동냥으로 자라 일곱 살이 된 후 밥을 빌러 다닌 이야기’와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기가 태어나 사람들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 살린 이야기’는 자녀들이 15세까지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더불어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심청은 태어날 때부터 심봉사와 곽씨부인의 염원으로 태어난 아이다. 곽씨부인이 온갖 신공을 들여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며 불공드리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빌고 또 빌어 겨우 한 꿈을 얻고 낳은 아이다.¹⁹⁾ 심봉사는 딸이라 괘시하지도 않고²⁰⁾ “삼십삼천(三十三千) 도솔천(兜率天) 신불제석(神佛帝釋) 삼신제왕님(三神帝王)(73쪽)”께 순산하게 도와주시어

19) 갑자 사월초파일 밤 한 꿈을 얻었으되 서기반공(瑞氣蟠空)하고 오체가 영롱한데 어떠한 선녀 하나 하늘에 내려올 제 머리에 화관 쓰고 몸에는 청삼이라 계화가 지 손에 들고 옥패소리 쟁쟁 하며 부인전 배례하고 곁에 와야 앉은 거동 두렵한 달 정신이 산상에 밝아온 듯 남해관음이 해상에 떠오른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려울 제 선녀의 고운 태도 쇠옥성(碎玉聲) 하는 말이 소녀는 서왕모 딸이 읊더니 반도(蟠桃)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玉眞婢子) 잠깐 만나 수어수작 하옵더니 시가 조금 어둡었다고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내치시매 갈 바를 모르옵더니 태상노군후토부인(太上老君后土夫人) 제불보살 석가님이 맥으로 지시하야 이리 찾아 왔사오니 - <심청가> 71~72쪽

20) 마누라 그런 말씀 하지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辱及先塋)할 것이요 딸이라도 잘 두면 아들주고 바꾸겠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방직(針線紡績) 다 시켜서 요조숙녀 좋은 배풀 군자호구 가리어서 금실우지(琴瑟友之) 즐거움과 종시위(終是爲) 진진(秦晉)하면 외손봉사(外孫奉祀) 못하리라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오 - <심청가> 73쪽

감사하다며 심청이 잔병 없이 잘 자라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비록 어머니인 곽씨부인이 산후별증으로 죽었지만 심청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사랑을 듬뿍 받고²¹⁾ 자란다. 동냥젖 얻어먹고 자란 심청은 일곱 살이 되어서 “저 혼자 나가서 밥을 빌어 조석 봉양(83쪽)”하겠다고는 가룩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스스로 밥을 빌러 나가겠다는 심청에게 심봉사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들 마라”고 하지만 심청의 곡진한 말이 이어지자 겨우 “한두 집만 잠깐 다녀오느라”라고 대답한다.

심청이 돌아와서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차가우시지요 저 오기를 많이 기달렸지요 자연히 더디였소 아버지 시장하시지요 심봉사 반겨 들고 아가 어서 들어오느라 발시리지야 불췌여라 손도 차구나 심청의 손을 잡아 입에 대고 후후 불며 하는 말이 가엾어라 너의 모친 무상한 나의 팔자 널로 하여 밥을 버려다 먹고 살자느냐 모진 목숨 죽지 못하고 자식 고생까지 시키것구나 심청이 여짜오되 빌어온 밥이오나 자식의 정성이오니 설워 말고 많이 잡수시오 갈치 자반 미역 투각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드리라기에 가지고 왔사오니 많이 잡수시오.

- <심청가> 85쪽

위 인용문은 심청과 아버지인 심봉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심봉사를 눈이 먼 ‘무능력한 아버지’라고만 평가하기에는 딸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안타까움과 연민마저 느껴진다. 심청은 일곱 살이 된 후로 혼자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했지만 그 전까지는 심봉사의 젓동냥으로 살아갔다. “젓 엮는 부인(婦人)들은 돈돈씩 채워주고 젓이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주니(82쪽)” 심청은 뽕뽕하게 배가 불렀으며 덕분

21) 동동 내딸이야 어허 동동 내딸이야 금야옥야 내 딸이야 주류천하무쌍동금을 주고 너를 사며 옥을 주어 너를 사라 어허동동 내 딸이야 표진강 속향이가 내가 되어 환생했나 은하수 직녀성이 내가 되어 내려와 남전복답을 작만한들 든든하기 가너 같으며 산호진주 얻은 들 이렇게 좋을 손가 - <심청가> 74쪽

에 잔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났다.²²⁾

<삼공본풀이>에서 강이영성이서불과 흥운소천구에궁전은 심봉사와 곽씨부인처럼 가난했지만 금슬만은 좋았다. 이들의 세 딸은 비록 어머니는 있었지만 심청처럼 일가친척이 없고 먹을 쌀, 입을 옷이 없었다. 그리하여 강이영성과 흥운소천이 아이를 낳자 사람들이 은그릇, 놋그릇, 나무 바가지에 가루를 타 먹여 살려 주었다. 세 딸은 가난하지만 부모가 애정을 담아 지어준 상다락 중다락 하다락에서 놀며²³⁾ 잘 자라났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어린 심청과 어린 가문장아기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날이 커갔다. 어려운 환경이 심청과 가문장아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정서적 결핍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부모와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충분한 보살핌이 있었다. 단순한 마을 사람들의 선행으로 간과하기 쉬운 이 대목은 하나의 전제를 마련한다. 그들이 유아일 때 일차적 외상인 정서적 유기(abandonment)를 당하여 외상적 경험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²⁴⁾

주양육자와 마을 사람들의 충분한 애정이 심청과 감은장아기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절대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게다가 어머니의 부재가 상

22) 설중환은 심봉사의 젓동냥을 통해 심청이 만인의 젓을 먹고 자라난 의미를 심청이 만인의 딸이라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 이후 만인의 어머니인 왕후가 되고 모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중요 모티프라 보는 관점이다(설중환, 「심청전 :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1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13쪽 참조).

23) 뚝 식성제 키우는데 상다락[上樓]에 중다락 하다락을 무어 놓고 노뽕놀이 시켜 가명 키운다. 무정세월여류(無情歲月如流)해야 열다섯 십오세 넘어진다. - <삼공본풀이> 94쪽

24) 페어베언은 “일차적 외상 때문에 유아가 외부세계에 있는 사람, 즉 대상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 하나는 유아가 자신의 대상(예를 들어, 자신의 엄마)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가 자신의 대상에게 쏟은 자신의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이다.” Lavinia Gomez, 김창대 외 공역, 「대상관계이론 입문」, 학지사, 2008, 102쪽.

실감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 요소일 것이란 점도 편견이다. 아이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애착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 더 강하게 애착된 경우도²⁵⁾ 1/3이나 된다.

다음으로 <심청가>의 ‘심청이 심봉사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매신한 이야기’와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가기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는 자녀의 자기 목소리 내기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아버지로 표상되는 당대 사회의 규칙으로 살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한데 묶여진다. 특히 감은장아가기는 행위발신에 대해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나 베포롱 알에 선그뭇(96쪽)”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말로 더욱 확고히 의사를 표시한다.

심청은 누구보다 힘겨운 악조건 속에서도 세상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갔었다. 심청을 두고 주변사람들 및 서술자는 “여중의 군자요. 새 중에는 봉황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촌에 낭자한다(85쪽)”며 칭찬해 마지않았다. 심청이 집에 돌아오자 심봉사는 낮에 화주승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권선책에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기로 적었다고 하니, 심청은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삼백석을 마련해 몽은사에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날부터 목욕재계하고 하느님께 비는 말이 “공양미삼백석을 몽은사 부처님전 시주하면 소녀 부친 눈을 떠서 천지만물 보리라 하오나 가세가 청한하여 판출할 길 없사옵기에 소녀 몸을 팔려 하옵나이다(92쪽)”이다. 선인들이 사람을 사려[賈人]다닌다고 외치기 전부터 심청은 스스로 몸을 팔아 아버지께 공양미를 구해 드릴 생각이었다.

25) 또 영아의 1/3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도 있으며, 애착 형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친근성과 접근가능성(familiarity and availability)’이다. 성영혜 외, 『아동심리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132~133쪽 참조.

심청이 장승상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²⁶⁾ 장승상부인은 심청을 가난에서 구제해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심청이 장승상부인의 수양딸이 된다면 “여공(女工)도 숭상(崇尚)하고 문자도 학습(學習)(87쪽)”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심청은 더 이상 ‘여기’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규칙들만으로는 자신의 상황을 타계해 나갈 수 없으며, 보다 근원적이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다시 말해, 장승상부인은 심청이 걸어 나오려던 세계의 변형된 모습이 지 심청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는 아니었다. 심청이 장승상부인의 수양딸이 되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승상부인은 “채단과 패물이며 양식을 후히 주어 시비와 함께(87쪽)” 보낸다. 이미 장승상부인은 심청을 마음에 두고 “모녀지의(母女之義) 두라(87쪽)”하고 수양딸로 삼고자 하였는데 공양미 삼백 석 쪼미야 단박에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심청이 심봉사에게 몽은사로 공양미삼백석을 보냈다고 하자 심봉사가 깜짝 놀라 쌀의 출처를 물었을 당시, 심청은 “수양녀로 몸을 팔아 시주미를 보내었소(93쪽)”라고 하는데, 심봉사 역시 그 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

정황들을 두루 살펴보면 공양미삼백석은 심청이 집을 떠나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앞서 말한 심청의 기도와 연관시켜 보면 공양미삼백석 때문이 아니라 심청이 집을 떠날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편이 설득력을 가진다. 장승상부인은 심청에게 선인들이 찾아와 인당수로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나타나 다시 한 번 공양미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26) 장승상대부인은 19세기 후반에 첨가(유영대, 「장승상 부인 대목의 첨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43쪽) 되었다. 이 대목의 첨가는 심청의 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기능(김석배·서종문·장석규, 「심청가 더늠의 통시적 연구」, 『판소리연구』9, 판소리학회, 1998, 243쪽) 및 서사적 확충과 서사 전개에 개편, 그리고 인물 형상의 발전(김종철,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39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대목이 나온다.

부인이 문밖에 빨리 나와 심청 손을 부여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네 이
천하무상(天下無常)한 사람아 나는 너를 딸자식으로 여기는디 너는 어
무니를 잊었느냐 무상한 이 사람아 부인이 어루만지며 효성은 지극하나
제가 죽어 될일이냐 쌀 삼백 석을 내가 줄 터이니 선인들을 내어주고 망
(妄)영 의사(意思)를 두지 마라

- <심청가> 97쪽

그러나 심청은 여기에서도 거절의 뜻을 내비친다. 그 거절의 속내에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²⁷⁾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심
청이 가혹한 현실과 운명에 버티지 못하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심청의 행동이 극한의 상태에
서 자신을 내던져 사건을 해결하려한 ‘우회된 자살’²⁸⁾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다. 즉,
심청의 일생이 ‘영웅의 일생’²⁹⁾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심
청의 대우주적 자아의 발견·회복과 그 성취 또는 확장 실현’³⁰⁾을 이룬다고

27) 신동훈은 심청이 선인들에게 몸을 팔아 공양미를 구하는 극단적 선택을, 심청이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라 생각한 ‘슬픈 순결’이라 하였다. 그리고 선인들을 따라가는 그 순간 심청은 ‘나 이상의 나’가 되어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판소리연구』19, 판소리학회, 2005).

28)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30, 2010.

29) 조동일은 <심청전>을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승적 유형을 작품화한 소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제에 있어서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누어 접근하며, 심청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표면적 주제이고, 심봉사과 뽕덕어미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이면적 주제라고 하였다(조동일, 『심청전에 나타난 비장과 골계』, 『계명논총』7, 계명대학교, 1971 참조). 그러나 본 연구자는 <심청전>의 표면적 주제가 심청의 효행이며, 이면적 주제는 심청의 자기실현이라 보고 있다.

30) 성현경은 <심청전>의 주제를 효로만 보지 않고 자기실현과 성장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이다(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2 참조).

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심청가>는 <삼공본풀이>와 닮아 있다. <삼공본풀이>에서 셋째 딸 감은장아기는 어서 빨리 나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입던 옷을 검은 암소에 실어놓고 먹을 양식을 신고서 집을 나선다.³¹⁾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두 여주인공 모두 아버지의 불합리한 요구 때문에 쫓겨나듯 집을 나온 양상을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존재로 보고자 한다. 심청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과 장승상부인의 제안을 거절한 상황을 점검해 본다면 심청이 스스로 길을 나서길 원했고, 감은장아기도 언니들과 같은 대답을 하였거나 뒷부분에 한마디만 덧붙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두 주인공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도 행했다는 점에서 동일 선상에 놓인다.

앞서 심청과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충분한 애정으로 인해 정신분석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유아기 고착(desperate fixation)이 일어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전제를 하였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말한 거세 콤플렉스(castration complex)³²⁾에 간혀 성 자체를 포기하고 성녀처럼 무성(無性)으로 살아가거나, 남성성에 집착하여 남자다워지려 노력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여성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심청과 가문장아기가 발달했고 본다. 두 여주인공은 15세가 되었으니 자신의 여성성을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동일성을 탈피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아버지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순리이자

31) “이런 불효막심(不孝莫甚)헌 예즈식(女子息)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가 가라.” 어머 눈에 굴리나고 아방 눈에 시찌 나 입단 입성 거더설러 감은 암쇄에 시꺼 놓고 먹을 군량(軍糧) 시꺼놓고 나고 간다. - 96쪽.

32) 프로이트는 여아의 거세 콤플렉스가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첫째, 성 자체를 포기하고 무성(無性)으로 살아간다. 둘째, 남성성에 집착하여 남성다워지려고 한다. 거세 자체를 부정하고 남근을 가지고 있는 남성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셋째, 여성 성기를 인정하고 여성성을 받아들여 정상적인 여성으로 살아간다.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

3. 홀로서기 : 새로운 세계의 진입과 자기 완성

세 번째 서사단락인 <심청가>의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용궁에서 올라와 황후가 된 이야기’와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가기 조근마통이를 만나 혼인하고 금을 발견한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주인공들 인생의 전환점이자 자신에게 걸맞은 짝을 찾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영웅이 치르는 신화적 모험의 표준 궤도는 통과 제의에 나타난 양식, 즉 <분리>, <입문>, <회귀>의 확대판이다.”³³⁾ 라는 조셉 캠벨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상을 벗어나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세계로 떠난 뒤 무언가를 쟁취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웅서사의 기본 플롯이다. 정형화된 서사문법에 따라 영웅의 일생은 집을 나오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더 이상 기존 질서가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주인공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먼저 인당수에 투신하기 전 심청은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심청은 생각지 말으시고(104쪽)”라 말한다. 심청 스스로도 봉사인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불효라는 내적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심청의 인간적 갈등은 심청의 선택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³⁴⁾과 “심청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³⁵⁾ 그리고 “심청은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떠났던 것”이라는 기존 논

33) 조셉 캠벨, 이운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44쪽.

34) 진은진 「<심청전>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264쪽.

35) 윤인선, 「<버림받은 딸> 심청」,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학회, 2002, 3쪽.

의에 적극 동의한다.³⁶⁾ 그러나 “심봉사가 우회적 딸을 버린 아버지”라는 점과, “대립적인 부녀관계”라는 점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심청이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다는 기존 논의와 궤를 같이하나, 그 자발적 동기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심청이 아버지에게 남경 장사 선인에게 돈을 받았다는 말을 하자 심봉사는 “실성발광(失性發狂) 뛰고 몸부림을(96쪽)”치며 심청에게 “아비다려 묻고 앓고 네 마음대로 하단 말이냐 나 눈 안뜰란다 … 눈을 팔아 너를 살디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보랴(96쪽)”라며 절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청은 선인들과 약속한 날이 되자 “내가 철을 안 연후에 밥벌기를 놓았으니 불쌍한 우리 부친 내일부터 동리걸인(洞里乞人)이 되것구나(94쪽)”라는 혼잣말을 한다. 심청은 자신이 봉양하지 않게 된 뒤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재가 아버지를 어떠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 알면서도 심청은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 인당수로 뛰어 들었다. 심청을 두고 자발적 의지로 집을 떠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효불효 이효상효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는데, 효녀로서의 심청과 불효녀로서의 심청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녀처럼 보이는 심청의 모습도 결국 효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홀로서기의 과정이라는 생각이다.

심청이 투신하는 장면은 “삶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분기점³⁷⁾”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로 진입과 동시에 아이로서의 모습과 단절한 뒤 용궁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궁은 고전서사 속에서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공간으로 묘사되는 특별한 공간이다. 용궁은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이며 현실과는 다른 질서로 운용되는 곳이다. 용

36) 윤인선, 「<버림받은 딸> 심청»,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3쪽.

37) 서유경, 「<심청전> 중 ‘심청 투신 대목’ 변이의 수용적 의미 연구», 『판소리연구』14, 판소리학회, 2002, 2쪽.

궁은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아를 확산시키기도 하며³⁸⁾ 삶의 존재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³⁹⁾ 그래서 용궁을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내전으로 모셔들여 별당에 사처(私處)하니 산호주렴대모병풍(珊瑚珠簾玳瑁屏風) 광채(光彩) 찬란하다 음식을 올리는데 세상음식이 아니라 자하주(紫霞酒) 천일주(千日酒) 기린포(麒麟脯) 안주 놓고 한가운데 삼천벽도(三千碧桃) 평그렇게 괴였구나 삼일소연(三一小宴) 오일대연(五日大宴) 이처럼 공대하되 각궁시녀들이 행여나 부족 있을까 유궁불급(惟恐不及)한다

- <심청가> 106쪽

연일 벌어지는 잔치와 산해진미, 화려한 치장과 더불어 지상에서 말 수 없는 향내와 기묘한 선율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용궁은 오감을 충족시킬 요소를 충분히 지니고 있었는데, 수정궁은 시각, 음식은 미각, 노래는 청각, 향은 후각으로 심청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용궁체험 이후 결혼이라는 성인입사식”⁴⁰⁾의 수순은 더 이상 심청이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용궁을 기점으로 심청은 어린 아이가 아닌 여성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38) 신태수는 용왕과 주인공이 근원적·본질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용왕은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인간 본질을 평가하고 주인공은 효를 실천한다든지 존재의 자유를 추구한다든지 하므로, 모두 삶의 근원적·본질적 문제에 접근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정계는 주인공의 자아를 수렴시키기도 하고 확산시키기도 하고 가치관을 정립시키기도 하는 공간이다.(신태수, 「수중계 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사상적 기반」, 『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277쪽 참조).

39) 신태수는 주인공이 수정계만 다녀오면 삶의 본질이나 근원적 가치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드러내기에 수정계는 삶의 존재론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지상계에서 존재론적 고민을 지닌 주인공이 수정계에 들어가서 해결하기 때문이라 하였다(신태수, 「수중계 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사상적 기반」, 『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289쪽 참조).

40)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30, 2010, 50쪽.

잠시 심청이 장승상부인의 수양딸이 되기를 거절했을 때로 돌아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외양 묘사를 들여다보자. 아래는 심청이 장승상부인을 찾아 갔을 때의 모습이다.

심청이 들어온다. 부인전 배례하고 엄슬단좌(斂膝端坐) 앉은 모양 천자(天姿) 봉용국색(丰容國色)이라 추파를 흘리 뜨니 새벽빛 맑은 하늘 경경한 샛별 같고 청아쌍미(靑娥雙眉) 가는 눈썹 초생편월정신(初生片月精神)이요, 양협(兩頰)에 고은 빛은 부용화 새로 핀 듯 입을 열어 웃는 양은 모란화반개로다. 부인이 보시고 칭찬하되 아무리 또 보아도 분명한 선녀로다. 무릉춘에 내가 있고 도화동에 내가 나니 무릉춘에 봄이 들어 도화동에 개화로다 달선지지천거(達善之志賤居)하야 비범한 네로구나.

- <심청가> 86쪽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이미 심청의 나이가 열다섯이다. 일곱 살에 구걸하여 아버지를 봉양할 때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심청이 동냥을 바라기에는 혼자서 우뚝 서야할 성인의 모습으로 변모하였고 여성으로서 신체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감은장아기도 심청과 마찬가지로 열다섯이 되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서게 된다. 누구 덕에 먹고 입고 잘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 아기는 자신 있게 배꼽 아래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잘 산다고 대답한다.⁴¹⁾ 여기서 배또롱 아래 선그릇⁴²⁾은 그것이 임신선을 가리키든 여성

41) “죽은뜰아기 이레 오라. 가문장아기, 너는 누계 덕에 먹고 입고 행우발신하느냐?” 가문장아기 말을 흐뭇, “하늘님도 덕이웨다. 지애님(地下-)도 덕이웨다. 아바님도 덕이웨다. 어머니도 덕이웨다마는 나 배또롱 알에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흡네다.” - <삼공본풀이> 169쪽

42) 벋동 아래 선금은 덕(적송지성·추엽옹,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상, 1991); 배똥(배꼽) 아래 선그릇이(선실금이) 덕이우다(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배또롱(배꼽) 아래 선 구똥(縱線. 이것이 있으면 잘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이 덕입내다(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배또롱 알에(배꼽 밑에) 선그릇(선금(立線) 여자의 성기를 일컬음) 덕으로 행우발신(行爲發信)흡네다(현용준, 『개정판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의 성기를 가리키든 여성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후 가문쟁이기도 부모와 분리되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깊은 산중 허름한 초막으로 입문한 뒤 조근마통이를 만나 혼인한다. 즉 <삼공본풀이>에서 감은장아기는 주인공의 발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여성성을 표출하였고, <심청가>는 심청의 외양묘사와 용궁과 꽃을 통해 우회적으로 심청의 성장과 여성으로서의 성숙됨을 묘사하고 있다.

15세는 성년으로서 인정되는 나이이자, 이야기 속 여주인공들의 인생이 전환되는 분기점이다.⁴³⁾ 과거에는 15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이임을 공표하는 계례를 올렸다. 이 시기는 미성숙한 몸에서 성숙한 몸으로 변화하는 시기이자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으로 분리되는 시기이다. 아동기에 잠복해 있던 성적 욕망이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레 깨어난다는 생각은 발달이론가들에게는 상식에 가깝다. 신체적으로는 “생식기관과 성 특징들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시작하여 생식 체계의 완전한 성숙과 함께 끝난다.”⁴⁴⁾고 한다. 감은장아기와 심청의 문제적 상황은 아이에서 생식이 가능한 여성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벌어진 사건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궁에 들어갔던 심청은 꽃이 되어 귀환한다. 옥황상제는 남해용왕에게 “심청이 방년인간(芳年人間)에 연분(緣分)이 급(急)(108쪽)”하였으니 다시 인당수로 환송하라 명하니, 심청은 용궁에서 “크기가 대단(大端)하고 향취(香臭)가 진동(109쪽)”하는 꽃봉오리 속에 꽃술처럼 들어 앉아 돌아온다. 꽃은 현화식물(顯花植物)의 유성생식기관으로 구조상 꽃술과 꽃잎으로 이

43) 설중환은 고대소설 속 여주인공들의 나이가 15세를 기점으로 나뉘는 이유를 성년이 되는 계례를 올리고 혼인이 가능하기에 아이와 어른의 구분점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설중환, 『고대소설여주인공들의 연령: 15세 전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87, 국어국문학회, 1982.

44) 이선경·하승연, 『발달심리』, 교육아카데미, 2010, 162쪽.

루어져 있으며, 꿀[花蜜]과 향기[芳香]와 꽃가루[花粉]를 가지고 있다.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이기에 심청의 성숙을 이미지화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물론 그것이 연꽃이기에 의미 지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연꽃도 꽃임은 분명하다.⁴⁵⁾ 나이나 외향으로 보았을 때 심청이 꽃으로 태어나는 모습은 생식기능이 완성된 온전한 여성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 프로이트의 기준에 따라서도 생식기(Genital Stage)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애정을 통해 만족을 추구한다.⁴⁶⁾ 심청의 여성적 모습을 부각시킨다고 효녀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모습만이 아닌 소녀가 여성이 되는 자연스러운 발달을 짚어보았다.

만약 심청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 상징적 죽음을 당하여 선인에게 몸을 팔았다면, 상징적 죽음이 실제적 죽음으로 연결되어 자살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심청은 아버지와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 덕에 훌륭하고 온전하게 성장하였다. 위니캣은 1958년 글에서 “진정으로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서 홀로 있었던 초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⁴⁷⁾는 주장을 펼친다. 유아기 미성숙한 자아가 주양육자에게서 제공된 지원에 의해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주양육자와 관계없이 홀로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절대적 의존상태인 유아기에 주양육자인 심봉사와 마을 아낙들의 애정으로 왜곡되지 않은 발달과정을 거친 심청이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은 충분한

45)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죽음을 경험하고 환생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꽃, 그리고 본생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심청가>와 불교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진영은 심청의 독특한 성장과 희생적인 매신불공(賣身佛供)에 따른 구제와 영화, 그리고 재생이 본생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김진영, 「<심청전>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미 - 본생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2001).

46) 이선경·하승연, 「발달심리」, 교육아카데미, 2010, 51쪽.

47) 도널드 위니캣, 이재훈 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43쪽.

성숙으로 이르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를 지나 상대적 의존으로부터도 독립을 향해 가는 일이다. 만약 한 인간이 올바른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로 남아 지속적인 보살핌만 받는다면 성인이 된 이후 언제나 퇴행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마련이나, <심청가>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넷째, <심청가>의 ‘심청이 맹인잔치를 열어 눈먼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게 한 이야기’와 <삼공본풀이>의 ‘감은장아가 거지잔치를 열어 눈먼 부모를 만나 눈을 뜨게 한 이야기’는 작품 속에 개인화소가 등장하는 점이 유사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이다. 이승수는 “아버지의 개안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이라 여겼던 착각에서 깨어난 것이고, 딸에게는 독립된 그의 인생이 있음을 새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상징한다.”⁴⁸⁾며 딸바보인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딸에게도 여성으로서의 삶이 있음을 밝혔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심청가>를 단순한 교양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知識]’을 폭넓게 확장시켜 부녀관계와 진정한 효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려 노력하였다.

<심청가>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효이데올로기가 배제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전형성을 고정된 틀로 삼아 심청을 화석화시키기에는 머물지 않고 효가 의미하는 바를 확장시키려 노력하였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두 이야기 <심청가>와 <삼공본풀이>를 통해 <심청가>의 빈 공간을 채워 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리워졌던 심청이 여성으로서 자라나는 모습을 <삼공본풀이>의 서사를 채워 넣으며 추정하게 되었다. <심청

48) 이승수·김용선,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79, 2019, 220쪽.

가>와 <삼공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용궁과 꽃을 보다 성(性)적으로 분석할 만한 입지점을 마련한 뒤, 심청의 투신행위를 심청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보았다. 그리고 투신행위로 인해 결국 심청이 황후가 되는 결말로 나아가고 거지잔치를 통해 심봉사를 찾아 효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딸바보인 아빠의 품에서 언제까지나 어린 딸이 아니라 여성으로의 자기완성이 곧 진정한 효로 나아간 지점을 포착한 것이다.

그동안 심청이 여성으로 변화한 사실에 대해 주목하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효녀에게 여성성을 드러내는 일은 사치이자 금기이기에 소거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을 살피니, 심청이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 꽃으로 피어난 점이 소중해진다. 심청의 길떠남을 희생효에서 벗어나 심청의 나이에 주목하여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짚었다. 이러한 심청의 적극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 효를 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낡은 효가 아닌, 온전한 여성이 되어 성인으로 독립한 심청이 아버지께 바치는 진정한 효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려 본다. 숭고한 희생이 영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심청에게 내재한 여성성의 발현이 그녀를 영웅으로 만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정광수 창본 심청가」, 『심청전 전집』2, 박이정, 1997, 1~375쪽.
- 성영혜 외, 『아동심리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1~336쪽.
- 이선경·하승연, 『발달심리』, 교육아카데미, 2010, 1~332쪽.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0쪽.
- 김영수, 「필사본 <심청전>의 계열과 전승시기 연구」, 『판소리연구』11, 판소리학회, 2000, 161~195쪽.
- 김진영, 「<심청전>의 구조적 특성과 그 의미 -본생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학』73, 한국어문학회, 2001, 317~341쪽.
- 김석배·서종문·장석규, 「심청가 더늠의 통시적 연구」, 『판소리연구』9, 판소리학회, 1998, 195~275쪽.
- 김종철, 「<심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295~222쪽.
- 박일용, 「<심청전>의 가사적 향유양상과 그 판소리사적 의미」,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51~100쪽.
- 박일용, 「가사체 <심청전>이본과 초기 판소리계 <심청전>의 관련양상」, 『판소리연구』7, 판소리학회, 1996, 47~76쪽.
- 서유경, 「<심청전> 중 ‘심청 투신 대목’ 변이의 수용적 의미 연구」, 『판소리연구』14, 판소리학회, 2002, 1~20쪽.
- 서유석, 「판소리 섹슈얼리티 재현 양상 연구」, 『통일인문학논총』48,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 2009, 87~111쪽.
- 성현경, 「심청은 효녀인가」,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92, 531~539쪽.
- 설중환, 「심청전 :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1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43~74쪽.

- 신동훈, 「판소리문학의 결말부에 담긴 현실의식 재론」, 『판소리연구』 19, 판소리학회, 2005, 313~349쪽.
- 신태수, 「수증계 모티프 소설의 양상과 사상적 기반」, 『어문학』82, 한국어문학회, 2003, 271~299쪽.
- 심치열,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돈암어문학』21, 돈암어문학회, 2008, 9~45쪽.
- 여한구, 「심청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국제신학』17,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5, 281~318쪽.
- 유영대, 「장승상 부인 대목의 첨가에 대하여」, 『판소리연구』5, 판소리학회, 1994, 39~49쪽.
- 윤인선, 「<버림받은 딸> 심청」,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113~139쪽.
- 윤인선, 「심청의 어머니 나라 여행: 바다공간의 정신분석적 의미」, 『세계문학비교연구』30, 2010, 29~54쪽.
- 이승수·김용선, 「<심청전>의 부녀관계와 서사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79,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9, 199~225쪽.
- 정운채, 「<바리공주>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독해」,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173~203쪽.
- 조수연, 「죄책감과 희생양 콤플렉스가 개성화에 미치는 영향」, 『피어선 신학 논단』4(1),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15, 95~135쪽.
- 진은진, 「<심청전>에 나타난 모성성 연구」, 『판소리연구』15, 판소리학회, 2003, 237~270쪽.
- 최혜진, 「<심청전>의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03~127쪽.
- 홍태한,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 과정 추론」, 『한국무속학』2, 한국무속학회, 2000, 275~303쪽.

Campbell, Joseph,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1~503쪽.

Gomez, Lavinia. 김창대 외 공역, 「대상관계이론 입문」, 학지사, 2008, 1~373쪽.

Winnicott, D. W, 이재훈 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2000, 1~427쪽.

■ 국문초록

효이데올로기가 <심청가>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정된 틀로 고전서사 속 여주인공들을 화석화시키기보다 감추어 있던 모습을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두 이야기 <심청가>와 <삼공본풀이>를 통해 <심청가>의 빈 공간을 채워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심청가>와 <삼공본풀이>의 비교하며, 용궁과 꽃, 뱃도롱 밑 선그릇을 통해 여성성을 부각시킨 뒤, 심청의 투신행위를 심청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보았다. 심청의 길떠남을 희생효에서 벗어나 심청의 나이에 주목하여 소녀에서 여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짚었다. 이러한 심청의 적극적인 모습이 결과적으로 효를 행하는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낡은 효가 아닌, 온전한 여성이 되어 성인으로 독립한 심청이 아버지께 바치는 진정한 효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려 본다.

승고한 희생이 영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심청에게 내재한 여성성의 발현이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여성성을 획득하고 자기 완성을 이루어 홀로서는 것이 곧 효의 완성이라 본다.

주제어 • 심청가, 심청전, 삼공본풀이, 효, 홀로서기, 성장

■ Abstract

Study on Simchung's Standing Alone and the Completion of Filial Du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Simchungga〉 and 〈Samgongbonpuri〉 –

Kim, Hyun Hee

Hyoidology acts as a factor that hinders diversity in interpreting <Shimcheongga>. Rather than fossilizing the female protagonists in the classic narrative with a fixed frame, they tried to bring out the hidden figure. The work of filling the empty spaces of <Shimcheongga> was conducted through the two stories <Simcheongga> and <Samgongbonpuli> which are the same but different and different but the same.

The comparison between <Simcheongga> and <Samgongbonpuli>, after emphasizing the femininity through the dragon palace, flowers, and sungmut under the robe, saw Shimcheong's commitment to faith as a result of the positive reflection of Shimcheong's will. Shim-cheong's departure from the sacrificial filial piety, focusing on Shim-cheong's age, pointed out how he grew up from a girl to a woman. As a result, Shimcheong's positive appearance became the found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This is not the old filial piety that unconditionally follows the words of his parents, but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Shimcheong, who became a whole woman and became an independent adult, dedicates the true filial piety to his father.

The sublime sacrifice did not make her a hero, but the expression of femininity inherent in Shim-cheong made her a hero. In other words,

achieving femininity and achieving self-completion alone is considered the completion of filial piety.

Keyword • Simcheong-ga, Simcheong-jeon, Samgongbonpuri,
filial duty, standing-alone, self-growth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물신주의적 믿음의 양상*

용석원**

목차

1.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상징적 구조의 변형
2. '냉소주의적 주체'로서의 대중소설 작가의 등장
3.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성격
4. '청년'의 초자아적 기능과 그 의미

1.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상징적 구조의 변형

이 연구는 1970년대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를 메우는 동시에, 당시 그의 소설에 매혹되었던 대중의 심적 구조를 구조화한 초자아적 대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1970년대는 유신체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의 통치가 사회에 지배적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961)

** 경동대학교 강사

영향력을 행사한 시대인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중·민주 세력이 출현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자장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은 ‘대중’이 등장한 때이기도 하다.

대중의 출현이 지닌 함의는 독재와 저항의 프레임에 희석될 수 없다. 1970년대 대중은 1960년대 국가 주도 아래 전개되었던 새로운 미디어의 보급과 콘텐츠의 발전에 의한 결과이지만, 당시 정부의 구상을 초과하는 잉여를 생산하였다. 경제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파노폴리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자본을 둘러싼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헤게모니 갈등이 존재하였다. 당대 한국의 대중사회는 ‘포폴리즘’과 ‘스노비즘’이 강화되는 한편, 대중이 스스로 문화(자본)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대중사회는 당대 주류 담론을 한정된 프레임, 이른바 전체주의와 민중·민주주의라는 두 항들과 함께 다양한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현상과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1970년대 대중사회에 대한 평가와 의의는 독재/저항이라는 이항론적 관점에 의해 부차적이고 예외적인 요소로서 취급되어 왔다. 그런 까닭에선지 7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은 길항을 이루며, 분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 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가 지니는 의미는 양가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정권 추수적인 성격을 지적받았으며,¹⁾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류 담론과 결을 달리하는 ‘파플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가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²⁾ 이처럼 70

1)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의 방송매체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정치권력과 대중매체 관련 기업들이 대중문화를 유행시키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였다. 특히 1960년대에 후진국 콤플렉스와 문화적 나르시시즘의 결합으로 탄생한 제3공화국의 문화민족주의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는 포폴리즘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2) 1960년대 후반에 문화민족주의 서사가 균열을 보이면서 대중문화가 분열의 양상

년대 주체로서의 대중에 대한 시선은 순응과 저항, 방관과 개입 등의 이분법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최인호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 역시 독재/민주, 순응 혹은 방관/저항 등의 이항론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평가들이 공존하다보니 대중소설과 최인호에 대한 이해는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³⁾

물론 이러한 양가성은 1970년대 대중문학 및 문학이 당시의 급격한 사회변동과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측면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이해된다. 문제는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의 내용과 역학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구조화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는 권력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지식, 담론 등)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정적인 실천,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환상의 측면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슬라보예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징적 구조의 변형체들을 통해 설명되는 환상 이론은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간과되는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가시화함으로써 주체가 이중적인 의미의 구조에 의해 지배받

을 보이게 되었다. 청년문화, 여가문화, 여성문화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들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도시대중은 대중문화의 새로운 헤게모니 주체가 되었다. 소비대중문화의 등장은 문화의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위상을 문화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3) 김진기는 “최인호 소설들이 당대 현실이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뛰어난 저항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최인호의 소설에 대한 이렇듯 상반된 시각의 원인에는 그의 소설이 갖고 있는 형식적 다양함이 가로놓여 있다. 그로테스크한 어린 화자, ‘보여주기’ 기법이나 열린 결말처리, 환상이나 우화 형식 등의 다채로운 기법들은 주제를 단일하게 해석할 수 없게 하는 다의적 기표들”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반공주의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59집, 우리어문학회, 2017.

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주체는 의식과 무의식, 이데올로기적 지식과 바로 그러한 지식을 부인하는 또 다른 믿음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관한 이론은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에 참가하고 있는 주체의 행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표상의 자리에 놓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이데올로기가 주체의 외부에서 주체를 지배하고 있는 작인이 아니라, 주체 자신의 능동적인 공모적 관계의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함축한다.⁴⁾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론을 통해 1970년대 한국사회를 살펴본다면, 대타자의 붕괴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측면이 유신체제, 즉 독재이다. 독재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구조화하는 주인기표가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다. 증상은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의 영역에서 파악되지 않고 간과되는 요소이자,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화되는 지점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국가로서 주권의 행사자인 국민이 주인기표이다. 국민이란 기표는 비국민을 배제하고 억압한 자리를 메우고 누빔으로써 한국사회를 구조화한다. 여기서 독재의 출현은 국민 위에 선 국민이라는 초월적인 통치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권력자가 국민구성원의 하나로 간과됨으로써 상상계적인 오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주체는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으며, 그러한 통치의 형태가 현실 정치에서 처

4) 슬라보예 지젝은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이론화함으로써 자본주의 변화된 상징적 구조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에게 주체를 지배하는 것은 초자아적 아버지의 기능과 연결된 환상의 수준이다. 지젝은 이 주체의 특성을 두 측면에서 다루며, 각각 냉소주의적 주체와 나르시시즘적 주체로 지칭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진철, 「슬라보예 지젝의 물신주의 문화이론 - '법'과 '권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III. 부권적 기능과 상징구조의 변화와 IV. 상품물신주의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참조.

음부터 내재적인 본질로서 현존한다는 ‘전이적 환영’, 즉 환상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다.⁵⁾ 이렇게 누빔작용이 수행하는 기표와 기의의 연결은 상호주관적인 관계망 안에서 일종의 자기지시적이고 동어반복적인 수행적 실천(그것은 그렇다라는 언표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급적으로 부여된 의미는 대상의 실정적인 속성과 동일시된다. 모든 기표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주체는 전이적 환상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증상은 간과된 세부가 드러날 때 억압된 것이 회귀하는 지점이다.⁶⁾ 이 경우 증상은 자신의 대립물인 비국민과 같이 국민을 초과한, 이른바 국민 위에 선 국민으로서 초월적인 통치자의 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신체제는 한국사회의 증상인 것이다. 증상이 가시화될 때 이데올로기적 의미에 관한 주장들은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게 된다. 독재자의 등장은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체의 경우 증상은 상징적 질서의 비밀관성,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대타자의 욕망-결여가 알려지는 시점이다. 이는 대타자의 권위의 몰락, 권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증상으로서의 유신체제 역시 여기에 부합한다. 울리히 벡은 “권력이 테마화되는 곳에는 이미 권력의 몰락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권력의 자명성, 권력에 대한 망각과 권력의 크기는 서로 긍정적으로 상응한다”며 “아무도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는 곳에서 권력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존재하며 그 자명성으로 인해 확실하고 거대하다”고 지적한다. 권력자에 대립적인 의지가 생겨나 그에 맞서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그 권력이 나약해졌다는 증거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권력은 이미 약화된 권력인 것이다.⁷⁾

5) 1960년대 유행어인 ‘선의의 독재’가 이를 방증하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6) 누빔과정과 전이적 환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 31~32쪽, 참조.

7) 이러한 사유는 권력과 폭력을 구분할 때 가능하다. 식민과 독재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권력과 폭력을 동일

증상의 도래, 권력의 약화와 폭력의 강제는 국민 혹은 대중 주체에게 대타자의 작인인 박정희 정권의 욕망-결여, 즉 그 구조적 불균형과 비밀관성, 무능함을 목도하게 한다. 주체는 더 이상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아이상의 작인에 동일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사회가 구조적 불균형이 발화되고 그 권위의 몰락이 가시화되는 상황은 주체에게 사회 자체가 붕괴되는 경험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주체에게 근본적인 불안(죽음충동)으로서 외상적인 사실이 된다. 여기서 주체는 외상을 감추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 대타자를 일관된 것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환상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근본적인 결여를 회피하기 위해 꾸며내는 이야기이다. 주체가 통합할 수 없는 대타자의 구조적 불균형은 환상의 차원에서 은폐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대타자의 작인인 박정희 정권의 욕망-결여가 사회구성원에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권위의 몰락은 유신체제라는 폭력적 체제를 통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게 폭력에 의존할수록 대타자의 욕망-결여는 더욱더 가시화될 뿐이다. 이러한 균열은 ‘증상의 보편화’를 가속화시킨다.⁸⁾

시한다. 푸코가 주장한 것처럼 권력은 생성한다. 이와 반대로 폭력은 소멸시킨다. 권력자는 복종하는 자에게 자기스스로를 규정(타자성)할 수 있는 공간, 즉 의미 지평을 생성함으로써 타자의 결정과 행위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시킨다. 이에 반해 폭력은 타자성, 나아가 타자 자체를 제거하고자 한다. 폭력은 자신 이외에 어떤 것도 존재를 용인하지 않는다. 폭력은 타자의 삶을 앗아가고 권력은 타자를 살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권력과 폭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상이한 능력이자 도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 체제는 권력이 강했던 게 아니라, 폭력성이 높았다 평가할 수 있다. 사례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유신시대의 술한 저항의 역사, 사라지거나 오늘날까지 숨죽인 다양한 사회체의 존재가 이를 방증한다.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8) 증상의 보편화는 “보편자와 특수자가 역설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주체는 보편자 대신에 특수한 절대자 혹은 외상적 핵심을 만나게 되며, 다양한 보편자들은 갑자기 불가능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속의 종이라는 역할로 축소된다. 특수자로서의 환상적 대상(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사물)은 의미의 변증법적 운동인 누빔 작용을 하지 않은 채, 큰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를 차지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그

1970년대 배금주의, 민중주의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신주의의 발생과 이를 부인하는 믿음의 양상들, 그리고 대중의 출현은 초자아적 기능의 보편화가 불러온 효과이다. 문학의 측면에서 70년대는 ‘소설의 시대’라고 기억될 만큼 소설 창작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보여준 시대로서, 문단 혹은 개별 작가들이 품고 있었던 실재적 대상과 그 환상이 독자인 대중을 통해 폭발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실추된 권력은 폭력 이외에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슬라보예 지젝은 주체에게 죽음충동으로 다가오고 사회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하는 대타자의 몰락이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의해서 보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타자가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서 상호 배제적인 양식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대타자가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외관’으로 나타나며⁹⁾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타자가 환상적 구조 속에서 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속으로 간주되었던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구조들이 큰타자의 욕망-결여를 구현하는 실재적 대상에 대해 부차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박진철, 위의 논문, 64쪽.

- 9) 첫 번째 양식으로 대타자는 이데올로기적 환상 안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외관’으로 나타난다. 프로이트의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타자는 이미 죽어있지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 부친살해의 죄의식에 휩싸여 있는 주체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타자의 외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대타자를 ‘알지 못한다고 가정되는 주체’로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주체는 자신이 죄의식을 떠맡음으로써 대타자의 결여를 감춘다. 바로 죄책감을 떠맡는 희생의 논리가 환상 속에서 주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논문, 55~56쪽.

1970년대 한국의 경우, 환상 속에서 박정희 체제는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 주체’의 위치를 떠맡는다. 유신체제의 외관은 의례화된 스펙터클을 통해 유지된다. 여기에 개발성장에 대한 이미지와 실천적 의례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결여를 잘 알고 있지만, 공적으로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가면의 의례를 유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북한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침략과 그들과 결탁하여 내부에서 국가의 안녕을 저해하는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건재하며 치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체제 승리에 대한 관념을 대중 주체로부터 불러일으킬만한 다양한 미디어 전략과 선전, 증산층의 육성, 강남 개발 등의 선진화 정책, 그리고 국민동원체제 아래 구성된 상징적 의례가 그 좋은 사례이다.

후 조정하는 일종의 ‘숨은 작인’으로 등장한다.¹⁰⁾ 1960~70년대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상징적 질서의 구조적 불균형이 가시화되는 상황은 다른 주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창작과 비평’과 ‘문학과 지성’로 대변되는 민중·민주주의와 문학주의 측에서는 증상의 독법이나 징후적 독해의 방식과 함께, 사회의 ‘가장자리’(억압된 하위주체)를 서사화하는 방식을 통해 저항담론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민중이란 사물이 등장한다. 그들은 대중을 민중으로 호명하며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제공하는 한편, 민중이 지녀야 할 자질, 즉 민중의 대상a에 매혹된 채 이상적 사회라는 전이적 환영에 휩싸임으로써 상징적 질서의 구조적 불균형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 대중은 도착증(물신주의-초자아를 숭배, 마조히즘-초자아의 향락에 대한 공론화, 사디즘-초자아가 제공하는 향락의 수행자)적 반응을 보인다. 1970년대 대중은 초자아와 관계하면서 대타자의 구조적 불균형을 망각하는 동시에, 초자아적 대상을 물신으로 섬기고 문화를 매개로 초자아에 의해 부과된 향락에 대한 제정자이자 수행자로서 스스로 상징적 위임을 받

10) 두 번째 양식으로 대타자는 환상적 구조 속에서 무대 뒤에서 쇼를 연출하는, 즉 줄을 조종하는 일종의 ‘숨은 작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체의 의도에 대한 결과의 과잉이 일종의 메타 주체에 의해 체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대타자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작인’으로 정립되어 있다. 슬라보예 지젝은 숨은 작인으로서의 대타자의 기능을 양면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한편으론 대타자는 어떤 확신을 주는 것으로 경험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자는 두려움을 주는 편집증적 작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컨대,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전자는 반공주의와 그 당위성으로, 후자는 간첩과 무장공비를 통해 나타난다. 이들은 전쟁 도발의 주범으로서 안다고 가정되는 대타자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숨은 작인으로서의 대타자의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로서의 대타자는 주체에게 의미를 보증하는 동시에, 그의 희열을 위협하는 양가적인 것이다. ‘모른다고 가정된 주체’ 뒤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작인이 있다. 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적 질서에서 보존되어야 하는 외관은 그러한 불균형을 모른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대타자이다. 이에 반해 숨은 작인으로서의 대타자는 자신의 결여를 다른 이유들(변명들)을 통해 설명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환상과 연관되어 있다. 앞의 논문, 56~57쪽.

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면모는 대중소설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최인호의 소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대표성을 보인다고 할 정도의 징후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대중소설의 아이콘이었다. 최인호가 생산한 문학이 보여준 자유-자본주의적 향락, 이른바 상품에 의해 숭고화된 육체, 성상품으로서 여성의 타자화, 자본에 따른 타자성의 위계와 그에 따른 쾌락 감각 등의 바탕에는 대타자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와 초자아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자리하고 있다.

2. 냉소주의적 주체로서의 대중소설 작가의 등장

1970년대 신세대 작가들, 특히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 등의 소설은 당시 한국사회를 둘러싼 거대담론, 이른바 큰타자의 권위가 몰락한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이 장면화하고 있는 사회적 사건과 갈등은 큰타자의 상징화 작업과 그 효력이 중단된 상태, 즉 구조적 결여가 드러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최인호에게서 다양한 변주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 이념적 갈등은 '맥거핀'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소설의 후반부나 결말에 이르면 그 존재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더러운 손」(1974)이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인 교수와 제자의 대화를 통해 전쟁과 이념이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이념의 폭력성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핵심은 그 방식에 있다. 최인호는 이데올로그의 전이적 환영을 재현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불충분성과 비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성교수’는 피난 과정에서 인민군과 미군에게 한 번씩 포로가 되었다. 그때마다 피아식별이란 명목으로 손을 검사받았다.

청년은 성교수에게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다.

손. 손. 그때 성교수는 자신의 손에 생명을 걸었다. 가만히 손을, 그 불면의 일주일간 학대받던 손을 내밀었다. 청년은 성교수의 손을 찬찬히 보더니 이윽고 “동무, 가시오” 하면서 성교수는 보내주었다.

말하자면 합격이었던 것이다.¹¹⁾

“네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을 보니 수상하다. 생김새는 수염도 자라고 영락없는 무식한 농군인데, 유창한 영어를 하니 수상하다. 네 직업이 뭐냐?” 성교수는 마지못해서 대답했다.

“나는 A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다.”

“교수라고?”

흑인 병사는 웃었다. 그러나 총은 여전히 성교수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손을 좀 내어보라.”

성교수는 할 수 없이 손을 내어밀었다. 그러자 흑인 병사는 성교수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갓땀!”

흑인 병사는 소리를 지르면서 성교수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 자식은 간첩이다. 간첩.”

흑인 병사는 의기양양하게 억센 힘으로 성교수의 팔을 등뒤로 꺾어돌리면서 동역에게 눈짓을 하였다.

“대학 교수의 손이 아니다. 농민의 손이다. 그러니 이 자식은 지금 거짓말을 하였다. 끌고 가야 되겠다.” …(중략)…

그때 성교수는 갑자기 울었다. 것처럼 많은 날과 것처럼 많은 고통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11) 최인호, 「더러운 손」,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76~77쪽.

성교수는 목을 놓아 울었다. 그리고 장교한테 땀벼들었다.¹²⁾

성교수는 자신의 지식이나 인격이 아니라, 단순히 손의 상태에 따라 처우가 결정되는 상황에 절망한다. 이 경험은 그에게 외상적 장면이 되었다. 오직 손의 상태에 따라 정체성의 판별이 가능한 이유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환상 속에서 지식인과 농민 등과 같은 ‘계급’이 지니는 대상a로서의 위상 때문이다. 대상a는 ‘대상 안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으로서, 대상의 실정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적 차원, 즉 잉여적 대상이자 실재로서의 대상을 의미한다.¹³⁾ 대상a는 차이를 표시하는 기표가 아니라, 사물의 특성을 통해 파악된다. 그것은 ‘잉여물’, ‘여분’을 통해 지시되는 사물이다.

또한 대상a는 대상의 동일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⁴⁾ “학대받던 손”은 “농민” 계급의 대상a를 포함한 환상 속에서 계급적 정체성을 표상하지만, “교수”와는 불일치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손”은 “청년”과 “흑인 병사”가 상연하는 좌우 이데올로기적 환상 안에서 대타자의 의미론적 공백이자 그러한 간극을 메우는 우연한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잉여와 우연은 기표의 자의성을 드러낸다. 성교수의 울음은 대타자의 작인으로서 등장하는

12) 앞의 글, 78~79쪽.

13) 슬라보예 지젝은 큰타자의 호명이 지시하는 정확한 차원은 실정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금이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어떤 것, ‘미지의 X’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미지의 ϵ 를 금의 물리적이거나 실정적 특징들 속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실정적인 특징 속에서 금은 어떤 사용가치도 없는 금속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이 우리가 욕망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은 금의 실정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적 차원을 예고한다. 즉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금’은 현실의 ‘실정적인 금’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잉여’는 ‘금 안에 있는 금 이상의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잉여적 대상이 곧 실재로서의 대상, 즉 대상a이다. 욕망의 대상은 잉여의 실재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것 안에 있는 그것 이상의 것’으로 일반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의 차원은 상징적 언어의 명명행위 자체에 의해 소급적으로 구성된다. ‘대상 속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은 누빔작용에 의해 구조화된 질서에서의 한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미)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다. 박진철, 위의 논문, 36쪽.

14) 앞의 논문, 38쪽.

인민군과 미군이 자신들의 전이적 환영, 즉 “손”의 실정적 내용이 계급성으로 속성의 전이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명도 소용이 없다는 일종의 체념이자 무력감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최인호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1970년대 주류 담론인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이러한 담론들이 당대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구조가 지니는 불충분성을 매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통해 이를 은폐하고 개인이 지닌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는 최인호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그는 당대의 청년들이 집단주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불필요한 책임감과 죄의식을 떠안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대타자의 의미론적 불충분성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대타자의 무능함은 주체에게 근본적으로 외상적인 사실이다. 이를 봉합하고자 주체는 환상을 통해 대타자를 일관된 것으로 구축한다. 대타자의 근본적인 결여를 감추기 위해 ‘옆문을 통해’ 새로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¹⁵⁾ 주체는 환상 속에서 대타자의 구조적 불균형을 대체하는 ‘물신적 아버지’를 구성한다. 이는 ‘부인’에 의해 작동하며, 분열된 주체를 구성한다.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결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균열을 부인하는 믿음 속에서 물신적 대상을 구성하기에 이른다.¹⁶⁾

대타자의 의미론적 공백을 메우는 외부의 실재적 대상, 즉 ‘초자아’와 ‘사물’의 등장은 최인호 소설의 특징이다. 이는 증상의 보편화를 재현한 것

15) 지젝은 계몽을 통해 권위를 모두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역설적인 권위에 사로잡히며, 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신분석학은 권위 자체의 소멸이 불가능함에 가깝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앞의 논문, 46쪽.

16) 앞의 논문, 47쪽.

이다. 실재적 대상은 더 이상 의미의 변증법적 운동인 누빔작용을 하지 않은 채 대타자의 공백을 메우고 그 결여 자체를 구현한다. 이제 의미의 체계들은 자신들의 불충분성을 은폐하는 환상의 의미 구조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누빔기표(S1)과 기표연쇄(S2)의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 누빔작용은 예외적인 S1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상적 사물에 의해 지식의 사슬(S2)에 직접적으로 누벼진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은 직접적으로 초아자적 금지와 향락의 충동과 연결된다. 이제 이데올로기는 예외적인 권위의 형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식 자체에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¹⁷⁾

최인호가 소설에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은 이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는 이야기의 사건과 갈등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이데올로기적 의미 구조를 부인함으로써 얻게 된 실재적 대상을 통해 이야기 세계에서 문제를 야기한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누비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생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나는 교수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교수님은 눈을 뜨지 않았다.

“물론이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않나. 알겠지? 내가 왜 내 손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야.”

“제 손도 더럽기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울하게 선생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떨어뜨렸다.

“있으나마나 한 손이에요. 이미 결판이 나버린 손인데요 뭘, 우리들의 손은 신문로 접골원 속에나 있어요.” …(중략)…

나는 가을햇볕이 아롱이 대학 캠퍼스를 네 발로 기어서 학교를 나왔다.¹⁸⁾

17) 앞의 논문, 64쪽.

18) 최인호, 위의 글, 80~81쪽.

6·25전쟁에서의 포로 체험은 성교수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손”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의 손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게 된 자유와 존재론적 가능성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럽혀졌다고 말한다. 제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데올로기의 자의성과 비합리성을 깨닫고 좌우 이데올로기의 의해 의미화된 손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네 발로 기”는 행동은 상징계 너머에 위치한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손을 표현한 행위이다. 이제 손은 상징적 질서 안에서 지녔던 ‘대상 안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물로서, 계급을 통해 나타난 좌우 이데올로기의 의미론적 불충분성을 메우고 구현하는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손의 출현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대타자의 욕망-결여를 은폐하는 환상이 구조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폭로한다. 이제 성교수와 제자에게 세인들이 지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모두 주체의 상상계적인 오인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전복의 효과는 주체로 하여금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만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가져다준다. 이는 세계에 대한 경험의 방식이 변화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주체에게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보편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냉소주의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3. 실재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성격

최인호의 「무서운 복수」(1972)는 『황진이』(1972)의 창작 과정을 담은 메타소설이다. 이 소설은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1971년 대학가의 정치적 상황을 재현하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했던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서사화되어 있다. 당시 청년이었던 최인호 역시 작가이자 지식인으로서 현실정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고 1970년대 문단을 향해 자신의 문학적 지향을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었다.

최인호의 페르소나인 ‘최준호’는 대학생이자 소설가이다. 그는 김오진과의 술자리에서 1970년대 문단의 경향을 대변하는 “김지하의 「오적」¹⁹⁾과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위를 가장 적절한 사건으로 형상화시”키는 방식, 즉 문학의 정치적 저항과 리얼리즘에 대해 부정하고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한다. 그 단초는 ‘데모’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데모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합창이었다. 데모를 하려고 서로의 굳은 어깨에 어깨를 대면 상대방의 핏속으로 튀어들어와 수혈(輸血)이 되고 평소에는 퇴색되어 그 빛을 찾을 수 없던 젊음이 새삼스레 번쩍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가슴속에는 평소 때의 분노 이를테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심거리, 버스값, 군대라는 관문, 부모의 지나친 기대, 증빙서, 추천서, 인감 도장, 사이렌 소리, 보이지 않는 감시, 맹목적인 조국애, 성욕, 수음 끝의 허탈, 새로 짓는 호텔, 주간지 화보에서 본 호주 여인의 배꼽, 유부녀를 유혹하는 법, 관능적인 남성이 되는 법, 더러운 중공, 더러운 빨갱이, 고집불통인 김일성, 비겁한 미국, 교활한 일본, 일백번 고쳐 죽어도 변하지 않는 샴머니즘, 말할 놈의 조간신문 기사, 난동 사건, 시궁창 물로 만든 탁주, 집단 자살, 버스 사고, 시체를 들고 조위금을 인상하라 외치는 유가족의 벌린 입, 국회의원의 골프, 십억이 넘는다는 개인 집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인텔리의 서구적 사고방식, 키르케고르, T.S. 엘리엇, 철야로 여는 고고댄스홀, 미니, 맥시, 미디, 도박, 포커 게임, 한 달에 칠천구백원씩 부어 365일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는 십만원짜리 적금, 부실기업, 특혜, 올해의 수출 목표액 13억5천만 달러, 가발, 임질, 매독, 곤지름, 아이 백 유어 파든 서,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돌아와줘요. 우리는 월남의 중립문제니 새

19) 최인호, 「무서운 복수」, 『황진이』, 문학동네, 2002, 208쪽.

로 생긴다는 혁신 정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아아 비겁한 민주주의여
안심하라.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²⁰⁾

위 인용문에서 냉소주의적 주체로서의 최준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데모에 대한 거부감은 시위대 역시 독재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사쿠라”²¹⁾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에 기인하고 있다. 최준호는 데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순수한 정치적 참여라기보다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평소 때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그가 지닌 환상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최준호는 환상 속에서 자신은 사태의 진실을 간파한 ‘안다고 가정된 주체’를, 반면 시위대는 그것은 ‘모른다고 가정된 주체’의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의 상연은 시위대의 시점에서도 역전을 이루며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 단적인 예가 김오진이 최준호의 소설(최인호의 「타인의 방」)을 “불란서” 문학이라고 비판하는 장면이다.²²⁾ 그들은 냉소주의적 주체인 것이다. 냉소주의자들이 진정으로 믿으며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을 보증해주는 것은 바로 자신, 즉 ‘자아’이다. 이 자아는 이 데올로기적 보편성과 공적인 법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따라고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환상구성물이다.

냉소주의적 주체들 간의 상호주관성에 의해 ‘데모’ 자체는 이중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하나는 상징적 질서 속에서 대타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또 다른 하

20) 앞의 글, 270~271쪽.

21) 앞의 글, 236쪽.

22) “당신네 글쓴느 친구들은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중략)… 최형 작 품 읽어봤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요. 그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스푼이 허공을 좀 날기로서니 그게 뭐 어쨌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은 불란서 자식들이 다 셋먹었어. 최형, 여기가 뭐 불란서인 줄 아시오? 여긴 한국이요. 한국. 앞의 글, 209쪽.

나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초자아적 명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데모를 즐겨라!’로 요약된다. 주체가 데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죄의식을 동반한 초자아의 응시 속에서 주체는 초자아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향락을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초자아가 금지의 작인으로서 욕망을 단속하는 방법, 즉 초자아가 자신이 허락한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최준호는 바로 이 역설을 “사쿠라”라고 지적한 것이다.

데모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은 초자아의 응시가 가하는 존재론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에 상응하는 ‘투사’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한 욕망에 대해 최준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렇다가 그가 ‘히스테리’와 같이 상징계 너머를 욕망하는 것은 아니다. 최준호는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에 우연하게 등장한 사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확인한다. 이는 소설 중반부터 등장하는 오만준의 애인 ‘노영미’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노영미의 등장은 최준호와 오만준이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된 계기이자, 소설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소설은 엄혹한 시국의 대학가를 재현하고 현실정치와 갈등하는 대학생들의 서사를 다루었지만, 여기서부터 일종의 청춘물로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영미는 소설에서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그녀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²³⁾이며, “가슴에 한가득 책과 공책을 안고”²⁴⁾ 다니는 대학생이자, 해운대에 가서 돈이나 쓰고 오겠다”²⁵⁾고 당차게 말하는 젊은이다. 노영미가 등장하면서부터 최준호와 오만준의 대화는 이성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으며, “일상생활에

23) 앞의 글, 254쪽.

24) 앞의 글, 254쪽.

25) 앞의 글, 259쪽.

서 벗어난 우정”²⁶⁾을 나누는 청년 일반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체의 자기 갱신과 관련이 있다. 그 중심에 매개체이자 청년의 대상^a인 명량한 젊음이 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무슨 일에도 끄적끄적 놀라고 소심하고 자로 재고 무게를 달고 틀림이 없어도 일단 다시 한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삼인칭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에도 대범하고 자로 재기 이전에 실행해버리고 최악의 경우는 커녕 최선의 경우만을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일인칭으로 주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그래서 이 학생들과 어울리다보면 나는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비굴하고 교활한 시대에 살았던가를 새삼스럽게 느껴야 했고 그들의 건강하고 발랄한 행동과 도저히 발맞추어나 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²⁷⁾

최준호는 오만준, 노영미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대타자의 결여, 혹은 ‘민중’과 같이 기성의 권력화한 사물을 대체할 만한 실재적 대상과 조우하고 그 응시 속에서 자신이 욕망할 만한 타자의 욕망을 발견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만을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일인칭으로 주관화”하는 “건강하고 발랄한 행동”과 ‘젊음’을 소유한 ‘청년’인 것이다.

‘청년’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최준호의 글쓰기는 사회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성명서’ 쓰기 대신에 「황진이」 집필로 이행한다. 이러한 행보는 “최선의 경우만을 생각”하는 ‘유쾌한 긍정’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일인칭으로 주관화”라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솔직함’으로 요약되는 ‘청년’의 대상^a에 자신의 시선을 일치시킨 결과로 이해된다.

26) 앞의 글, 259쪽.

27) 앞의 글, 256쪽.

이러한 시선의 일치는 ‘도착증’의 특징이다. 도착은 일반적으로 성적 일탈을 의미하지만,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는 타자가 원하는 것을 주체가 명확히 알고 있는 확실성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이다. 그래서 도착증은 질문의 결여로 정의된다. 이러한 도착증은 주체의 시선과 타자의 응시 간의 일치로서 설명되며, ‘증상의 보편화’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슬라보예 지젝은 “내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은 언제나 이미 나를 응시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대상을 볼 수 없는 지점에서 말이다”라고 부연한다.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지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때 바라보는 것은 타자이며, 주체는 응시의 대상으로 환원된다.²⁸⁾

최인호의 페르소나인 최준호는 새로운 세대의 ‘청년’의 심연 속에서 1970년대 이념 대립이 열어놓은 대타자와 자신의 욕망-결여를 메우는 초자아적 대상에 자신의 욕망을 일치시킨다. 이를 통해 일종의 논리적 전도가 일어난다. 최인호의 눈에 청년은 정치적 저항 혹은 풍속을 어지럽히는 존재로서 정상적인 사회적 현실을 교란시키는 일종의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이념에 의해 경직된 사회가 청년의 ‘명량함’과 ‘자신의 욕망에 대한 솔직함’, 그리고 ‘젊음이라는 열린 가능성’을 억압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속성은 ‘청년 안에 있는 청년 이상의 것’으로서, 최인호의 욕망의 대상이자 문학적 지향점을 이룬다. 이후에 최인호가 선도한 ‘청년문화운동’ 뿐만 아니라, 「무서운 복수」의 결말 또한 이를 방증한다.

이 소설의 결말부는 초반의 심각한 분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해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바로 청년의 대상a인 ‘명량함’, ‘자신의 욕망에 대한 솔직함’, ‘젊음이라는 열린 가능성’에 의해 현실의 문제는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실로 믿는 것

28) 박진철, 위의 논문, 68쪽.

은 자신의 ‘청춘’이며, ‘청년’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체의 외상적 물음에 답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데모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오만준은 이제 데모 대신에 군입대를 선택한다. 그는 명랑한 목소리로 모범군인이 되어볼 테요. 최형, 오히려 지금의 나는 마음이 편해요”²⁹⁾ 라고 말한다. 이는 개발독재, 민중주의 등과 같은 거대담론이 당대 청년들에게 가하였던 기대와 압박을 무너트리는 유희한 거부의 제스처인 동시에, 그에 따른 쾌감을 함축한다. 이제 ‘청년’에 대한 도착증적 주체가 지향하는 바는 그 위상의 상승과 더불어, 대상a의 내용인 ‘명랑성’, ‘자기 욕망의 투명성과 지향성’,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 등을 공론화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4. ‘청년’의 초자아적 기능과 그 의미

최인호는 1970년대 청년문화와 청년문화론을 선도하였다. 당시 한국의 청년문화논쟁을 촉발시킨 김병익의 「오늘날의 젊은 이상들」(1974)에서 청년의 아이콘으로 최인호가 등장한다.³⁰⁾ 이 기사를 필두로 여러 신문 매체를 통해 당대 청년문화에 대한 논의가 쏟아졌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최인호는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청년문화 선언」(1974)을 제출한다.

29) 최인호, 위의 글, 291쪽

30) 이 외에도 김병익은 포크송 가수 김민기와 양희은, 영화감독 이장희, 코미디언 이상룡, 바둑기사 서봉수를 내세우고 있다.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 이상들」,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74. 3. 29, 5쪽.

31) 청년문화 논쟁의 전개와 평가는 송은영, 「대중문화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1970년대 청년문화 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2. 공적 담론장과 현실의 간극 : 1974년 청년문화 논쟁과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랑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IV. 2. 2) ‘청년문화 선언’의 무책 입성과 개별자들의 미감공동체를 참조.

나로서는 내 자신이 청년이므로 간여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며칠 전 신문에서 그릇된 견해를 보았으므로 그렇다면 내가 아는 한의 청년문화를 얘기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참여한다. …(중략)…

문화의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의상에서조차 유행으로 청바지와 장발이 판을 치며 자칭 통기타가 가수들을 공돌이와 공순이들만 심취하는 속물들로 간주해 버리는 일부의 대학생들조차도 머리를 기르고 있는가 하면 남녀 공용의 티셔츠가 유행되고 있다. 여자들이 그 멋진 각선미를 가리려는 바지를 입는 저의 깊숙이에는 자신들의 특징, 이를테면 (여자기호)라는 한계선을 극복해 내려는 수상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 장발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머리를 기르는 이유가 나 자신의 남성다운 특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뚜렷한 이유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게 멋있어 보여, 근사하기 때문에 순경 나으리들이 옛 자를 때 쓰는 가위를 가지고 텨버들어도 기를 쓰고 기르려 드는 것이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전쟁체제로 타의에 의해서 울브리너처럼 뽀뽀머리를 자른 경험이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멋이 없겠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시각적 가치판단으로는 장발이 뽀뽀머리보다는 훨씬 멋지다. 그래서 기른다. 이유는 알게 뭐냐, 그저 내가 좋아 기르는데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 저의에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윤리의식들이 부합되어 젊은이들의 의상이 청바지와 남녀 공용의 원색 티셔츠, 장발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문화는 생활 그 자체이지 선택된 개념이 아니다. 문화는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그들을 욕하기 전에 한번 가서 밤을 새워 보라. 음악에 몸을 맡기고 종전처럼 돌이 추는 춤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 격식도 없이 몸을 흔들어대는 춤추는 젊은이들의 감은 눈을 보라.

노름판에 끼어들려면 최소한도 판돈을 대고 텨버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허한 판단만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³²⁾

선언문의 도입부에서 최인호는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반박한다. 그는 우리의 청년문화는 대중문화이자 근로자문화라고 주장하지만, 곧 단일 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는 이상적인 청년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당대 한국의 청년문화란 마치 “수상한 음모”처럼 헤아릴 수 없고 “격식도 없”는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종국에 가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침묵의 대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제가 나타나서 정연한 이론으로 우리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눈 뜨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³³⁾라고 말하며 선언문을 무색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일견 전형적인 선언문이 아니다. 선언에 합당한 이론적 근거이라든가 체계적인 설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인호가 제시한 청년문화의 개념은 하나의 문화라고 할 만한 자기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최인호의 도착증과 연결되는 대상a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선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선언문이라는 언표의 의미는 선언이라는 언표행위 자체인 것이다. 즉 선언 자체가 목적이다. 최인호의 청년이 지닌 잉여, 즉 ‘명랑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을 쫓는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의 발현’은 선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유롭고 유쾌한 선언’과 일치한다. 바로 이 형식 자체가 최인호의 청년문학이 지닌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청년문화를 규정하는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인호는 청년문학을 설명하면서 특정 세대가 향유하는 독특한 문화라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할 뿐, 구체적인 향락과 쾌락의 대상과 그 내용은 무분별하고 오로지 주관적 감각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의 만족에 따

32)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한국일보』, 한국일보사, 1974. 4. 24. 5쪽.

33) 앞의 글, 5쪽.

른 총족인 ‘총동’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는 최인호가 상정한 ‘청년’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의 인정과 발산’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든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종결되지 않은 젊음의 열린 형식’을 의미한다. 어떤 것이든 문화로서 선언할 수 있다는 청년의 선언인 것이다.

이러한 향락의 방식에 대한 표본과 함께, 최인호는 초자아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지닌 문화적 가능성의 확산까지 고려해 놓고 있다. 그것은 청년문화와 대중문화를 등치시키는 서술이다. 1970년대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사회체의 이동과 순환이 나타난 시기이다. ‘벼락부자’, ‘중산층’, 붕급생활자 등 새로운 사회적 계급과 계층의 출현은 당대 대중의 자기정체성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권력의 수준은 낮고 폭력의 수위가 높았던 유신체제의 통치 아래 주체로서 대중은 권력에 수궁할 만한 자기정체성과 행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문화와 교양, 선진국의 생활방식 등을 통해 자기 욕망의 결여를 메우고자 하였다. ‘청년’ 역시 대타자의 의미론적 불충분성과 권력의 공백에 스며든 초자아적 대상들 중에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세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당대 청년과 대중 모두에게 동일한 존재론적 고민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인호가 선언문을 통해 시도한 대중문화와 청년문화의 등치는 더 이상 청년문화가 대중문화의 하위문화일 수 없으며, 오히려 청년문화가 ‘속을 전복시키는 종’으로서 대중문화를 규정하는 예외적이고 잉여적인 요소의 지위를 얻게 한다. 대중문화와 청년문화의 위상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복의 효과는 공식적인 담론의 장인 대중문화의 영역에 최인호 자신의 욕망 대상인 ‘청년’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는 타자의 욕망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제정자이자 수행자로서 스스로 상징적 위임을 받아들이는 도착증적 주체의 전형이다.

이러한 행위는 창작이란 실천을 통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최인호

는 청년문화의 소설적 재현이자 대학가 보고서라고도 불린 「바보들의 행진」(1974)을 신문연재소설로 발표한다.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 '청년'이라는 초자아적 대상의 욕망과 동일시하는 도착증적 주체가 지닐 수 있는 인격의 형태와 행위의 양식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병태'이다. 그가 보이는 엉뚱한 생각과 행동은 일면 당시에 팽배하였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적 일탈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그 이면에는 초자아의 명령이 작동하는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외설적인 명령은 '청춘을 즐겨라!'이다. 단순히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랑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젊음이 포용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쫓는 행위'의 실천인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체 하여금 자신의 내재적 결함을 인정해야 만하는 죄의식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바보들의 행진」에서 '병태'가 보여주는 기행은 엉뚱함에서 오는 웃음이라든가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에서 오는 쾌감만이 아니다. 여기서 주체가 발견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인 동시에, 주체에 대한 대타자의 응시 혹은 상징적 질서의 불충분성에 대한 주체의 방어적 욕망이다. 이는 자신의 순수한 욕망(죽음충동)을 배신하였다는 죄의식을 은폐시키는 동시에, 초자아적 대상의 응시 속에서 갱신된 자아가 매개로 대타자의 욕망-결여와의 거리를 발생시킨다.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확보된 것이다. 이 간극 때문에 주체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사적이고 내밀한 믿음을 감춘 채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바보들의 행진」의 결말부에서 소설의 세계에 직접 등장한 최인호가 보여주는 무책임함과, 그가 병태의 입을 빌려 대학생의 일상을 어떻게 그리던 간에 그것은 최인호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일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당대 주체에게 주어질 수 있는 향

락과 쾌락의 범주는 유신체제라는 대타자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과할 수 없다. ‘청년’이란 초자아적 대상은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를 메우는 우연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체는 현재까지 향유되고 있는 ‘청년’의 향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독재와 민중·민주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이 용인될 수 있는 정당성과 내적 동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체제가 자연스럽고 자생적인 것이라는 전이적 환영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한국일보』, 한국일보사, 1974. 4. 24.
- _____, 「고래사냥」, 동화출판공사, 1983, 1~324쪽.
- _____, 「즐거운 우리들의 천국」, 문학동네, 2002, 1~318쪽.
- _____, 「황진이」, 문학동네, 2002, 1~318쪽.
-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 이상들」,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1974. 3. 29.
-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반공주의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59집, 우리어문학회, 2017, 121~167쪽.
- 박진철, 「슬라보예 지젝의 물신주의 문화이론 -‘법’과 ‘권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16쪽.
-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호, 상허학회, 2011, 187~226쪽.
- _____, 「대중문화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1970년대 청년문화 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419~445쪽.
- 심재욱, 「최인호 문학의 명량성과 미학적 정치성 연구-1970년대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63쪽.
-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1~199쪽.
- Myers, Tony, 박정수 역,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5, 1~278쪽.
- Žžk, Slavoj, 김상환 외 옮김,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철학과학실사, 2005, 1~404쪽.
- _____, 박정수 옮김,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07, 1~204쪽.

_____, 이성민 옮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2007, 1~463쪽.

_____,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1~362쪽.

■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70년대 대중문학을 대표하는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를 메우는 동시에, 당시 그의 소설에 매혹되었던 대중의 심적 구조를 구조화한 초자아적 대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슬라보예 지젝의 이데올로기적 환상이론을 통해 1970년대 한국사회를 살펴본다면, 대타자의 붕괴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유신체제와 같은 독재의 존재이다. 1960년대 유행어인 ‘선의의 독재’가 방증하듯이, 당대 주체는 예외적인 권력에 대한 자연스러움이라는 ‘전이적 환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는 증상의 보편화로 이어졌다.

1970년대 최인호의 소설이 장면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은 대타자의 상징화 작업과 그 효력이 중단된 상태, 즉 구조적 결여가 드러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최인호 소설의 바탕에는 대타자에 대한 냉소주의적 태도와 상징적 질서의 불충분성을 메우는 초자아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최인호가 소설에서 현실정치 혹은 이념갈등을 다룰 때 잘 나타난다. 그는 이데올로그의 전이적 환영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불충분성과 비합리성을 폭로하는 한편, 그 의미론적 공백을 메우는 초자아적 대상의 출현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누비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인호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모든 이해가 상상계적인 오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복의 효과는 주체로 하여금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만한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한없이 가벼운 것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주체에게 이데올로기적 의미의 보편성이 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냉소주의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최인호는 「무서운 복수」에서 대타자의 결여, 혹은 ‘민중’과 같이 기성의 권력화한 사물을 대체할 만한 초자아적 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발견하고, 그것의 응시 속에서 자신이 욕망할 만한 타자의 욕망을 가시화시킨다. 이는 ‘청년’이 지니는 대상a의 성격인 ‘명량성’, ‘자기 욕망의 투명성과 지향성’,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 등과 연결되어 있다.

최인호의 ‘청년문화운동’은 ‘청년’에 대한 도착증적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공론화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당시 청년문화는 당대 대중문화에서 간과된 세부로서 존재하며, 초자아의 외설적인 명령인 ‘청춘을 즐겨라!’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타자의 욕망인 동시에, 주체에 대한 대타자의 응시 혹은 상징적 질서의 불충분성에 대한 주체의 방어적 욕망이다. 따라서 당대 주체에게 주어질 수 있는 향락과 쾌락의 범주는 유신체제라는 대타자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과할 수 없다. ‘청년’이란 초자아적 대상은 대타자의 욕망-결여의 자리를 메우는 우연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체는 현재까지 향유되고 있는 ‘청년’의 향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독재와 민중·민주주의와 같은 거대담론이 용인될 수 있는 정당성과 내적 동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체제가 자연스럽고 자생적인 것이라는 전이적 환영에 다시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최인호, 대중소설, 증상, 환상, 대상a, 초자아, 물신주의적 분열

■ Abstract

Aspects of Fetishism in Choi In-ho's Novel in the 1970s

Yong, Seok Won

This study analyzes the ideological fantasies that appeared in Choi In-ho's novels representing popular literature in the 1970s. This article fills the place of the desire-lack of the great other in his day, and examines the psychology of the reader who read his novel as a superego object.

If we look at Korean society in the 1970s through Slavoj Žižek's ideological fantasy theory, we can see the patterns of the collapse of the Great Other. A prime example is the dictatorship such as the Yushin regime. In the 1960s, the buzzword “goodwill dictatorship” proved that the subject of the day was obsessed with the “transitional illusion” of the naturalness of exceptional power. This led to the generalization of symptoms.

The social reality that Choi In-ho's novels in the 1970s made into scenes is the cessation of the symbolization work and symbolization of the great other. In other words, it aims at the point where structural deficiencies are revealed. In Choi In-ho's novel, the “young man” is positioned as a super-ego that fills in the insufficiency of the symbolic order and cynicism toward the other.

In Choi In-ho's novel, real politics or ideological conflict appears. He exposes the insufficiency and irrationality of the ideological meaning through the method of reproducing the transferable illusion of ideology. And it directly expresses the ideological universality through the emergence of superego objects. In this way, Choi In-ho shows that his understanding of social reality is nothing more than an imaginary misconception. This effect eliminates the reader's perception of problems

with reality that must be taken seriously. In this way, the novel does not need to be taken seriously by the reader, and a 'cynicist subject' is created.

In “Scary Revenge”, Choi In-ho discovers the “young man” as a super-ego that can replace the established power like “the people”, and visualizes the desire of the other, which he deserves. This is connected with the 'brightness' of 'young people', 'transparency and orientation of self-desire', and 'infinite possibility of youth'.

Choi In-ho's “Youth Cultural Movement” is connected with the subject of arrival at youth to publicize their desires. At that time, youth culture exists as a detail that was overlooked in popular culture, and is structured by the obscene command of the superego, “Enjoy youth!”. This is the subject's gaze at the subject or the subject's defensive desire for the insufficiency of the symbolic order. Therefore, the range of enjoyment and pleasure that can be given to the subject of the day cannot exceed the structural imbalance of the great other called the Yushin system. This is because the superego object of “youth” is an accidental object that fills the place of the desire-lack of the other. In order to preserve the enjoyment of the “youth” that has been enjoyed to this day, the Juche tolerates large discourses such as development dictatorship and popular and democracy. And it is again captured by the transitional illusion that this format is natural and spontaneous.

**Keyword • Choi In Ho, popular novel, Symptom, Fantasy,
Superego, Fetishistic split**



과학문화의 시대,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방법*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

김 성 희**

목차

1. 서론
2.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3.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4.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적 방향
4. 맺음말

1. 서론

우리는 현재 COVID-19 시대에 살면서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실감하는 과학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과학문화를 활용한 원격 교육, 원격 교수, 원격 학습으로 대표되는 에듀테크에 기초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융복합 시대에 부흥하는 교육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3711)

** 한양대학교 조교수(창의융합교육원 : 과학철학교육위원회) h2shkim@hanyang.ac.kr

목표, 역량, 그리고 그에 들어맞는 교수법 개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자-학습자-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둘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에 대해서 창의-의사소통-내용융합-배려의 측면에서 그 개념과 활용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적 방향에 대해 교육목표, 교과목 개발, 교수법 측면에서 영상 매체 중에서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 과학예술의 융복합교육 콘텐츠 소개를 통해 그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2.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1)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의미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COVID-19로 인한 위협은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중들에게도 과학이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과학예술을 활용한 과학문화가 과학 문해(science literacy)와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이 교육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과학문화는 1959년 영국의 물리학자 겸 작가 스노우의 『두 문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학계와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스노우는 이 책에서 과학과 인문학이 나누어져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두 문화’의 위기는 과학과 인문학이 대립을 그치고 협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과학기술학(STS :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예술의 경계영역으로서 갈라진 문화의 화해를 크게 도울 수 있다고 보았으면, 과학기술학에서

는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과 문학, 과학과 미술, 과학과 음악 등 새롭게 협업하고 과학과 인간의 부딪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의미는 과학문화의 참여를 통해 과학 문해 및 과학적 소양을 익히는 것으로, 과학에 인문학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¹⁾

2)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필요성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관련 전문가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교육적 필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첫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필요성은 과학과 예술 분야 간의 소통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과학과 예술의 융복합은 십여 년 전부터 정부와 학계, 산업 분야의 주도하에 많은 관심 속에서 제안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왔을 뿐 관련 분과의 전문가들 간의 이해 및 소통 부재, 사업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의 부재, 그리고 융복합 과정에서 학문 간 적절한 비율의 고려 부족 등으로 인해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필요성은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수업 설계를 통한 교수자의 교수법 개발의 기준 때문이다. 과학예술 융복합 수업 설계는 대체로 과학 분야 전문가 혹은 예술 분야 전문가에 설계되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에 따른 수업 설계로 인해, 학습자의 지적 배경에 맞는 적절한 수업 설계 및 교수법 설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자의 교육적 요건에 따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1) 조숙경, 「과학커뮤니케이션 : 과학문화의 실행」, 『과학기술학연구』, 7(1), 2007, 한국과학기술학회, 162-165쪽; 김규태, 김성희,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2019(05), 2019,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77-285쪽.

둘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MZ세대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흥미에 부응할 교육내용 개발 때문이다. 과학예술 융복합 수업의 개발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MZ세대의 교육적 흥미를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기대를 반영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문화에 참여 (Engagement)에 학교 교육과의 연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기관인 아르코 미술관, 서울문화재단 산하기관인 금천예술공장, 부산비엔날레 등 다양한 예술기관에서 과학 기술이 예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과학문화로 참여하고 있는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문화의 참여를 독려할만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 학교 교육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학문 간의 경계로 인한 구조적 단절을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과학문화를 활용한 융복합교육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사회적 관심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STEAM 교육 및 융합인재 교육,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 그리고 뉴노멀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선의 교육을 융복합교육으로 지칭하고 있다.

융복합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역량과 인재상은 창의(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의사소통(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내용융합(융합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배려(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이다.

<표 1> 융복합교육 핵심역량과 인재상

핵심역량	역량요소	인재상
창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문제확인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능력, 평가능력	창조와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의사소통	언어적 소통, 시청각적 소통, 학문적 능력, 글로벌 소통 능력, 소통하는 태도, 협력하는 태도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내용융합	다양한 지식의 이해, 다양한 지식 간의 연결성 및 연관성에 대한 이해, 새로운 가치적 관점의 융합지식 창출, 융합지식의 활용	융합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재
배려	자기애, 자신감, 자아 정체감, 자아효능감, 타인을 위한 배려, 타인 존중, 다문화 이해, 감성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인재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사례를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인 창의, 의사소통, 내용융합, 그리고 배려 측면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 창의

COVID-19 이후 학교 안에서는 에듀테크(Edu tech)를 활용한 원격 교수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원격 학습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의 흥미에 기초한 교육과정 설계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교육에 초점을 둬 따라 초중등 및 고등교육 현장에서 융복합적 교육내용, 융복합적 교수법, 융복합적 교육평가를 통한 융복합 인재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융복합교육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창의적 융복합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인지적이고 정의적으로 균형 잡힌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일상에 과학기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에서는 입시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의 잠

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대와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2)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 의사소통

과학문화 시대의 융복합교육을 통한 과학적 소양의 핵심은 의사소통 역량 제공 및 강화에 있다. 과학적 소양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사회 문화적 활동, 과학적 개념과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이며, 과학기술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과학 리터러시를 활용한 의사소통 역량이다.²⁾

과학교양 교육이 추구하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과학커뮤니케이션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과학커뮤니케이션은 정서적, 콘텐츠적, 방법론적, 성찰적, 참여적, 정체성 측면에서 각각 의사소통의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³⁾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추구하는 상호작용과 원활한 소통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과학문화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는 팟캐스트 ‘과학하는 사람들’과 ‘과학하고 앉아있네’, KAOS 재단의 과학강연 프로그램, TVN ‘알쓸신잡3’, JTBC ‘차이나는 클래스-질문있습니다’ 등은 다양한 과학문화를 융복합적으로 구성해서 과학교양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3)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 내용융합

2) 정영란, 이자경, 「TBSL과 SLT를 사용한 중고등학교 과학적 소양 비교」, 『교과교육학연구』, 제14권 3호, 2010, 669쪽.

3) 심재철, 김성희 외,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2019; 김성희, 「과학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과학교양교육 교육적 경험 확산 연구」, 사고와표현, 13(3), 2020, 218-220쪽.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통한 핵심역량 중 내용융합은 다양한 층위의 학습자들에게 융복합교육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및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를 활용한 융복합교육은 대표적인 융복합 기제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 첫째, 과학이 낯선 대중들에게 과학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도서, 유물, 전시 및 과학커뮤니케이터의 활발한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페임랩(Fame Lab) 코리아대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과학을 전달하는 과학커뮤니케이터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 특히 페임랩은 3분 동안 ppt를 사용하지 않고 말이나 도구로 과학을 재미있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대회이다.⁴⁾

<표 2>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학문화를 활용한 교육

길거리 과학공연 <사이언스버스킹>	성인 대상 과학콘서트 <사이언스 나이트 라이브 (SNL)>	학교방문 과학강연 <다들배움>
운영횟수 199회 수혜자 92,600명	운영횟수 59회 수혜자 8,796명	운영횟수 705회 수혜자 61,258명

4)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 : 배려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인 배려는 융복합 인재가 추구하는 인재상 중에 다른 학문, 타자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교육의 시도 및 실천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과학문화의 확대 및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학습자가 갖춰야 할 배려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과학축전의 경우는 각 지역의 사회적, 인적, 재정적인 상황을 배려한 시민 중심 교육을 통해 융복합교육을

4)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s://www.kofac.re.kr/web/main/index.do>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⁵⁾

<표 3>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지원하는 지역 과학축전

지역	행사명	지역	행사명
전남	전남과학축전	대전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세종	세종과학집현전	강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광주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부산	부산과학축전

또한, 과학전문 서점 ‘갈다(갈릴레오+다윈)’의 경우는 과학문화를 활용한 적극적인 융복합교육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주식회사 ‘갈다’에 소속된 전문과학자, 과학저술가, STS 학자들의 국내외 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사례를 접할 수 있다. 특히 대중화를 위해 만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의 협업과 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20-21년도에 걸쳐 약 두 차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예비 과학 만화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⁶⁾

4.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적 방향

COVID-19 이후 국내외 교육에 관한 관심과 전통적인 교육에서 비전통적인 교육,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 위치 점유형 교육에서 공간 확장형 교육, 노멀교육에서 뉴노멀 교육으로의 확대의 초석이 되었다.

2020년 뉴욕타임스에는 ‘캠퍼스 없는 하버드 대학이 무슨 가치가 있나(What’s the Value of Harvard Without a Campus?)’에 관한 칼럼이 실렸다.⁷⁾ 이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에 원격 교육의 구현은 학습자들이 더 비싼 대학 도시에서 비싼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비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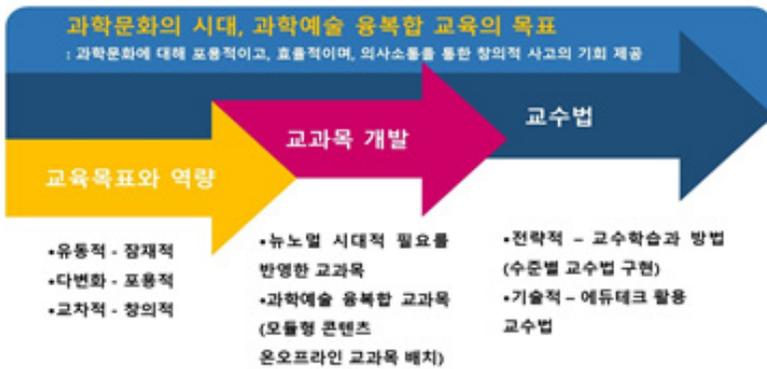
5)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www.scienceall.com

6)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https://sct2020.modoo.at/>

7) The New York Tims, what’s the value of Harvard without a campus?, 2020.7.11.

등록금 마련을 위한 궁리를 하거나 혹은 저렴한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 학교에서 먼 거리에 방을 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혁신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심지어 뉴노멀 시대의 교육은 대학이 과연 필요한가?, 대학교육이 의미가 있는가?, 대학 ‘건물’의 활용성 여부는 무엇인가? 등 대학 존립 그 자체에 대한 의문과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뉴노멀 시대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는 대학교육은 더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내용도 교육방식도 교육공간도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그림 1> 과학문화의 시대,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목표

이를 위해서 뉴노멀 시대에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목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과목 개발, 그리고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수법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1)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방향 : 교육목표

과학문화의 초석이 되는 과학예술을 활용한 융복합교육의 교육목적은

융복합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Bloom은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영역에 따른 교육목표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의 큰 목적으로 봤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의 교육목표는 Bloom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 고정되어, 그 경계를 넘나들이 하지 못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목표와 비전은 Bloom이 제시한 인지적 영역의 지식→이해→적용→분석→종합→평가의 단계를 구분하고 지식→평가의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고등정신 능력과 고등교육을 받은 학습자로 보지만, 뉴노멀 시대의 교육목표는 각 단계가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유동적이고, 다변화적이며, 교차적인 교육목표를 통해 학습자들의 잠재적 역량의 동기를 주는 데 있다.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표는 학습자 중심의 유동적, 다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문과의 교차적 교육목표와 함께 학습자의 잠재력, 포용력, 그리고 창의적 역량 함양의 동기를 목표로 한다.

2)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과목 개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과목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교과목 개발, 뉴노멀 시대 학습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인지한 교과목 개발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학습자들에게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통해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통한 내용이 과학지식으로만 전달되거나 이해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일상에서 과학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교과목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예술은 과학문화 체험을 위한 전달도구나 의사소통의 중간 매체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이전세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매체와 미디어 플랫폼, 문화콘텐츠 등을 더 익숙하게 사용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과학문화의 체험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교육대상에 적합한 구체적 제안들과 연결될 수 있다.

AI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교육, 로봇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양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융복합교육은 창의력에 기초한 융복합교육의 기회를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⁸⁾

과학문화에 대해 포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의사소통을 통한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과학문화 시대에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목표는 교육목표와 역량, 교과목 개발, 그리고 교수법에 있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목표와 역량은 유동적-잠재적, 다변화-포용적, 교차적-창의적인 역량에 주목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목 개발은 뉴노멀 시대에 필요를 반영한 교과목으로 과학예술 융복합 교과목을 다양한 층위에서 모듈화한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수법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교수학습과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에서 수준별 교수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교육목표와 역량, 교과목 개발, 교수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지만 상호 작용을 통한 단계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3)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수법

8) 2000년~2019년에 연구된 국내 융복합교육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과학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교육보다 과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융합을 교육 중심으로 융복합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함형인, STEAM 교육(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제5호, 2020, 571-578쪽)

과학예술 융복합 교수법은 전략적인 수준에서 교수학습과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자 맞춤형 교수법 구현을 목표로 하며, 기술적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목표로 한다.

융복합교육을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적 교수법으로는 학습자의 전공 여부에 따라 다양한 캡스톤 디자인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표 4>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전략적 교수법

전략적 교수법	수준별 교수법 구현
프로젝트형	문제해결 또는 제품개발 등 목표 설정에 따른 해결을 위한 유형으로, 단일학과별 혹은 융합학과 모두에 적용 가능, 전공 심화 또는 전공 융합 모두 가능
산학연계형	기업의 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 기업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이론 및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유형으로, 현장실습 학기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술지도, 자문 또는 산출물(완료 과제)에 대한 기업 평가를 통한 연계 가능
사회융화형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제외)의 사회문제 수요 및 연계를 통해 문제해결 및 개선 방안을 찾아 제시해 주는 유형을, 지역협력형 또는 사회 기여형 등으로 지칭함

이 외에도 해커톤, 메이커교육, 챌린지 활용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활용한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교수법 구현이 가능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으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메타버스(metaverse)이다. 초월(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하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가상세계를 활용해서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은 2010년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M.콘웨이에 의해 2010년 발간되었다. 이후 국내에는 2012년에 『의혹을 팝니다(Merchants of Doubts)』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다큐멘터리는

2015년 개봉했으며,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M. 콘웨이가 집필한 책에 기초한 것으로 담배와 폐암의 관계, 담배회사와 과학자들과 연대, 간접흡연의 문제,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의 입장과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언론인들이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언론과 과학기술의 관계, 비과학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되는 과학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를 다큐멘터리라는 예술 장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논의가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과학기술은 과학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정된 '진리'를 과연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는지, 합리성이 과학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정치·경제·문화적과 관계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영화이다.



<그림 2>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다큐멘터리 국내 VOD 표지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을 활용한 융복합 교육설계의 한 가지 방법은 교육목표-역량-교육내용-교수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크게 다루는 과학적 기술적 요소는 <흡연, 내연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이다. 본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으로 융복합교육을 구현할 수도 있

지만, 본 주제들은 익히 수강생들에게 익숙하거나 일정 부분 증명된 논제일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 학습자들이 지루해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층위로 교육설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융복합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할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융복합교육을 교실현장(온·오프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다.

<표 5> '의혹을 파는 사람들'을 활용한 융복합 교육설계(안)

교육목표	역량	교육내용	교수법
과학기술의 유동적 성격에 대해 인지한다	정보분석능력, 의사결정 능력	1.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시대별로 다른지 알아본다.	프로젝트형
과학기술의 합리성에 지위를 안다.	다양한 지식의 이해, 융합지식의 활용	2. 과학기술의 합리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본다.	산학연계형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협력하는 능력, 소통하는 태도	3.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혹은 그 이외 것인지 알아본다.	사회융화형

다큐멘터리 '의혹을 파는 사람들'의 교육내용은 위와 같이 ① 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한 의견은 시대별로 다른가?, ② 과학기술의 합리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③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혹은 그 이외 것인지? 등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한 교수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 과학문화 시대에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방법에 대해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자-교수자-

사회적 필요 측면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학습자 중심 교육 측면에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핵심역량인 창의, 의사소통, 내용융합, 배려의 측면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통해 과학예술 융복합 사례가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시대의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적 방향을 교육목표, 교과목 개발, 교수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활용한 교과목 개발의 사례로 다큐멘터리를 통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시도해 보았다. 과학예술을 융합한 교육의 교육목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이며, 실천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기초한 교과목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목표를 교육목표, 교과목 개발, 교수법을 통해 과학문화에 대해 포용적이고, 효율적이며, 의사소통을 통한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예술 영역 중 하나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활용한 교과목 개발, 교과목 운영 및 성과지표 개발 등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본 연구를 통해 과학문화 시대에 필요한 원활한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교과목 개발, 교수법 등이 가능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문화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교육목표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가 교육과정 전문가-과학 분야 전문가-예술 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서 과학문화 시대에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해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MZ세대 학습자들의 교육적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예술 콘텐츠와 과학을 융합한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융복

합적이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문화 시대가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과학예술 융복합된 과학문화 현장 체험,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과학예술 융복합 관련 수업을 수강한 기존의 학습자들과의 멘토-멘트단 등을 구성해서 학습자들이 수업 활동을 통해 재미와 흥미 더 나아가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체험할 수 있는 유연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권성호, 강경희, 「교양 교육에서의 융합적 교육과정으로의 접근 : 한양대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2(2), 2008, 7-24쪽.
- 김규태, 김성희,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육」, 2019(05), 2019,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77-285쪽.
- 김성희, 「과학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과학교양교육 교육적 경험 확산연구」, 『사고와표현』, 13(3), 2020, 215-234쪽.
- 김성희, 이상욱, 「인류세 시대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발전 맥락의 과학 교양교육」, 『교양학연구』, 14, 2021, 115-140쪽.
- 백윤수 외, 「우리나라 STEAM 교육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4), 2011, 149-171쪽.
- 손동현, 「융복합교육의 기초와 학부대학의 역할」, 『교양교육연구』, 3(1), 2009, 21-32쪽.
- 심재철, 김성희 외,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보고서, 2019.
- 이선경, 황세영, 「과학교육에서 융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경험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2(5), 2012, 974-990쪽.
- 정영란, 이자경, 「TBSL과 SLT를 사용한 중고등학교 과학적 소양 비교」, 『교과교육학연구』, 제14권 3호, 2010, 669-680쪽.
- 조숙경, 「과학커뮤니케이션 : 과학문화의 실행」, 『과학기술학연구』, 7(1), 2007, 한국과학기술학회, 151-175쪽
- 하지숙, 「이공계 대학 융합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 탐색」, 『공학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2019, 46-54쪽.
- 함형인, 「STEAM 교육(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제5호, 2020, 567~586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학문화의 시대에 필요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인 MZ세대들은 과학을 문화로 누리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교양교육의 방법으로 그들이 누리는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과학교양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에 핵심역량으로 창의, 의사소통, 내용융합, 배려의 측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과학예술 융복합교육의 교육적 방향을 교육목표, 교과목 개발, 교수법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의혹을 파는 사람들(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설계(안)를 설계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과학교양교육의 핵심은 흥미, 재미, 그리고 호기심을 통한 학습 동기 제고와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교양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예술 융복합 교육과정, 교과목 개발,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 설계와 실현을 위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과학문화, 과학예술, 융복합교육, 교양교육, 과학교양교육

■ Abstract

The Era of Science and Culture, Science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Method -Focusing on the documentary "Merchants of Doubt"

Kim, Seong Hee

This paper was examined through science and art convergence education required in the era of science and culture. The MZ generation, who are learners in the educational field, enjoy science as a culture. As a method of liberal arts education for them, you can try science liberal arts education through convergence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hat they enjoy.

To this end,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science and art convergence education were examined in terms of teachers, learners, and society. Next, examples of scientific and cultural activit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the aspects of creativity, communication, content fusion, and consideration as core competencies in science fusion education were examined. Finally, the educational direction of science and art convergence education was sequentially examined in terms of educational goals, subject development, and teaching methods. In particular, I designed a science and art convergence educational design (draft) using “Merchants of Doubt (documentary).”

Above all, the core of science liberal arts education can help to enhance learning motivation and career planning through interest, fun, and curiosity.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 of science educ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for the people involved in the science and arts convergence curriculum,

the development of subjects, and the design and realization of various teaching methods.

Keyword • Science Culture, Science and Arts, Convergence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Science Division
Liberal Education Core

■ 논문투고일 : 2021. 04. 16. ■ 심사완료일 : 2021. 05. 18. ■ 게재확정일 : 2021. 05. 25.



남자 대학생의 교양운동 교육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

진민기*
진승모**
신세영***
심수홍****
김원중*****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논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일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영양 과잉공

* 주저자, 건국대학교 대학원생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강사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대외협력처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교수

급이 발생하였고,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인체 에너지의 사용과 섭취 비율의 불균형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중, 비만과 대사성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성인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 근래에는 중·장년뿐만 아니라 20대에게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질병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운동 교육은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특히 20대에게는 운동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학준, 2011).

청소년기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활동량이 감소해 운동 권장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40%를 넘는다고 하였으며(박인성, 2016), 신체활동량이 감소하면 체력적 수준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비만은 특정 연령층과 성별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남녀구분 없이 나타나지만, 어린 시절의 비만은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 비만이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일 확률은 80%가 된다고 하였다(차수정, 2020). 우리나라의 20대 비만 발생률은 1998년 26.0%에서 2009년 31.3%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대는 15.2%에서 22.1%로 6.9%가 증가해 20대의 비만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시경, 2017). 비만뿐만 아니라 20대 대학생의 다양한 건강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운동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 뿐만 아니라 운동방법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운동참여는 체력적 수준의 상승에 도움이 되며, 체력적 요소 중 심폐체력이란 폐, 심장 및 혈관계의 협력 작용으로 골격근에 산소를 전달하는 유산소능력을 의미하고 체력적 관점에서의 심폐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최대산소섭취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폐체력

과 조기 사망률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심폐체력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수명도 증가된다고 하여 심폐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현철, 등 2009).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20대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 하였으며(Garcia-Hermoso et al., 2017), 심폐체력의 향상은 인간의 삶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과 더불어 대사성 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환의 빈도를 낮추어 사망률을 저하 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Rethorst et al., 2017).

심폐체력 중 폐활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호흡근 훈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흡기근에 저항성부하를 주는 근력 훈련과 사지를 움직이는 지구력 훈련이 있으며 호흡근도 사지 골격근처럼 호흡기에 부하운동과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면 호흡근 근력뿐 아니라 지구력 상승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삼철 등, 2011). 따라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체력적 수준과 더불어 폐활량 증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규격화 되고 수동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 운동의 효과성을 설명하고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적 수준과 폐활량의 개선 효과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운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운동선수와 중장년층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정연도, 김대권, 2015), 상대적으로 20대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더불어 대학생활에서의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발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남자 대학생의 교양운동 교육을 통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남자 대학생으로 운동과 건강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요구하였다. 동의서를 제출한 인원 중에서 본 연구의 모집단 특징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K대학교의 20대 남성 대학생 중에서도 최근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측정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및 폐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현재 관련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인원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신체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피험자의 신체적 특성

(M±SD)

Variable	Age(year)	Height(cm)	Weight(kg)	BMI(kg/m ²)
N=20	21.50±1.19	177.91±7.36	74.95±5.67	23.65±0.21

2) 운동프로그램

사전에 모집된 피험자를 대상으로 유산소와 무산소 트레이닝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포함하는 복합 트레이닝을 적용하였다. 각 피험자의 체력적 수준을 사전 측정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적용한 운동 방법은 김동일 등(2012)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유산소 트레이닝은 운동자각도 12~16에 해당하는 중강도 수준으로 빠르게 걷기를 20분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무산소성 운동은 1RM(Repetition Maximum)과 운동자각도를 기준으로 중강도 수준으로 전신의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방법은 밴드 운동과 프리웨이트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동 참여 여부 확

인은 매주 수업에 참여하여 개인별로 모두 확인하였다. 운동 참여 기간은 8주로 제한하였다. 자세한 운동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복합운동 프로그램

종목	운동방법	강도	시간	빈도
준비운동	스트레칭	저강도	5~10분	주 3회
유산소 트레이닝	빠르게 걷기	중강도	20분	
무산소 트레이닝	Shoulder press	중강도	20분	
	Side raise			
	Arm curl			
	Squat			
	Lunge			
정리운동	스트레칭	저강도	5~10분	

3) 운동부하 검사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프로토콜은 Bruce protocol을 이용하였다. Bruce protocol은 3분마다 속도와 경사도가 증가하며, 무선 휴대용 호흡 가스분석기(K4b2, Italy)를 이용하여 피험자의 호흡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운동 종료시점은 심박수가 최대치까지 상승하였을 때, 운동자각도(RPE)가 최대치에 도달하였을 때, 그리고 피험자가 포기 의사를 밝힐 때까지 실시하였다.

4) 폐활량 검사

폐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선 휴대용 호흡 가스분석기(K4b2, Italy)를 활용하여 폐활량을 측정하였다. 폐의 환기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호흡 시에 흡기와 호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자동으로 기록되어 진다. 폐활량 검사는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과 안정 시 폐활량(slow vital

capacity; SVC)을 측정하여 본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교양운동 교육이 심폐체력과 폐활량의 비교를 위해 SPSS version 25.0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교양운동 교육 후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측정된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폐체력의 비교

교양운동 교육을 통해 8주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의 심폐체력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1) 최대산소섭취량(VO_2max) 비교

대학생의 최대산소섭취량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최대산소섭취량은 $52.69 \pm 4.68 \text{ ml/min/kg}$ 을 나타내었으며, 참여 후 최대산소섭취량은 $58.36 \pm 5.77 \text{ ml/min/kg}$ 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20대의 최대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표 3> 심폐체력의 변화

(M±SD)

Variable	Pre	Post	t	p
VO_2max (ml/min/kg)	52.69 ± 4.68	58.36 ± 5.77	-4.967	.001***
VE (ℓ/min)	59.88 ± 11.98	63.27 ± 8.53	-1.465	.159
RER	0.90 ± 0.10	0.90 ± 0.12	.210	.836

***: $p < .001$

VO₂max: 최대산소섭취량, VE: 환기량, RER: 호흡교환률

(2) 환기량(VE)의 비교

대학생의 환기량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환기량은 $59.88 \pm 11.98 \text{ l/min}$ 을 나타내었으며, 참여 후 환기량은 $63.27 \pm 8.53 \text{ l/min}$ 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호흡교환률(RER)의 비교

대학생의 호흡교환률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호흡교환률은 0.90 ± 0.10 을 나타내었으며, 참여 후 호흡교환률은 0.90 ± 0.12 을 나타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폐활량의 비교

교양운동 교육을 통해 8주간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폐활량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표 4> 폐활량의 변화

(M±SD)

Variable	Pre	Post	t	p
FVC (ℓ)	4.60±0.57	4.75±0.63	-1.094	.288
SVC (ℓ)	4.48±0.66	4.61±0.50	-2.120	.047*

*: $p < .05$

FVC: 노력성 폐활량, SVC: 안정 시 폐활량

(1) 노력성 폐활량(FVC)의 비교

대학생의 노력성 폐활량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노력성 폐활량은 $4.60 \pm 0.57 \text{ l}$ 을 나타내었으며, 참여 후 노력성 폐활량은 $4.75 \pm 0.63 \text{ l}$ 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2) 안정 시 폐활량(SVC)의 비교

대학생의 안정 시 폐활량은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교양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안정 시 폐활량은 $4.48 \pm 0.66 \ell$ 을 나타내었으며, 참여 후 안정 시 폐활량은 $4.61 \pm 0.50 \ell$ 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7$).

4. 논의

본 연구는 20대 대학생의 교양운동 교육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심폐체력 결과에서 최대산소섭취량 변인은 사전, 사후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지만, 환기량과 호흡교환률 변인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현 등(2018)은 최대산소섭취량 변인이 성인의 심폐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효율적인 운동을 위한 기능이라고 하였고 운동을 통해서 최대산소섭취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교양체육 강좌를 듣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12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최대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복합운동을 포함하는 운동의 종류와 관계없이 규칙적인 운동의 수행은 다양한 체력요인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정규 수업 형태로 이루어진 짧은 시간의 운동프로그램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요인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강병용, 2020).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교양체육 강좌 중 체력육성 수업에 참여하는 남자 대학생과 농구, 탁구, 풋살, 스쿼시 및 댄스로 구성된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실시한 결과

최대산소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교양체육을 통해 대학생의 신체활동량 증가와 체력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김동일 등, 2012).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교양을 통한 운동교육으로도 심폐체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체력증진과 함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 24명을 대상으로 6주간 호흡근육 훈련군, 유산소성 달리기 훈련군 및 호흡근육과 달리기 훈련군, 3그룹으로 구분하여 환기량과 호흡교환률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운동이 호흡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양한 기존 연구로 검증되었지만 호흡근육 훈련의 강도, 시간 및 기간의 차이로 인해 미비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정현진 등, 2012). 또한, 6주간 순환운동과 근력 트레이닝을 진행한 결과 폐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본 연구의 안정 시 폐활량이 개선되는 효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양희송 등, 2017).

본 연구의 폐활량 결과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정 시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기식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13명에게 8주간 저강도 복합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노력성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호흡운동을 통해 호흡근육을 강화하고, 흉곽 및 체간 근육들의 움직임과 근력 강화가 노력성 폐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다만 노력성 폐활량의 모든 항목에 대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운동 강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과 성별과 나이에서 차이가 있지만 남자 대학생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운동 강도가 낮아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운동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체력적 요인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Sibley, Bergman, 2016). 더불어 대학에서의 신체활동을 동반한 스포츠 활동은 유산소 능력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Taskin, 2016). 대학에서의 교양수업을 통한 운동과 건강 교육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야기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유산소 체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경우 체계적이고 수동적인 학교체육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으로 하여금 운동에 참여하는 시기로써 상대적으로 신체활동량이 저하될 수 있다. 신체활동의 감소로 인해 체력적인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회 실시되는 교양운동 교육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면서 체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함으로 건강과 더불어 운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양운동 교육은 대학생의 건강 유지와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운동 교육을 실시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심폐체력에서는 최대산소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환기량과 호흡교환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폐활량에서는 노력성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안정 시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교양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은 심폐체력의

항상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대 남자 대학생에 국한되어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병용. 「교양체육 수업에 의한 복합운동 프로그램의 수행이 여대생의 신체구성, 체력요인 및 대사적인 변인에 미치는 효과」, 『한국체육과학회지』, 29.5, 2020, 987~1006쪽.
- 김동일, 박지혜, 홍성현, 이해동, 전용관. 「대학생들의 교양체육 체력육성 수업 참여가 체력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23.3, 2012, 478~488쪽.
- 박인성. 「대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적 특성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2, 2016, 85~96쪽.
- 서현, 서영환. 「스피닝 운동이 비만중년여성들의 최대산소섭취량과 건강관련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2018, 1159~1164쪽.
- 양기식, 송지훈, 이상근, 한동욱. 「8주간의 저강도 복합 운동프로그램이 노인여성의 노력성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지』, 4.1, 2016, 15~19쪽.
- 양희송, 정찬주, 유영대, 전현주, 허재원. 「타바타 운동과 케틀벨 운동이 성인 여성의 폐활량과 골격근량 및 지구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통합의학회지』, 5.4, 2017, 11~19쪽.
- 이삼철, 정철현, 이은숙, 이해호, 정영환, 채혜진, 최정아, 이현철, 오상부, 손경현. 「20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호흡근 강화 운동에 따른 호흡능력의 변화」,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18.3, 2011, 9~16쪽.
- 이시경. 「20대 비만여성의 12주간 Ai Chi운동이 신체구성, 유연성 및 동적균형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7.2, 2017, 269~275쪽.
- 이학준. 「체육과 운동교육의 관계」, 『운동학 학술지』, 13.1, 2011, 13~20쪽.
- 정연도, 김대권. 「12 주간의 저항성 트레이닝이 중년 남성의 호르몬 및

신경전달물질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23.1, 2015, 35~44쪽.

정현진, 이대택. 「흡기근육 훈련과 유산소운동의 동시적용이 심폐반응과 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21.3, 2012, 373~384쪽.

조현철, 김종규.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과 신체구성 및 심폐체력 추이 연구 20-75세의 서울 및 경기지역 남자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8.5, 2009, 377~386쪽.

차수정. 「연령에 따른 비만 여성의 체형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1.5, 2020, 561~571쪽.

Garcia-Hermoso, A., Carrillo, H. A., Gonzalez-Ruiz, K., Vivas, A., Triana-Reina, H. R., Martinez-Torres, J., Prieto-Benavidez, D. H., Correa-Bautista, J. E., Ramos-Sequvelva, J. A., Villa-Gonzalez, E., Peterson, M. D., & Ramirez-Velez, R. “*Fatness mediates the influence of muscular fitness on metabolic syndrome in colombian collegiate students*”, Plos One, vol. 12, no. 3 (2017), pp.e0173932.

Rethorst, C. C., Leonard, D., Barlow, C. E., Willis, B. L., Trivedi, M. H., & DeFina, L. F. “*Effects of depression,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respiratory fitness on mortality: results from the cooper center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vol. 47 (2017), pp.2414-2420.

Sibley, B. A., & Bergman, S. M. “*Relationships among goal contents, exercise motivations, physical activity, and aerobic fitness in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cours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122, no. 2 (2016), pp.678-700.

Taskin, C. “*Aerobic Capacity and Anaerobic Power Levels of the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Studies, vol. 6, no. 2 (2016), pp.76-83.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양운동 교육이 대학생의 심폐체력과 폐활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으로 운동과 건강관련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8주간 운동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측정 변인으로는 심폐체력과 폐활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계 방법은 SPSS ver 25.0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폐체력에서 최대산소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환기량과 호흡교환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폐활량에서 노력성 폐활량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정 시 폐활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양운동 교육이 심폐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대사질환의 위험요인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폐활량은 높은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운동 강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교양교육, 운동, 심폐체력, 폐활량

■ Abstract

The Effect of Liberal Exercise Education for Male University Students on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Vital Capacity

Jin, Min Ki

Jin, Seong Mo

Shin, Se Young

Shim, Su Hong

Kim, Wo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mpact of liberal arts education on the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vital capac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le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K University in Seoul city, and are taking liberal arts classes related to exercise and health. As a method of study, exercise program was performed for 8 weeks, and cardiorespiratory fitness and vital capacity were tested as measurement variables. The statistical method was paired t-test and SPSS ver 25.0 was used.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at $p < .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ximal oxygen uptake in cardiopulmonary fit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ventilatory volume and respiratory exchange rat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orced vital capacity in vital capacity,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low vital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iberal arts exercise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cardiopulmonary fitness and lowers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diseases.

However, vital capacity did not show a high level of effect, which is thought to be due to the low exercise intensity.

Keyword • Liberal education, Exercise, cardiorespiratory fitness, vital capacity

■ 논문투고일 : 2021. 04. 16. ■ 심사완료일 : 2021. 05. 27. ■ 게재확정일 : 2021. 05. 27.



Instructional Use of TED Talks in Business English

Joel Rasmussen*

Conten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Methodology
4. Results and Discussion
5. Conclusion

1. Introduction

Conducting global business requires fine-tuned language skills. Especially at the executive level, where managing teams in other regions, global conference calls, email correspondence, and face-to-face business meetings happen frequently and are often of high consequence and sensitivity. Due to a merger with an American company, the Korean managing directors of a multinational

* Assistant Professor, Mokwon University

headquartered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must conduct business in English on a regular basis, and therefore often enroll in an English education program. Ideally, such a program develops and improves their language skills such that they can competently and confidently handle any and all business situations. Effective communication involves the ability to convey meaning clearly, exhibit proper spoken grammar and pronunciation, utilize effective vocabulary and phrases, and display comfort and ease during communica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company directors attend two one-hour English classes a week, one-on-one with a native English-speaking instructor. The learners are all Korean males in their early- to mid-50s with varying levels of English ability.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ed hosting business meetings, conference calls, daily work correspondence, and business trips where English usage is critical. To support these requirements,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has an authentic focus that relies largely on spoken communication and building confidence in using English. This authentic-based program utilizes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news articles, actual business materials, and other elements based on real situations the learners are involved in (such as hosting dinners, giving lab or facilities tours, polite speech in various scenarios, and others). These authentic materials are used in lieu of the traditional educational materials such as textbooks, vocabulary lists, grammar worksheets, etc. that the program previously relied on in the past. Such traditional materials were often met with varying

levels of learner dissatisfaction in terms of maintaining their interest, motivating them, and supporting actual skill improvements.

The purpose of this action research project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 new instructional strategy in the Business English program. As the program objectives involve improving the learners' abilities to communicate and handle business situations in English, this project introduced a new instructional strategy that related directly to learner needs and addressed program weaknesses in learner satisfaction and skill improvement. The instructional strategy was assess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o inform the program.

This project is focused on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managing directors. Their explicit need of English gets amplified by the importance of their working relationships and decisions. Therefore, the program consists of one-on-one classes with a native instructor twice a week. The focus of the program is authenticity, with objectives to build confidence and competence quickly. These are realized by using real-world materials to achieve practical and immediate gains in ability. For some high-level learners with advanced skills, this translates to discussion-based classes on business, personal, and societal topics. In order to supplement these authentic classes, this project introduced further media use in the form of TED Talks, chosen for their availability, audio/video format, wide range of topics, and relevance to global business. These were expected to address some current deficiencies, such as a lack

of listening practice, while still being authentic and relevant, and possibly effective at improving learner speaking skills. To assess this effectiveness, assessments using interviews and surveys were employed.

2. Literature Review

1) Global English

English exists today as the premiere global language. It is preferred in many international domains, such as business and banking, scientific publication, global brand advertising, international trade and travel, tertiary education, and more (Graddol, 1997). Kachru's (1992) oft-cited Three Circles of World Englishes provides a good model to illustrate how widespread the language actually is. Native speakers (L1s) from the UK, USA, Australia, etc., making up the Inner Circle, actually comprise the smallest portion of total English speakers. They are outnumbered by the Outer Circle, which contains countries where English today exists as a second language (L2) and useful lingua franca. Even this Outer Circle itself, though, is outnumbered by the third circle, the Expanding Circle, where English is used for specific purposes 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e.g., China, Russia, Korea, Indonesia, etc.).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a total number of English speakers, but it has been said that one-third of the world, or some 2 billion people, now use English (Potter, 2014).

This prevalence as the global language has led to a significant

emphasis placed on EFL in many contexts. Forsman (2010) argues that EFL as a subjec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due to its reach into various contexts, levels, and educational systems (opposed to being a stand-alone subject). It exists in every level of education from early childhood to tertiary; its field includes a myriad of acronyms such as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business English lingua franca (BELF), etc. Further, there are a number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for learners and instructors alike.

2) Business English

Amidst this large and branching world, Business English exists as a category of ESP. Based on the specific needs and goals of the learners, ESP has the aim to “develop student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certain working environment” (Bao & Ding, 2009, p. 3323). Business English itself though gets broken down further, into English for general business purposes (EGBP), English for specific business purposes (ESBP), Business English lingua franca (BELF), etc. The various levels and descriptions highlight the fact that Business English defies a universal definition, being multi-disciplinary (Wu, 2013), and used among all different kinds of speakers.

3) Learners, Instructor, and Instruction

Educational programs for adults mostly follow the major assumptions of andragogy (Knowles, 1980), which state that adults are self-directed, draw from life experiences, are problem-centered

as opposed to subject-centered, internally motivated, and need to know why they need to learn something (Finn, 2011). Instructional activities should be constructed accordingly, “to create and maintain experiences that are inviting, engaging, motivating, and personally rewarding” (Finn, 2011, p. 39).

In trying to achieve these goals, many EFL contexts employ native-speaking instructors. They offer superiority (as compared to non-native instructors) in certain linguistic areas such as pronunciation (Samuel, 2010). Native speakers are also perceived to be favorable in terms of cultural exposure and development (Bayyurt, 2006; Hertel & Sunderman, 2009). While non-native instructors offer many advantages of their own, the preference for a native-speaking instructor is still prevalent across many EFL contexts, including Business English.

Following the principle of andragogy with a native instructor, the current project focused on authentic instruction. Newman & Wehlage (1993) formulated five standards of authentic instruction: higher-order thinking, depth of knowledge, connectedness to the world beyond the classroom, substantive conversation, and social support for student achievement. These standards align well with andragogy (Knowles, 1980); adults are capable of higher-order thinking, their preference for problem-centered instruction leads to connectedness to the world outside the subject, and their life experiences and knowledge can lead to substantive conversation. The personal relationships, developed as a result of one-on-one

classes, also precipitate a form of social support for the learners' ongoing achievements.

High-level, authentic lessons ask students to “analyze, synthesize, and evaluate information” (Dennis & O’Hair, 2010, p. 4). In this way, by moving away from subject-oriented lectures and traditional classroom work, authentic instruction mirrors what learners are required to perform in their international business. Yang (2010) states that by using the target language in real contexts rather than textbook-contrived situations, learners are exposed to grammatical forms, technical language, and communicative means “in the kinds of contexts that they naturally occur”, which “assists the learner because he will experience the language in interaction with other closely related grammatical and discourse elements” (p. 341). The learners in this project overwhelmingly preferred these types of authentic sources, as even advanced-level Business English textbooks were too removed from reality to be “engaging, rewarding, and personally motivating”, as Finn (2011, p. 39) defined effective lessons for adults.

4) Media in Instruction

What types of materials are authentic? News articles about relevant economic trends, national or global events, industry news, or social topics have been used to high learner satisfaction. However, printed handouts provide for only a narrow use of available media.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at measured the

effectiveness of global media use in the classroom (Bahrani, 2011; Chiyokura & Inuma, 2008; Maglic, 2007). In all cases, the use of media was determined to be successful in terms of increased speaking fluency and student satisfaction. Bahrani (2011) specifically looked at the use of audio/video mass media in an EFL context, and found that the exposure promoted speaking fluency. One way this occurs is, after exposure to authentic language input (media), the learners use “different techniques to adapt themselves with the linguistic level of the input” (Bahrani, 2011, p. 166). Audio/video content provides for richer exposure that mirrors what they encounter in real contexts.

Another case for the instructional use of media is pointed out by Trinder and Herles (2013). They refer to global developments in communication and connectivity through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Relating to English as the lingua franca of business, many students have “enhanced learning an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in the real world’” (p. 222). Relying on outdated materials or neglecting all the various media resources people commonly use in their daily lives does EFL learners a disservice, as much of their motivation for learning the language involves these very types of uses. Globalization has forced a shift in what is considered appropriate or effective instructional tools.

TED Talk videos make up the tools of the current project. Although there are studies on using TED Talks as sourc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educators themselves (Rubenstein, 2012; Rubenstein, 2013) there is a lack of robust studies on their

use in student instruction. Their effectiveness as instructional tools certainly has the potential to match their succes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s they provide “access to the world’s most innovative and dynamic speakers” and their integration into lessons leads to “exploring the content, asking questions, applying the material to real situations” (Rubenstein, 2012, p. 261). The content of the talks is varied, coming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es. Beyond the authentic, high-level content, the varying speech rates, styles, and accents also provide learners with varied listening practice.

3. Methodology

1) Participants

This project was conducted over the course of six weeks in the fall of 2014 with seven managing directors at a multinational headquartered in Daejeon, Republic of Korea. The participants were all Korean males in their early- to mid-50s. They were chosen on the basis of their enrollment in the company English program and also from their specific needs to improve English communication ability and comfort for their global business requirements. The researcher had between one and two years of experience teaching the participants prior to this project. Over that time, their skills were assessed and their areas of need determined, which informed their selection for this project. Criteria included the need for more dynamic, authentic materials in class, and also for increased listening

practice.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and their participation was voluntary with the right to withdraw at any time.

2) Materials and Methods

The materials in this study were derived from various TED Talk videos (Appendix D). The videos, all obtained from the TED website, were either first downloaded or streamed in class, played on a computer or other device. The website provides the transcripts for each talk, which the researcher used to create a printed script in a convenient format with other pertinent information such as an introduction, date of presentation, length, and a short speaker bio.

The videos were chosen based on their subjects, relevance to the learner, the speaker, and length. The topics included leadership, business, global issues, IT, psychology, and others. The speakers, both male and female with a variety of ethnicities, presented a wide range of speaking styles, rates, and accents.

Although the exact method varied to a small extent with each learner, typically the video was first watched without the aid of the script to focus solely on listening. The video would be paused from time to time to summarize content and ensure comprehension, with discussion following its conclusion. Then it would be re-watched, this time using the script, with interesting vocabulary and phrases highlighted and further discussion prompted. Depending on the learner, this process would take one or two one-hour lessons to complete.

3) Data Collection

Data was collected in two ways: (i) interview assessments (Appendix A), and (ii) learner surveys (Appendix C). Interview assessments are commonly used to measure speaking skills. They give the learner the chance to express themselves in their own words, which again creates a layer of authenticity; interviews mimic the business or personal communication learners conduct on a daily basis. Interviews also work as formative assessments which, aimed to help ongoing learning through appropriate feedback, immediate action, and student-teacher interaction, have been described as essential in EFL teaching (Ketabi & Ketabi, 2014).

Learner surveys are additionally seen as formative assessments, as they can inform instruction through highlighting specific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bility, and learner opinions relating to the content. Self-assessments are seen as a form of alternative assessment (Jalilzadeh & Dastgoshadeh, 2011), which align with andragogy as well as the learner-centered, authentic program of the current context.

The interview assessments were conducted one-on-one with each learner and the researcher, with questions ranging from business topics to general conversational matters. These interviews were conducted twice. The first time was pre-instruction and provided a baseline measurement for the learners' speaking skills. The second interview involved similar questions and came after the instruction to measure any changes. A detailed scoring rubric (Appendix B) was followed that provided a cumulative basis for the learners' speaking

fluency scores.

The survey was given to each learner after the instruction. It probed the learners' thoughts and opinions regarding the media use, the level of its effectiveness, their preference in class materials, and their areas of need.

4) Data Analysis

The combination of the quantitative data from the interview assessments plus the qualitative responses of the surveys sought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ional strategy. The interview questions, assessment rubric, and survey questions are given in Appendix A, B, and C, respectively. The interview assessments, which were adapted from company materials provided by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were used by the instructor to find any changes in speaking fluency from pre-instruction to post-instruction. The rubric delineates six levels according to the following: language errors, speaking flow, listener interest, speaker's ability to convey meaning, and speaker's ability to meet the topic. Each learner's scores were compared individually as well as cumulatively to determine any quantitative improvement in skills on the program level. The survey results were combined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ponses grouped and compared.

4. Results and Discussion

The purpose of the program was to investigate the use of TED

Talks as instructional materials to help improve the general business communicative abilities of learners, with an emphasis on speaking skill. Quantitativ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 assessments of learners' speaking fluency, and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that probed their opinions on the instruction and their needs. These data types are analyzed here with some conclusions drawn.

The first form of data came from the pre-instruction oral assessment. It took the form of an interview between the instructor and learner, with a rubric followed to measure fluency. The interview questions ranged from general conversation to business-related topics. Speaking fluency was measured by averaging the scores in four categories: communication, expression, smoothness, and accuracy. Communication was measured first through the ability to meet the topic or prompt, and second through the ability to convey thoughts and feelings on it. Expression looked at tone, voice, style, and language choice. Smoothness measured how natural, confident, and consistent the speaking was. Accuracy related to language conventions such as grammar and pronunciation. These criteria were combined into an average fluency score.

The pre-instruction fluency scores for each learner are plotted in Figure 1.

The mean score was 4, out of a maximum 6, which reflects the selection criteria that required the participants to have the necessary skills to follow the instructional content. According to the rub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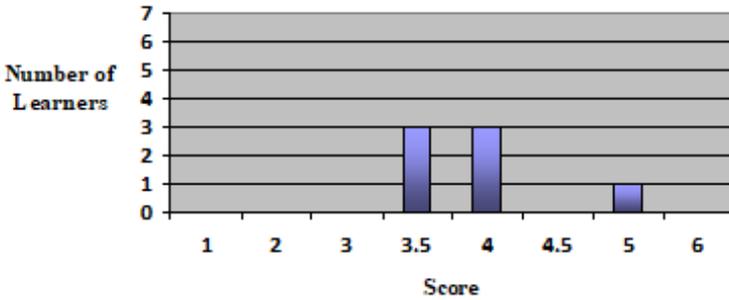


Figure 1. Pre-instruction oral assessment

(Appendix B), level 4 represents a Competent level of ability.

Following the instructional period, data collection took the form of a post-instruction oral assessment. This was a repeat of the first interview, given to find any improvements in fluency. In Figure 2, the results show no quantitative improvement in speaking skill scoring as compared to the pre-instruction assessment (Figure 1). Answers to the interview questions (Appendix A) showed the same level of response as the pre-instruction assessment, across all lear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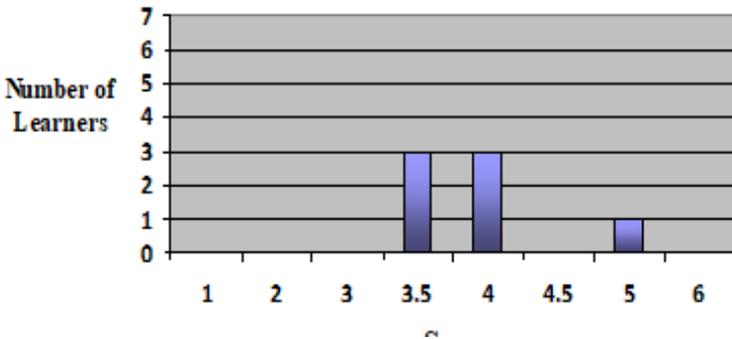


Figure 2. Post-instruction oral assessment

The third form of data collection was through learner surveys (Appendix C) given after four weeks of following the instructional content. Two of the participants were unable to turn in their surveys, so the survey results represent five of the seven learners. The results were mostly positive, as shown in Figure 3, with the learners indicating that they enjoyed, overall, the instructional content and found it helpful. Interestingly, the survey results showed zero negative responses of any k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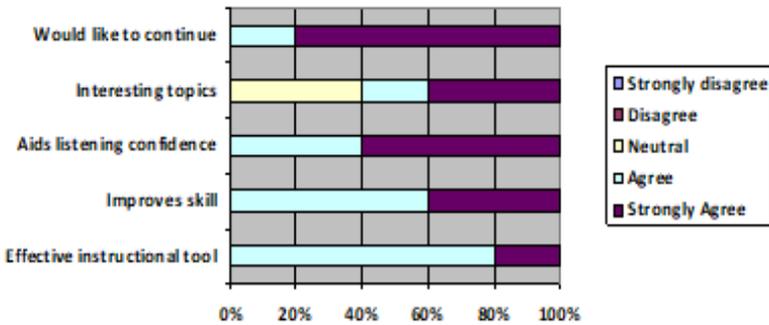


Figure 3. Survey results on the instructional use of TED Talks

Further, the majority (60%) responded that they preferred authentic materials to traditional, with the remainder (40%) preferring a mix of authentic and traditional materials.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no learner had a preference for traditional materials only. Given the chance to rank the importance of the general language skills of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100% of the learners ranked speaking and listening as the two most important skills.

The final survey questions allowed the learners to voice their own

opinions. The following were listed as positive, helpful aspects of the TED videos: plain, articulate, closely connected with their business roles, exposure to knowledge in multiple fields, and good listening practice. They listed the following as negative or detrimental aspects: too long, lacking in generic conversational language, and difficult. Given an open-ended opportunity to share any further thoughts or preferences, multiple learners called for repeated listens, in order to fully catch the meaning and language details. One response called for shorter programs, and another for familiar topics (such as economics or business) while staying away from difficult or unfamiliar ones (like philosophy or medicine).

The qualitativ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learner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instruction. According to the surveys, they felt it was effective and interesting, increased their confidence, and they wished to continue its use in the future. The authentic nature of the instruction fit well into not only the current Business English program at the company but also with the learners' stated needs and learning characteristics. Observationally, the learners showed enthusiasm for the instruction. Many found some aspects humorous, which increased the natural, positive atmosphere of class. They asked questions frequently throughout the videos, and the discussions that followed explored the topics further. The learners all connected the talks to their professional and sometimes personal lives as well. As a result of the instruction, many learners added the TED app to their mobile phones for use in their own time,

indicating their interest in the content.

Quantitatively, in measuring the learners' specific gains in ability, the assessment results showed no change. This is believed to be from the limited amount of time spent with the new instruction. Exposure to only a small number of talks, and therefore a small number of topics and speakers, is not sufficient to lead to clear develop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ll the learners already possessed a strong set of English skills (Competent, Appendix B), improvements in spoken communication cannot come so quickly. Based on the learners' interest and enthusiasm though, and the large variety and breadth of available TED Talks, it is the researcher's opinion that given a longer period of time with this instructional strategy, measurable gains in learner English skill would be achieved.

5.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new instructional strategies involving multimedia use in a Business English program. The media took the form of TED Talk videos, which addressed a learner need for more focused listening practice. Additionally, the topics, vocabulary and phrases, and discussion that followed the use of the videos met the authentic requirements of the program, and were suited to the learners' English ability and class prefere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y was measured through oral assessments and learner surveys. Although the assessments showed little to no measurable progress, the learner surveys showed

a highly positive response to the videos, with all learners interested in continuing their use. This chapter will discuss ways to improve this project and points to consider in future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 data analysis, there were no quantitative, measurable gains in the learners' English ability as a result of the media use in instruction. However,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from the learner surveys and researcher observation demonstrated a clearly positive response to the TED videos. It is the researcher's opinion that given a chance to address the major limitations in this project, measurable improvements in English skill could come as a result of the media use.

To better realize this project's goals, first, it would need to be lengthened, as the first major limitation was the short time span of the project. The post-instruction assessments were given after a few weeks with the instruction, which meant only a small number of videos were watched. This is simply too short an amount of time to yield improvements in language ability at an already-competent level. Had this project received approval to begin earlier, then more time could have been spent with the instruction. However, a few weeks more would not likely lead to any significant improvement. The project would need to be continued for a minimum of six months to one year before any final determination of its quantitative effectiveness could be made.

The next significant step to improve this project would be to address the second major limitation, which was the small data set

and narrow range in participants. These factors affect the current project's validity. With only seven participants, results and analysis become very difficult to generalize and apply to a range of other instructional and learner contexts. This study would need to be conducted with more participants, ideally representing a wide range of ages and backgrounds. In that case, the results would achieve stronger validity and may become more generalizable.

■ References

- Bahrani, T. (2011). Speaking fluency: Technology in EFL context or social interaction in ESL context?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2(2), 162-168.
- Bao, X.R., & Ding, L.Y. (2009). ESP based business English teaching model.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ICISE),3323-3326. Nanjing: IEEE. doi: 10.1109/ICISE.2009.557
- Bayyurt, Y. (2006). Non-native English language teachers' perspective on culture i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classrooms. *Teacher Development*, 10(2), 233-247. Doi:10.1080/13664530600773366
- Chiyokura, H., & Iinuma, M. (2008). Integrating global media contents for an EFL course in Japan: Cultural orientation project on Vietnam. *International Journal of Pedagogies and Learning*, 4(4), 61-77.
- Dennis, J., & O'Hair, M.J. (2010). Overcoming obstacles in using authentic instruc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high school math & science teachers.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38(2), 4-22.
- Finn, D. (2011). Principles of adult learning: An ESL context. *MPAEA Journal of Adult Education*, 40(1), 34-39.
- Forsman, L. (2010). EFL education in the new millennium: Focus on the promotion of awareness of difference and diversity.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4(5), 501-517.
- Graddol, D. (1997). *The future of English? A guide to forecasting the popularity of the English language in the 21st century*. London: British Council. Retrieved from <http://www>.

britishcouncil.org/de/learning-elt-future.pdf

- Hertel, T.J., & Sunderman, G. (2009). Student attitudes toward native and non-native language instructors. *Foreign Language Annals*, 42(3), 468-482. Doi: 10.1111/j.1944-9720.2009.01031.x
- Jalilzadeh, K., & Dastgoshadeh, A. (2011). Role of alternative assessment techniques in improvement EFL learners' speaking skill (Iranian EF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n Social Science*, 1(2), 27-35.
- Kachru, B. (1992). *The other tongue: English across cultures*.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etabi, S., & Ketabi, S. (2014). Classroom and formative assessment in second/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2), 435-440. Doi: 10.4304/tpls.4.2.435-440
- Knowles, M. (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Chicago: Follet.
- Maglic, M. (2007). Media educat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 not our job? *Novitas-Royal*, 1(1), 1-9.
- Newman, F., & Wehlage, G. (1993). Five standards of authentic instruction. *Educational Leadership*, 50(7), 8-12. Retrieved from <http://www.ascd.org/>
- Potter, S. (2014). English language. In *Encyclopaedia Britannica*. Retrieved from <http://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188048/English-language>
- Rubenstein, L.D. (2012). Using TED Talks to inspire thoughtful practice. *The Teacher Educator*, 47(4), 261-267. Doi: 10.1080/08878730.2012.713303
- Rubenstein, L.D. (201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using

- TED Talks. *Gifted Child Today*, 36(2), 124-132. Doi: 10.1177/1076217512474981
- Samuel, C. (2010). Pronunciation pegs. *TESL Canada journal*, 27(2), 103-113. Retrieved from <http://www.teslcanadajournal.ca/index.php/tesl>
- Trinder, R., & Herles, M. (2013). Students' and teachers' ideals of effective Business English teaching. *ELT Journal: English Language Teachers Journal*, 67(2), 220-229. Doi: 10.1093/elt/ccs080
- Wu, Y. (2013). Business English as a lingua franca (BELF).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6(10), 130-138.
- Yang, X. (2010). How to achieve authentic context in classroom oral English teaching.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3), 339-342. Doi: 10.4304/jltr.1.3.339-342

■ 국문초록

비즈니스 영어에서 TED 토크의 교육적 사용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TED Talk 비디오를 사용하여 말하기 능력과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업시간에 비디오를 여러 번 시청 후에 스크립트에 제공된 단어와 표현들을 익힌 후 본 내용을 요약하거나 결말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이런 방식의 비디오 사용의 수업을 일주일에 두 번 6주 동안 실시한 후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살펴보았다.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수준에 변화가 없었지만 설문 조사에서는 학습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학습자들은 미디어 사용이 흥미롭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다. 이런 미디어 사용 전략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주제어 • 비즈니스 영어, 성인 영어 교양 교육, 영어의사소통, 멀리 미디어와 영어, TED 토크

■ Abstract

Instructional Use of TED Talks in Business English

Joel Rasmussen

In seeking to improve a Business English program at a company headquartered in the Republic of Korea, media use in the form of TED Talk videos was used instructionally. These videos added valuable listening practice to the English lessons and provided authentic discussion topics, both of which worked to meet the program's goals involving English communication improvement. The videos were watched multiple times during class, with vocabulary and phrases highlighted on a provided script. Discussion occurred throughout the videos and follow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strategy was measured via oral assessments and learner surveys, with results as follows. The assessments showed no change in English skill level, due in part to the limited amount of time with the instruction, but the surveys showed a positive response from learners. Overwhelmingly, the learners found the TED Talks interesting and effective, and wished to continue their use into the future. Given a sufficiently long period with the instructional strategy, it is believed that its use would result in English skill improvements.

Keyword • Business English, EFL Adult English Education, English Communication Skill, Multimedia use in English Teaching

■ 논문투고일 : 2021. 04. 16. ■ 심사완료일 : 2021. 05. 13. ■ 게재확정일 : 2021. 05. 21.

Appendix A

Sample Interview Questions

Personal, Conversational

- 1) How was your weekend? What did you do?
- 2) How's your week going this week?
- 3) How's the family been?
- 4) Have you seen any good movies recently?
- 5) So, where are you from exactly? Tell me about your hometown and growing up.
- 6) Do you have any upcoming travel plans?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it be?
- 7) Tell me about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with using English.
- 8) How long have you been living in your current home? How does it suit you?
- 9) Did you see the news about...?
- 10) Tell me 2 truths and 1 lie about yourself. I'll try and guess the lie.

Business-related

- 1) How's work? What have you been working on recently?
- 2) How's the budget planning for next year coming along?
- 3) How was your business trip? Tell me about it.
- 4) I hear you have a business trip coming up. Tell me about it.
- 5) Tell me some positives and negatives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your boss. How about with your staff?
- 6) There have been lots of organizational changes around here lately. What do you think about all the re-structuring? How has it affected your organization?
- 7) Imagine you're hosting an important customer or colleague from abroad. Describe how you would introduce the company, your department, and the city.
- 8) What's the most innovative item or process to come from one of your teams?

- 9) Describe your role and responsibilities at this company, as if to someone with zero background knowledge.
- 10) You have to collaborate with teams from North America, Europe, China, etc. What are the keys to successful glob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ppendix B

Fluency Assessment Rubric

6 EXCEPTIONAL

Performance consistently adheres to topic or prompts and is highly insightful and reflective. Learner's ideas and feelings, whether directly stated or implied, are descriptive and appropriately supported. Skillfully discusses the subject and holds the listener's full interest through tone, voice, context, style, and choice of language. Speaking flows very smoothly and naturally.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do not detract from the flow of conversation.

5 STRONG

Performance adheres to topic or prompts and shows some insightful and reflective thinking. Learner's ideas and feelings, whether directly stated or implied, are fairly descriptive and appropriately supported. Mostly holds the listener's interest in the discussion through tone, voice, context, style, and choice of language. Speaking flows mostly smoothly and naturally.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do not detract much from the flow of conversation.

4 COMPETENT

Performance adheres to topic or prompts but is predictable. Learner's speaking is understandable and somewhat concise but exhibits commonplace language, basic sentence structure. Needs some work to

hold listener's interest in the discussion through tone, voice, context, style, or choice of language. Speaking flows a little smoothly and naturally but is inconsistent.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a minor detraction from the flow of conversation.

3 DEVELOPING

Performance usually adheres to topic or prompts but is very basic. Learner's speaking is mostly understandable but shows little insight or detail, sometimes not in full sentences. Needs some work to hold listener's interest in the discussion through tone, voice, context, style, and choice of language. Speaking does not flow very naturally and feels slightly uncomfortable, but communication is possible.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detract some from the flow of conversation.

2 LIMITED

Performance often does not adhere to topic or prompts. Learner's speaking is sometimes understandable but does not often use full sentences. Needs lots of work to hold listener's interest in the discussion through tone, voice, context, style, and choice of language. Speaking does not flow naturally, communication is somewhat difficult.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largely detract from the flow of conversation.

1 EMERGING

Performance often cannot meet topic or prompt. Learner's speaking is undeveloped, using only single words and no sentences. Needs fundamental practice in tone, voice, context, style, and choice of language. Speaking is unnatural and communication is difficult. Errors in language conventions and pronunciation prevent effective communication.

Appendix C

Learner Survey

- Q1: How effective are TED Talks as instructional tools to study English?
<Very Effective; Somewhat Effective; Neutral; Somewhat Ineffective; Very Ineffective>
- Q2: Are the vocabulary, phrases, idioms, listening practice, and topics discussed in the TED Talks helpful at improving your English skills?
<Very Helpful; Somewhat Helpful; Neutral; Somewhat Unhelpful; Very Unhelpful>
- Q3: As a result of using TED Talks/podcasts, I have gained some amount of confidence in my listening skills.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Q4: The TED Talks used in class were interesting and engaging.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Q5: I am interested in continuing the use of TED Talks or other authentic materials in class in the future.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 Q6: Please select your preference for general class materials.
<Traditional (textbooks, educational materials); Authentic (TED Talks, news articles, real business materials); Both; Other>
- Q7: Please rank the following general language skills in order of their importance for you to improve.
< __ Speaking; __ Listening; __ Reading; __ Writing>
- Q8: If any, please list the aspects that you liked about the TED Talks, and how they were helpful for you.

-
-

Q9: If any, please list the aspects that you did not like about the TED Talks, and how they were not helpful for you.

-
-
-

Q10: Please share any further thoughts or opinions regarding the instructional use of TED Talks.

-
-
-

Appendix D

List of TED Talks used for instruction

Simon Sinek: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Sep 2009, 18:04)

Hans and Ola Rosling: How not to be ignorant about the world (Jun 2014, 19:05)

Ken Robinson: How schools kill creativity (Feb 2006, 19:24)

Elon Musk: The man behind Tesla, SpaceX, Solarcity... (Feb 2013, 21:04)

Susan Etlinger: What do we do with all this big data? (Sep 2014, 12:23)

Bjorn Lomborg: Global priorities bigger than climate change (Feb 2005, 16:41)

Dan Gilbert: The surprising science of happiness (Feb 2004, 21:16)

Kare Anderson: Be an opportunity maker (Sep 2014, 9:46)

Thomas Picketty: New thoughts on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Oct 2014, 21:00)

Isabel Allende: How to live passionately - no matter your age (Mar
2014, 8:16)

All videos were downloaded or streamed from: www.ted.com



성인문해교육 인식체제 분석을 통한 정규학교 도입 방안 제시

허지원*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문해교육 정규학교 도입 방안 연구결과
- IV. 문해교육정규학교 도입방안을 위한 제언

I. 서론

1. 연구목적

성인문해교육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각 국가는 문맹퇴치 이름으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문해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 우송정보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

인 능력으로, 개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다. 이는 인간의 성장, 사회 경제적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능력이며,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평생교육진흥원, 2009).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여성들의 비 문해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노인 여성들의 비문해 원인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초기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학습기회의 박탈을 가져왔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차단되어 문자사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이준우, 2011).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31조 1항)와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헌법 31조 2항)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의 비문해 문제는 오랫동안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신미식, 2006). 특히, 1950년대 국가적 프로젝트로 실시되었던 ‘문맹퇴치 5개년 계획’(1954년~1958년) 이후, 정부는 오랜 시간 문해교육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해교육은 대부분 시민 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은 재정지원, 연수지원 등에 한정된 것이었다(허준, 2008). 그러다가 2006년에 들어서 교육부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로소 정부는 비문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만, 현재에도 정부의 문해교육에 대한 입장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장기적 이면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문해교육을 전개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신미식, 2006).

각 지역에 설립된 학교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 대부분 유희시설로 남아 있다. 주5일 수업제 도입

으로 유희시간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며, 어느 지역이든 지역의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학교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인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관이다(구교정, 2008).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가 91만 명에 이르고, 학업중단 및 기타 사유로 20세 이상 중학교 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인구가 577만여 명에 달한다는 2010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수요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측된다(교육부, 2016).

이런 상황에서 열린교육 실현 등 지역사회 기여 등의 책무성을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으나, 대부분 운동장 개방을 비롯하여 일부 교실 등 유희시설을 활용한 학부모교육 및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평생교육백서, 20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¹⁾’ 선정결과를 보더라도, 선정된 588개 기관 중 정규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대학에서는 지역사회 및 성인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부터 ‘대학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²⁾’을 펼쳐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08). 이처럼 정규 초·중등학교는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에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
- 1) 국가에서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곳에서는 지원받은 재정으로 성인문해 교과서(38종) 및 교육과정 개발 및 문해교육 교원(2,829명) 양성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개최’, ‘기업교육기부 발굴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 등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前인적자원개발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및 성인학습자의 학습요구에 부응하고, 대학의 성인친화형 체제 개편을 유도하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를 보면 대부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으며(하봉운, 2012; 박성순·이병환, 2010; 정란지·주동범, 2009; 박형충, 김영화, 2008; 이선영, 2008; 전주성외, 2007; 양흥권, 2006; 정태식, 2005; 양병찬, 2004; 김소영, 2003; 이승룡, 1997) 연구대상도 주로 학습자와 교육을 제공해주는 기관 종사자 또는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규학교에서 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학교관리자와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 정규학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운영에 소극적인지 그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문해교육의 공간 확대를 위한 학교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관리자와 교육공무원들은 정규학교에서의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소극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2. 성인문해교육의 현황

1) 비문해자 현황

<표 1>을 통해 비문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성인인구는 2014년 기준 264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6.4%이다. 읽고, 쓰고, 셈하기가 가능하나, 생활에 활용이 미흡한 성인인구까지 합치면 비문해 성인인구

는 511만여 명에 이른다.

<표 1> 18세 이상 비문해 성인인구

구 분	수 준	추정인구	비고
수준1-①	읽기·쓰기·셈하기 가 전혀 불가능	80만 명	지원 ①+② (264만 명)
수준1-②	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고·셈하기 불가능	184만 명	
수준2	읽기·쓰기·셈하기 가능하나, 생활 활용 미흡	247만 명	
계		511만 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표 2>와 같이 20세 이상 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인구는 성인문해교육 잠재적 대상자로 577만여 명이 조사되었다.

<표 2> 연령별 성인문해교육 잠재 대상자

연령별	내국인 (20세 이상)	잠재 대상자	초등학교 잠재대상자		중학교 잠재대상자	
			초등학교 중퇴	안 받았음 (미취학포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합 계	36,765,374	5,772,051	329,986	1,592,888	3,604,887	244,290
20~24세	3,055,420	8,683	314	2,811	2,409	3,149
25~29세	3,538,949	15,591	503	4,700	4,462	5,926
30~34세	3,695,348	20,053	836	5,727	7,072	6,418
35~39세	4,099,147	33,848	1,601	8,116	15,049	9,082
40~44세	4,131,423	71,411	3,622	12,203	43,131	12,455
45~49세	4,073,358	229,734	11,232	20,515	172,133	25,854
50~54세	3,798,131	489,465	22,217	35,425	389,853	41,970

55~59세	2,766,695	642,809	28,204	50,516	526,907	37,182
60~64세	2,182,236	776,524	39,379	97,463	608,903	30,779
65~69세	1,812,168	912,996	62,927	200,312	622,096	27,661
70~74세	1,566,014	981,620	75,368	318,086	564,648	23,518
75~79세	1,084,367	784,222	50,706	342,511	376,334	14,671
80~84세	595,509	482,883	22,250	271,960	184,287	4,386
85세이상	366,609	322,212	10,827	222,543	87,603	1,239

(통계청, 2010)

더불어 <표 3>과 같이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라 외국인 문해교육 잠재 대상자도 91만 여명으로 조사되어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해교육 잠재대상자

외국인 주민 수	잠재수요자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한국국적취득 기타사유
1,741,919	913,562	608,116	147,382	92,316	65,748

(행정자치부, 2015)

이러한 자료는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교육의 기회가 늘었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및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같은 우리나라 인구 사회학적 환경으로 인해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요구는 여전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성인문해교육 관련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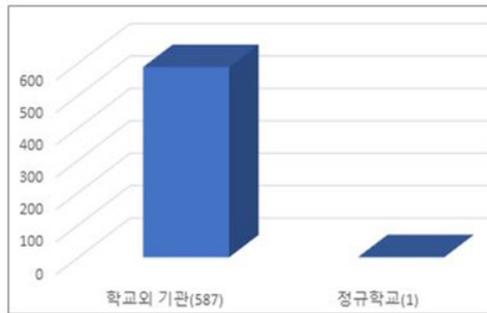
<표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9조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법률(제13248호), 2015년3월27일시행

<표 4>와 같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선정된 588개 기관 중 정규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하다.³⁾

3)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정규학교 현황



<그림 1> 2020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결과

<그림 1> 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결과⁴⁾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e.or.kr>)

4) 해당 자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세부영역인 광역 문해교육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지원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 영역의 선정결과이다.

원에서 발표한 2020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588개 기관 중 정규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하다. 유일한 정규학교인 청라초등학교의 성인문해교육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학교장의 의지와 담당교사의 열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5급 교육행정직공무원(사무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장학사 29명(38.67%), 5급 교육행정직공무원(사무관) 46명(61.33%)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5>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한 내용이며, <표 6>은 17개 시·도교육청별 소속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특성

(N=75,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구성비
직급	장학사	29	38.67
	교육행정사무관	46	61.33
성별	남	35	46.67
	여	40	53.33
연령	30대	1	1.33
	40대	45	60.00
	50대	29	38.67

5) 윤성채(2005)는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 관리자의 의지와 담당교사의 열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의 특성상 추진 인물이 이동하면 교육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지속적인 평생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해교육 업무경험	있음	8	10.67
	없음	67	89.33

<표 6> 조사대상자의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속 현황

(N=75, 단위: 명)

구분	소속	장학사	교육행정사무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7
2	인천광역시교육청	2	3
3	대전광역시교육청	2	4
4	광주광역시교육청	3	2
5	대구광역시교육청	2	1
6	울산광역시교육청	0	2
7	부산광역시교육청	1	2
8	경기도교육청	4	3
9	강원도교육청	1	2
10	충청북도교육청	4	2
11	충청남도교육청	1	4
12	경상북도교육청	0	2
13	경상남도교육청	1	1
14	전라북도교육청	2	4
15	전라남도교육청	1	2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1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	4
합계		29	46

장학사그룹과 교육행정사무관그룹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장학사⁶⁾의 경우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행정가와 밀접한 관련을

6) 장학사 자격기준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인

맺으며,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한 장학사의 역할 중 학교 경영기능⁷⁾이 있는데, 장학사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면 보통 교감·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자 즉, 성인문해교육을 정규학교에서 담당할 경우 실제 운영하게 되는 기관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사무관의 경우 교육행정기관⁸⁾에 근무하며 정책수립 및 행정개선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므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학교관리자가 운영자입장이라면 그 반대로 지원을 해주는 교육행정기관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설문내용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지의 내용은 첫째,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 인식정도 둘째,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태도 셋째,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관한 하위주제를 3~5개 질문으로 만들어 구성하였다.

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다.(출처 : 교육공무원법 제 9조 관련. 별표1.)

- 7) '학교경영기능'은 학교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적합한 교육 조건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 활동의 전문적 지도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능에는 학교교육 계획, 교육조직 관리, 교육과정 관리, 교육조건관리, 교육성과 관리 등을 포함한다(김종철, 1982. 「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 p.238).
- 8)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출처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호의 4항)

<표 7> 설문지의 구성내용

측정요인	측정문항
• 필요성 인식 정도	① 성인문해교육의 필요 ② 정규학교로의 확대·운영 필요성 ③ 정규학교 운영 찬·반 인식 및 이유
• 정규학교 성인 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태도	① 정규학교의 운영이 소극적인 이유 ② 정규학교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이점(1,2,3순위) ③ 정규학교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1,2,3순위) ④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시 가정 시 우선되어야 할 요인(1, 2순위)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위한 제안	① 적합한 행·재정적 상부지원기관 ②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기관 ③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④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⑤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형태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응답분포도를 살펴보고, 내용에 따라 독립표본 t검증과 교차분석(χ^2 검증)을 통해 장학사와 교육행정사무관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였다.

Ⅲ. 문해교육 정규학교 도입방안 연구결과

1.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장학사와 교육행정사무관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학사집단이 평균 4.59, 교육행정사무관이 평균 4.70로 두 집단 모

두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인문해교육 필요성 인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 편차	t 통계값	유의 확률
장학사 (장학사 N=29)	18 62.07%	10 34.48%	1 3.45%	0 0%	0 0%	4.59/ 0.57	-0.87	0.39
사무관 (교육행정 사무관 N=46)	33 71.74%	12 26.09%	1 2.17%	0 0%	0 0%	4.70/ 0.51		

*p < .05

2. 성인문해교육 정규학교로의 확대·운영 필요성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두 집단 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식의 차이는 장학사집단이 평균 2.90, 교육행정사무관 집단이 평균 3.46으로 교육행정사무관집단의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표 9> 성인문해교육 정규학교로 확대·운영 필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 편차	t 통계값	유의 확률
장학사 (N=29)	4 16.00%	4 16.00%	6 24.00%	9 36.00%	2 8.00%	2.90 /1.18	-2.04	0.045
교육행정 사무관 (N=46)	9 20.00%	13 28.89%	13 28.89%	8 17.78%	2 4.44%	3.46 /1.15		

*p < .05

또, <표 9-1>은 비문해률은 높지만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

역에 한정지어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다시 질문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 결과, 필요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은 더 높아졌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9-1> (농·어촌지역)의 성인문해교육 정규학교로 확대·운영 필요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표준편차	t 통계값	유의 확률
장학사 (N=29)	2 8.00%	11 44.00%	3 12.00%	7 28.00%	2 8.00%	3.24 /1.12	-2.55	0.01*
교육행정사무원 (N=46)	11 24.22%	22 48.89%	7 15.56%	4 8.89%	1 2.22%	3.87 /0.98		

*p < .05

1)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찬·반)인식 비교

검증결과,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문해교육을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정규학교에서도 확대·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장학사집단은 찬성 8명, 반대 21명이었고, 교육행정사무원집단은 찬성 31명, 반대 15명으로 두 집단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찬·반 인식비교

(빈도, 백분률)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원N=46)	전체 (N=75)
찬성	8	31	39
	27.59%	67.39%	52.00%
반대	21	15	36
	72.41%	32.61%	48.00%

$\chi^2=11.29$ (df=1, p=.001**)

**p < .01

2) 찬성·반대에 대한 이유

이어서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확대·운영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유를 물은 결과, 전체의 62.67%인 47명이 그 이유를 밝혔다. 집단 구분 없이 찬성과 반대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먼저,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1위는 ‘열린교육 실현 등 공교육기관의 책무성’, 그 다음으로는 ‘학교시설 활용’, ‘접근성 용이’, ‘평생교육 확대차원’,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만 학교의 참여 필요’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필요 대상이 있어서’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표 11>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찬성이유

순위	찬성이유 (N, %)	응답 세부내용
1	열린교육 실현 등 공교육기관의 책무성 (9, 34.61%)	문화개방 차원에서 공교육의 기회 확대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교육 필요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배움의 기회 확대와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중심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함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따른 학교의 지역구심체 역할 증진 필요
2	학교시설 활용 (5, 19.23%)	시설사용 시설활용 학교시설의 활용 유휴교실 등, 교실 공간 활용 가능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3	접근성 용이 (4, 15.38%)	학습자의 접근성 용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배움의 기회 접근이 용이해지고 확장 필요

4	평생교육 확대차원 (3, 11.54%)	성인교육확대 생애 전인교육 확대 노인교육의 중요성 증가
5	평생교육시설 부족한 지역만 학교참여 필요 (2, 7.69%)	평생교육시설이 적은 농촌 지역만 찬성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는 학교에서도 분담해야 함
기타 의견 (3, 11.54%)		필요대상이 있음 현재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

다음으로, 반대하는 이유로는 1순위가 ‘학교의 업무과중 우려’, 그 다음이 ‘정규교육의 침해 우려’, ‘평생교육기관이 담당’, ‘시행법령 상이’ 등의 순이었다.

<표 12>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운영 반대이유

순위	반대이유(N, %)	응답 세부내용
1	학교의 업무과중 우려 (7, 33.33%)	업무과중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큼 정규학교는 이미 업무과다 성인문해교육까지 실시할 여력이 없음 공교육 내실화 추진에도 교원의 역할이 한계에 처한 사항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음, 학교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라. 현재 학교의 학생 교육 및 보육 업무 과다로 인해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교육 집중도 약해질 우려
2	평생교육 기관이 담당 (또는 지역의 유관기관) (6, 28.57%)	평생교육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이 좋다.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충분할거라 생각한다. 학교 아닌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 정규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시설과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해야함

3	정규교육의 침해 우려 (5, 23.80%)	정규교육 우선 정규교육의 독립성 보장 정규학교와 성격이 다름 학교는 정규교과에 충실해야 정규학교는 정규교육에 충실해야 함
4	시행법령 상이 (3, 14.29%)	근거법령 미비 현행 소관법령에 상치됨 평생교육과 초·중등학교 교육 취지와 목적이 달라 시행상 구별 필요함

3) 집단별 찬성·반대 이유

집단별로 찬성·반대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집단별 의견을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반대의견은 집단 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반해, 찬성 의견에서는 서열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학사는 ‘증가하는 여유교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고, 교육행정사무관은 ‘열린교육 실현 등 공교육기관의 책무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3.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로 두 집단 모두 초·중등학교에서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따르기 때문(강제조항이 아니므로)이다’에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응답도 같은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흥미로운 것은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가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해, 정작 학교운영을 직접하는 집단인 장학사집단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를 저해요인으로 생각하는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정규학교가 성인문해교육 운영

에 소극적인 이유로 ‘학부모 및 학생 반발우려’에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 13>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소극적인 이유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따르기 때문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13	44.83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따르기 때문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13	28.26
				문해교육에 대한 무관심	13	28.26
2	학생의 교육침해 우려	7	24.14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9	19.57
3	문해 교육에 대한 무관심	4	13.79	학생의 교육침해우려	6	13.04
4	정부재정지원 미비	3	10.34	정부재정지원미비	3	6.52
5	학부모 및 학생 반발우려	1	3.45	학부모 및 학생 반발 우려	2	4.35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1	3.45			
	합 계	29	100	합 계	46	100

4.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이점과 문제점

1) 예상되는 이점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이점을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두 집단 모두 예상되는 이점으로 ‘공교육의 열린교육 실천’,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이미지 쇄신’을 이점으로 응답하였으며, 장학사의 경우, ‘체계

적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도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 실시 이점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학사는 ‘학교시설 활용으로 인한 재정 효율화’, 교육행정사무관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빈 교실 활용 가능’을 이점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모두 학교의 잉여자원 활용을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이점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공교육의 열린 교육 실천	8	27.59	공교육의 열린 교육 실천	15	32.61
2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이미지 쇄신	7	24.14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이미지 쇄신	16	34.78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	7	24.14			
3	학교시설 활용으로 인한 재정 효율화	8	27.59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빈 교실 활용가능	17	36.96

2) 예상되는 문제점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먼저 장학사는 ‘학교교직원의 업무증가’를, 교육행정사무관은 ‘학생의 교육활동 제약’을 문제점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장학사는 ‘학생 교육활동의 제약’, ‘학교내외 안전(방법)우려’, ‘학교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에 각각 같은 빈도로 응답하여 학교 관리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행정사무관은 ‘학교 교직원의 업무증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5>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학교교직원의 업무증가	18	62.07	학생 교육활동의 제약	13	28.28
	학생 교육활동의 제약	8	27.59			
2	학교내외 안전(방법)우려	8	27.59	학교 교직원의 업무증가	14	30.43
	학교시설 유지·관리 어려움	8	27.59			
3	학교내외 안전(방법) 우려	7	24.14	학생·학부모 반발 우려	11	23.91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두 집단에서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위에 대한 인식에서 <표 15-1>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장학사집단의 경우는 ‘학교 교직원의 업무증가’에 응답한 사람이 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62.0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교육행정사무관집단은 ‘학생교육 활동의 제약’에 응답한 사람이 13명으로 전체의 28.26%를 차지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5-1> 정규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1순위)

	학부모 및 학생반발 우려	학생교육 활동의 제약	학교내외 안전(방법) 우려	학교시설 유지·관리 어려움	학교 교직원의 업무증가	신변노출을 꺼려하는 수혜자들의 참여율저조	전체 실제빈도 백분율 (%)
장학사 (N=29)	4 13.79	5 17.24	1 3.45	1 3.45	18 62.07	0 00	29 100
교육행정 사무관 (N=46)	9 19.57	13 28.26	5 10.87	7 15.22	9 19.57	3 6.52	46 100
전체	13 17.33	18 24.00	6 8.00	8 10.67	27 36.00	3 4.00	75 100

$$\chi^2 = 15.59 \text{ (df = 5, } p = .008^*)$$

* p < .05

5.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실시될 때 우선되어야 할 조건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데 가장 필요한 선행조건 2가지를 묻은 결과는 <표16>과 같다. 두 집단은 ‘문해교육 전담인력 확충’을 가장 우선해야 할 선행조건으로 꼽았고, 교육행정사무관집단은 그와 함께 ‘관리자 및 학교관계자의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를 우선되어야 할 선행조건으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표 16>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되어야 할 조건
(우선순위 2가지)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문해교육 전담 인력 확충	15	51.72	문해교육 전담 인력 확충	16	34.78
				관리자 및 학교 관계자의 인식개선	16	34.78
2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13	44.83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13	28.26

<표 16-1>과 <표 16-2>는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 되어야 할 2가지 선행조건에 대한 응답전체를 보여주는 표이다.

<표 16-1>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되어야 할 요인 (1순위)

문해교육 전담인력 확충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인정	(학생)정규 교육과정 과의 조화	관리자 및 학교관계자의 인식개선	학부모및 학생들의 인식개선	전체실제 빈도백분 율(%)
--------------------	-------------------	-------------------------	-------------------------	-------------------------	----------------------	----------------------

장학사 (N=29)	15 51.72	3 10.34	3 10.34	4 13.79	2 6.90	2 6.90	29 100
교육행정 사무관 (N=46)	16 34.78	4 8.70	3 6.52	4 8.70	16 34.78	3 6.52	46 100
전체	31 41.33	7 9.33	6 8.00	6 10.67	18 24.00	5 6.67	75 100

<표 16-2> 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할 때 우선되어야 할 요인 (2순위)

	문해교육 전담인력 확충	재정확충 및 지원확대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인정	(학생)정규 교육과정 과의 조화	관리자 및 학교 관계자의 인식개선	학부모및 학생들의 인식개선	전체실제 빈도 백분율 (%)
장학사 (N=29)	5 17.24	13 44.83	2 6.90	1 3.45	6 20.69	2 6.90	29 100
교육행정 사무관 (N=46)	10 21.74	13 28.26	3 6.52	5 10.87	8 17.39	7 15.22	46 100
전체	15 20.00	26 34.67	5 6.67	6 8.00	14 18.67	9 12.00	75 100

6. 성인문해교육의 행·재정적 상부 지원기관

성인문해교육의 행·재정적 상부 지원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적당한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조사 결과, 두 집단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사집단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인문해교육의 행·재정적 상부 지원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장학사집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꼽았다.

<표 17> 성인문해교육의 행·재정적 상부 지원기관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평생교육진흥원	14	48.28	지방자치단체	17	36.96
2	지방자치단체	9	31.03	시도교육청	9	19.57
				교육부	9	19.57
3	교육부	3	10.34	평생교육진흥원	8	17.39
4	여성가족부	2	6.90	여성가족부	2	4.35
5	평생교육단과대학	0	0	평생교육단과대학	1	2.17
	시도교육청	0	0			
6	기 타	1	3.45	기 타	0	0
	합 계	28	100	합 계	46	100

$\chi^2 = 15.02$ (df = 6, p = .02*)

*p < .05

7. 성인문해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기관

성인문해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느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지역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인문해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55% 이상이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응답한 빈도가 높았으며,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초·중)정규학교’도 19.57%의 빈도로 장학사집단의 ‘(초·중)정규학교’ 3.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8> 성인문해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기관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지역평생교육원	16	55.17	지역평생교육원	26	56.52
2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7	24.14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10	21.74
3	문화센터(마트,백화점 등)	2	6.90	(초·중)정규학교	9	19.57
	평생교육단과대학	2	6.90			
4	야학(비인가학교)	1	3.45	평생교육단과대학	1	2.17
	(초·중)정규학교	1	3.45			
5	·			야학(비인가학교)	0	0
				문화센터(마트,백화점등)	0	0
합 계		29	100.0	합 계	46	100

$$\chi^2 = 9.27 \text{ (df = 5, p = .099*)}$$

*p < .05

8.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음의 연구결과는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얻고자 조사한 결과이다. 내용에 따라 교차분석이 필요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집단 구분 없이 빈도분석을 하였다.

1) 제도적 측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두 집단 모두 ‘명확한 시행기관 지정’을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문해교육 재정(예산) 확충’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또한 교육행정사무관집단에서는 ‘문해교육 운영관련 조례개정’을 21.74%의 빈도로 응답하였으나, 장학사집단에서는 3.45%로 ‘문해교육 운영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집단 간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순위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N	%	N	%		
1	명확한 시행기관 지정	9	31.03	명확한 시행기관 지정	12	26.09
2	문해교육 재정(예산)확충	7	24.14	문해교육 재정(예산)확충	11	23.91
3	문해교육 시설개선 및 확충	6	20.69	문해교육 운영관련 조례개정	10	21.74
4	문해교육 컨트롤 센터 지정	5	17.24	문해교육 컨트롤 센터 지정	8	17.39
5	문해교육 운영관련 조례개정	1	3.45	문해교육 시설 개선 및 확충	3	6.52
	학교 밖 시설 위주의 문해교육을 학교 안으로 확대 시행	1	3.45			
6				학교 밖 시설 위주의 문해교육을 학교 안으로 확대 시행	2	4.35
합 계		29	100.0	합 계	44	95.65

$\chi^2 = 7.22$ (df = 5, p = .2*)

*p < .05

2) 운영 측면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측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장학사집단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에 44.83%, 교육행정사무관집단은 ‘학력인정과 연계한 교육’에 39.13%의 빈도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집단 간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장학사(N=29)	교육행정사무관(N=46)
-----------	---------------

순위		N	%		N	%
1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	13	44.83	학력인정과 연계한 교육	18	39.13
2	학력인정과 연계한 교육	6	20.69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	11	23.91
3	꾸준한 학습자 관리	5	17.24	꾸준한 학습자 관리	9	19.57
4	문해교육 참여방법 홍보	3	10.34	문해교육 참여방법 홍보	7	15.22
5	학습자 경제적 지원(장학금)	2	6.90	우수한 강사진 확보	1	2.17
6	우수한 강사진 확보	0	0	학습자 경제적 지원(장학금)	0	0.0
	합 계	29	100	합 계	46	100

$$\chi^2 = 8.49 \text{ (df = 5, } p = .13^*)$$

*p < .05

3) 운영 방법 형태

어떤 수업형태가 성인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응답 순위가 같아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빈도분석을 하였는데, ‘전통적 교실수업(1:소수)’의 형태를 58.67%의 빈도로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통적 교실수업(1:다수)’, ‘또래 멘토링’, ‘문해교육 온라인 강좌’, ‘가정방문 문해교육’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1>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형태

순위	형 태	N	%
1	전통적 교실수업(1:소수)	44	58.67
2	전통적 교실수업(1:다수)	13	17.33
3	또래 멘토링(글을 아는 친구가 가르침)	7	9.33
4	문해교육 온라인 강좌	6	8.00
5	가정 방문 문해교육	5	6.67
	합 계	75	100

Ⅳ. 문해교육 정규학교 도입방안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성인문해교육의 제도권 진입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학사집단은 정규학교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할 경우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운영을 가정한 문항에서는 학교 교직원의 업무증가 우려, 학생의 교육활동 제약, 학교내외 안전(방법)우려, 학교시설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인력을 확충하거나 업무담당자와 학교에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명확한 행·재정적 상부지원기관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정규학교가 따르는 시행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인데 반해, 평생교육법에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⁹⁾ 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간의 원활한 조율과 협력을 통해 법령에 따른 혼선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규학교가 성인 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와 관련된 법령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직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시설 중 평생교육의 장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학교시설의 개방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홍보활동

9)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평생교육법 제39조)(자료 : 「평생교육법」, 법률(제13248호), 2015년3월27일시행)

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을 말한다(김소영, 2003). <그림 1>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선정결과를 통해 1개의 정규학교가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였는데, 이 1개 학교도 역시 학교장의 의지와 담당교사의 열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상 담당 교사가 이동하게 되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지속적인 평생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겠다. 성인학습자들로 하여금,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단순 지식제공이 아닌, 학력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취감도 배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과 학력인정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 교실수업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학습자들이 단순히 배우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학교라는 환경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인문해교육의 효과적인 운영형태로는 전통적 교실수업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자 측면에서의 인식조사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습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인식조사를 비롯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규학교 실제 운영사례를 질적 연구 또는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인식조사와 심층면담이 추가로 진행되어 정규학교의 성인문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옥경,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14
- 구교정, 「우리나라 학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 『인천교사평생교육연구회』, 2008
- 김동은, 구교정,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현황 분석」, 『교육문화연구』. 2007, 113-135쪽.
- 김병기,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행정법연구』, 12호 2004, 159-190쪽.
- 김소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초·중등학교의 역할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 김향식, 최은수, 「지역사회학교의 평생교육 실천적 함의」, 『평생교육·HRD연구』, 5권 1호, 2009, 31-53쪽.
- 류상희, 「초등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한국기술교육학회』, 26권 2호, 2013, 199-213쪽.
- 민경수, 「한국과 일본의 학교 평생교육 추진체제 및 정책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2008.
- 박상옥 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발전방향 탐색」, CR2012-3. 2011년 연구보고서, 서울 : 평생교육진흥원, 2011.
- 박성순, 이병환,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학논총』, 31권 2호, 2010, 1-18쪽
- 박준수, 「교육시설 내 평생교육시설 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4, 230-233쪽
- 박형충, 김영화, 「학교요인, 지역요인 및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과 학교평생교육 참여의 관계」, 『한국교육』. 35권 4호, 2008, 59-80쪽.

- 신미식, 「한국 여성노인의 문해교육 현황과 정책」, 『한국동북아농촌』, 12권 4호, 2007, 261-283쪽
- 윤성채, 「학교 중심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평생학습도시 부천의 전망과 미래」, 『제2회 부천시 평생교육 심포지엄자료』, 부천교육청. 2005.
- 양병찬, 「학습권 관점에서 본 성인문해교육 지원 정책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4호, 2004, 207-229쪽.
- 양흥권, 「학교평생교육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시론」, 『평생교육학연구』, 12권 2호, 2006, 47-172쪽,
- 이선영, 「학교 평생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2008.
- 이승룡, 「초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구현 방안」,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 이준우, 「노인문해교육」, 서울 : 파란마음, 2011.
- 이희수, 「평생교육사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장석광, 「학교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부천시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2011.
- 장지은, 박지숙, 「지역연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지원 : 일본의 학교 지원지역본부와 학교보ランティア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권 1호, 2014, 213-243쪽.
- 전은경, 「현 시대의 문해교육-성인문해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비평』, 36호, 2015, 233-255쪽
- 전주성 외,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현직교사의 인식조사연구」, 『한국성인교육연구』, 1권3호. 2007, 173-197쪽.
- 정란지, 주동범, 「초등학교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열린교육연구』, 17(3), 2009, 193-213쪽.

- 정지웅, 김지자, 「문해교육제도가 학습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평생교육』, 1권 1호., 2013, 96-111쪽.
- 정태식, 「학교평생교육을 위한 학교의 교육자원에 대한 인식차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의 고등학교교사 및 재학생어머니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하봉운, 「평생학습시대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강화 방안-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3권, 2012, 215-241쪽.
- 한은희,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관한 연구 : 교수-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 허준, 「학습사회론에 비추어 본 문해교육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 연구』, 14(4), 2008, 57-81쪽.
- 교육부, 『201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운영지침서』. 세종 : 교육부, 2016.

■ 국문초록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설과 접근이 용이한 좋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인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등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에서 성인 문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5급이상 교육행정직공무원(사무관)과 초·중학교 예비관리자인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학교 밖 공간에 치중되어 있는 성인 문해교육이 초중학교로 확대되려면 어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해교육, 평생교육, 장학사, 교육행정직 사무관(5급)

■ Abstract

Proposal of a Plan for Introducing Schools through Analysis of the Recognition System of Adult Literacy Education

Heo, Ji Won

As The school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province is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accessibility suitable for use as a place for lifelong education, which can serve as a forum for citizens to fulfill their educatio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most adult literacy education is carried out at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local autonomous entities, such as lifelong educational facilities, libraries, rather tha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 why adult literacy education is not conducted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the senior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preliminary supervisors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I analyzed the results and suggested what kind of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utilize the space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for adult literacy education focused on facilities outside the school.

Keyword ● literacy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chool vice-commissioner, deputy director

■ 논문투고일 : 2021. 04. 30. ■ 심사완료일 : 2021. 05. 20. ■ 게재확정일 : 2021. 05. 20.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2020.12.01. 개정)

- 1) 논문투고자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 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2020.12.01. 개정)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 20매 (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연구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띄움)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 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 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 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논문 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0.12.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5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2020.12.01. 개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 심사위원 윤리서약서를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

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 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 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4) 중복 게재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

6) 논문에서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나눈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 ③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서약서. 별첨 3)

-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 ③ 공동 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

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학술운영위원장, 그리고 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본 교의 인사(스톡스대학 교수 제외) 4인 이하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

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2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항)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연구 소장 : 현승훈

◇ 편집위원장 : 최혜진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민웅기(목원대), 서유석(경상대), 송석량(목원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목원대), 조용림(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1년 05월 30일 / 30 May 2021

통권 제7호 / No.7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21년 05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ttps://www.mokwon.ac.kr/lic/>

인쇄처 으뜸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